

중학교

漢文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원주용 김인서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중학교

漢文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원주용 김인서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들어가기

대단원의 제목과 대단원을 구성하는 소단원의 제목을 안내하고, 대단원의 설정 취지와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소단원 본문 주제와 관련된 한자, 단어, 성어, 문장, 한시 등을 삽화나 만화, 사진 자료 등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부수를 색깔로 표시한 ‘새로 나온 한자’를 본문 아래에 배치하였다.

본문 깊이 보기 본문 이해와 관련된 요소들을 새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수준과 범위, 학습량의 적정화 등을 고려하여 조작하였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를 '덤'으로 제시하였으며, 본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해와 감상'을 제시하였다.



함께 해 보기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과제를 흥미롭게 제시하였다.

사방팔방 한자 생활 주변에서 한자 · 한문이 활용된 사례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그와 유사한 예를 찾아보게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한자 · 한문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실력 다지기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갈무리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효율적
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일상 용어의 활용 본문에 나온 한자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익혀 일상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로 읽는 한문 본문의 주제나 인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선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용어의 활용 타 교과의 한자 어휘를 익혀 학습에 활용하고 창의·융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문 속 문화 읽기 본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에 기초한 전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부록 ‘실력 다지기’ 정답, 본문 풀이,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등 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머리말

한문은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창제되기 훨씬 전부터 유일한 글자로 사용되어 온 문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이용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사상과 감정을 기록하였으며,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역사책은 물론이고, “팔만대장경”이나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거나 새겨졌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한문은 오랫동안 중요한 기록의 수단이 되었으니,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한문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한문 기록 속에는 훌륭한 선인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가득 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가르침을 본받아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는 데에도 한문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한문이 너무나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기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용어는 물론 학습 용어에도 한문에서 유래된 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문에서 유래된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넓혀 가다 보면 우리의 언어생활이 보다 풍부해지고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문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자를 공통의 문자로 사용한 나라들을 통틀어서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문의 학습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자 문화권 나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문을 배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정규 교과로는 한문을 처음 배우는 중학생들이 한자와 한문의 기초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자와 한문에 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진 자료,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있는 한자와 한문을 찾아보는 활동 자료들을 함께 실어 더욱 재미있게 한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학습을 통하여 한문을 읽고 풀이하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깨달으며, 일상의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의 학습에도 도움을 얻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지은이 씀

차례



I

한자 · 한문과의 만남

- 01. 한자의 탄생 • 8
- 02. 한자와 한자의 만남 • 14
- 03. 단어의 짜임(1) • 20
- 04. 단어의 짜임(2) • 26
- 단원 갈무리 • 32

II

삶의 지혜가 담긴 말

- 05. 네 글자에 담긴 뜻 • 34
- 06. 이야기가 있는 성어 • 40
- 07. 풍자와 교훈이 담긴 말 • 46
- 08. 짧은 글, 깊은 뜻 • 52
- 단원 갈무리 • 58



III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 09. 옛 교과서에서 배우다 • 60
- 10. 사서에서 얻은 깨달음 • 66
-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 72
- 12. 우리 선현이 남긴 교훈 • 78
- 단원 갈무리 • 84

IV

그리움의 노래

- 13. 그대, 어디 있나요? • 86
- 14. 봄바람 부는 날 • 92
- 15. 그리움을 강물에 띄워 • 98
- 단원 갈무리 • 104





V

우리 땅, 우리 문화

- 16. 우리가 사는 이 땅 • 106
- 17. 동방의 아름다운 풍속 • 112
- 18. 동방의 위대한 문화유산 • 118
- 19. 소중한 사람들, 가족 • 124
- 단원 갈무리 • 130

VI

뜻을 세우고 학문의 세계로

- 20.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 132
- 21. 우리 고전 속의 자연 과학 • 138
- 22. 예술에 혼을 바친 사람들 • 144
- 단원 갈무리 • 150



VII

시와 인생

- 23. 달이 뜨면 • 152
-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 158
- 25. 왜 사냐건, 웃지요 • 164
- 단원 갈무리 • 170

VIII

인간과 인간

- 26. 아내의 충고 • 172
- 27. 묵적동 선비, 허생 • 178
- 28. 자연의 주인은 • 184
- 단원 갈무리 • 190



부록

- 1. 실력 다지기 정답 • 192
- 2. 본문 풀이 • 194
- 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 198
- 4. 인용 자료 출처 • 213

I

한자·한문과의 만남

01. 한자의 탄생

02. 한자와 한자의 만남

03. 단어의 짜임(1)

04. 단어의 짜임(2)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그림을 그려서 의미를 전달하였다. 한자도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모양, 음, 뜻이 갖추어진 문자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없던 시대에는 물론 한글 창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한자를 주요한 표기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기록 유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활용을 위해서도 한자·한문의 학습은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한자의 특성,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단어의 짜임 등을 학습하여 한자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한다.

단원 학습 목표

-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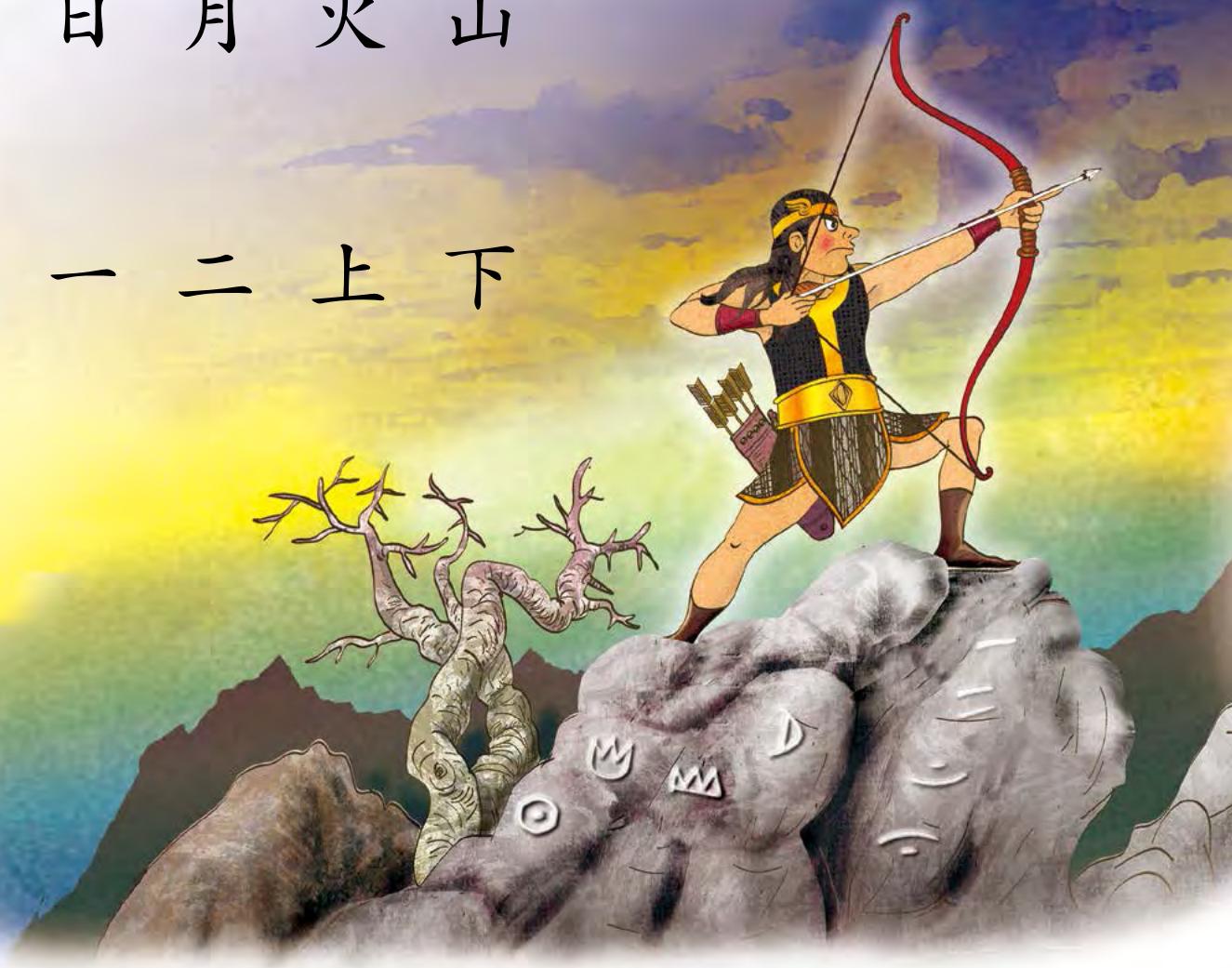
01. 한자의 탄생



문자가 없던 시절, 인간은 해와 달, 불과 산 등 사물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생각을 표현하였다. 또한 ‘하나’, ‘둘’과 같은 숫자나 ‘위’, ‘아래’와 같은 추상적인 뜻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그림과 점·선이 점차 글자로 발전하였다.

日 月 火 山

一 二 上 下



日(일) 해/날

月(월) 달

火(화) 불

山(산) 산

一(일) 하나

二(이) 둘

上(상) 위

下(하) 아래

目(목)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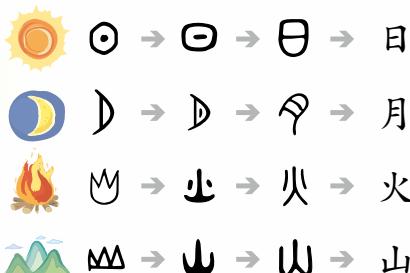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 상형자와 지사자의 원리를 구별한다.



본문 깊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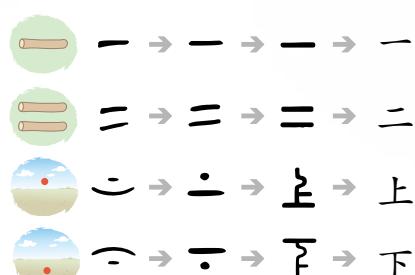
1. 상형자(象形字)



• 상형(象形)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

2. 지사자(指事字)



• 지사(指事)

주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을 이용하여 글자를 만드는 원리.

3. 한자의 3요소



•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음, 뜻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1. 상형자 더 알아보기

 魚 →  豊 →  魚 물고기의 모양을 본뜸.

 貝 →  貝 →  貝 조개의 모양을 본뜸.

 田 →  田 →  田 밭의 모양을 본뜸.

2. 지사자 더 알아보기

 木 →  木 →  木

나무의 뿌리 부분에 점을 찍어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냄.

 木 →  木 →  木

나무의 가지 끝에 점을 찍어 ‘끝’이라는 뜻을 나타냄.


재미로
읽는
漢文

갑골문의 발견



1899년, 중국 베이징.
특효약이라는데,
좀 살펴봐 주게.
이상합니다.
여기 글자가
있네요?
뭐라고?
아니, 이건 전설로만
전해지던 상나라 때의
글자가 아닌가?

갑골문(甲骨文)은 고대 중국에서 거북의 배딱지[甲]나 짐승의 뼈[骨]에 새긴 문자로,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 준다.

魚(어) 물고기

貝(패) 조개

田(전) 밭

本(본) 근본

末(말) 끝

水(수) 물

木(목) 나무

金(금) 쇠

土(토) 흙

三(삼) 셋

四(사) 넷

五(오) 다섯

六(륙) 여섯

七(칠) 일곱

八(팔) 여덟

九(구) 아홉

十(십) 열

漢(한) 한나라

字(자) 글자



학습 용어의 활용

달력 - 요일과 수



일주일을 뜻하는 7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말해요. 서양에서는 서기 325년에 채택되었고 한국에는 17세기 초에 전래되었어요.



언제
만날까?



三일, 水요일!

달력은 1년 가운데 월, 일, 요일, 이십사절기, 행사일 따위를 날짜에 따라 적어 놓은 것이다. 1년은 12 개월이고, 1주일은 7일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양력과 전통적으로 쓰던 음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 7요일: 日, 月, 火, 水, 木, 金, 土
- 숫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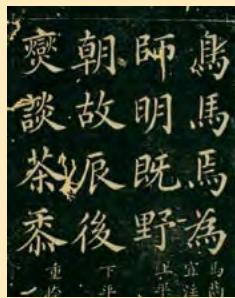


한자와 한문

漢字는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쓰이고 있는 공용(共用) 문자(文字)이다.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에서 출토된 기원전 15세기경의 갑골 문자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 수를 알 수 없다. 한(漢)나라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漢字’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낱글자를 뜻하고, ‘한문’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갑골문



해서



함께 해 보기

1

상형의 원리가 사용된 그림을 보고, 제시된 의미를 그림으로 직접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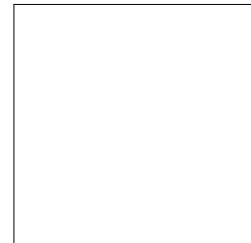
수영



사격



배구



비보이

2

지사의 원리가 사용된 기호를 보고, 제시된 의미를 기호로 직접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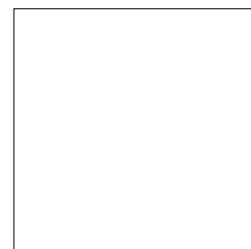
문에 기대지 마시오.



좌회전 금지



스마트폰 보며 걷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시오.



세계 여러 민족의 문자를 찾아보자.

예시



중국 원난성 나시족 마을에서
본 동파 문자야. 약 1,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림 문자래.



글자 모양이
귀여워.





실력 다지기

1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모양	음	뜻
화	불	
魚	어	

모양	음	뜻
本		근본
	전	밭

2

□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1) ㊥ → ㊥ → ㊥ → □

(2) 𠮩 → 𠮩 → 𠮩 → □

(3) 𠮩 → 𠮩 → 𠮩 → □

(4) 𠮩 → 𠮩 → 𠮩 → □

3

바위에 새겨진 한자들을 짜임에 맞게 분류해 보자.



(1) 상형자: _____

(2) 지사자: _____

4

달력의 () 안에 알맞은 요일과 날짜를 한자로 써 보자.

日	()	火	()	木	()	土
	一	二	()	四	()	六
()	八	()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02. 한자와 한자의 만남



인지가 발달하고 삶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물과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글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둘 이상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게 되었다.

林 休 安 男

問 洋 味 村



林(림) 수풀

休(휴) 쉬다

安(안) 편안하다

男(남) 사내

問(문) 묻다

洋(양) 큰 바다

味(미) 맛

村(촌) 마을

人(인) 사람

口(구) 입

門(문) 문

羊(양) 양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회의자와 형성자의 원리를 구별한다.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본문 깊이 보기

1. 회의자(會意字)



• 林: 나무[木]와 나무[木]가 모여 숲[林]을 이룸.



• 休: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어 쉼[休].

2. 형성자(形聲字)



• 問: ‘입[口]’의 뜻과 ‘문(門)’의 음이 모여 이루어짐.



• 洋: ‘물[水]’의 뜻과 ‘양(羊)’의 음이 모여 이루어짐.

• 회의(會意)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원리.

• 安: 집 면(….) + 여자 女(女) → 편안할 안(安). 집[….]에 여자[女]가 편안히 앉아 있다는 데서 ‘편안하다’의 뜻.

• 男: 밭 田(田) + 힘 力(力) → 사내 남(男). 밭[田]에서 힘[力]을 쓰는 사람이라는 데서 ‘남자’의 뜻.

• 형성(形聲)

이미 만들어진 글자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일부는 뜻[形]을, 일부는 음[音]을 나타내는 원리.

• 味: 입 구(口) + 아닐 미(未) → 맛 미(味). ‘입[口]’의 뜻과 ‘미(未)’의 음이 모여 이루어짐.

• 村: 나무 목(木) + 마디 촌(寸) → 마을 촌(村). ‘나무[木]’의 뜻과 ‘촌(寸)’의 음이 모여 이루어짐.



1. 회의자 더 알아보기



信 (人 + 言): 믿을 신

사람[人]의 말[言]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



炎 (火 + 火): 불꽃 염

불[火]과 불[火]이 만나 ‘불꽃’의 뜻이 됨.

2. 형성자 더 알아보기



頭 (豆 + 頁): 머리 두

‘머리[頁]’의 뜻과 ‘두(豆)’의 음이 만나 ‘머리 두’가 됨.



注 (水 + 主): 물 댈 주

‘물[水→氵]’의 뜻과 ‘주(主)’의 음이 만나 ‘물 댈 주’가 됨.

3. 한자의 획수와 필순

(1) 획수: 한자를 이루는 점이나 선의 수

예 永 - 5획 永 永 永 永 永

(2) 필순: 한자의 획을 쓰는 순서

① 위에서 아래로 쓴다. 三 三 三

②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川 川 川

③ 가로획을 먼저, 세로획을 나중에 쓴다. 十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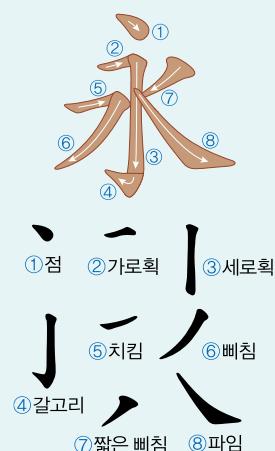
④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水 水 水 水

⑤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 尤 尤 尤 尤

⑥ 받침은 나중에 쓴다. 逆 逆 逆 逆 逆 逆 逆 逆

永字八法

한자의 획을 이루는 8가지
필법이 ‘永’ 자에 다 들어 있
다.



信(신) 믿다

炎(염) 불꽃

頭(두) 머리

注(주) 물 대다

永(영) 길다

川(천) 내

尤(우) 더욱

逆(역) 거스르다

法(법) 법

文(문) 글월

使(사) 부리다

用(용) 쓰다

但(단) 다만

只(지) 다만

甲(갑) 갑옷/첫째 천간

骨(골) 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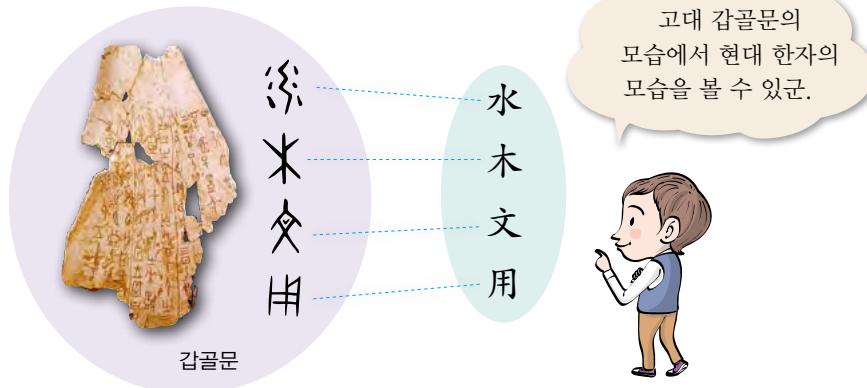
학습 용어의 활용

세계의 고대 文字

문자의 기원은 구석기 시대에 돌이나 뼈에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새긴 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그림은 선사 인류(先史人類)가 使用하던 그림 문자의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그림 문자는 但只 기억을 보조해 주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의사 소통의 대상으로 사용된 것은 인류의 문명이 크게 발달한 중국 ·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 마야의 문자를 들 수 있다.

“두산백과” 참조





함께 해 보기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자 카드 놀이를 해 보자.

<방법>

- ① <보기>에 있는 한자로 한자 카드를 만든다.
- ② 한자 카드를 상하 또는 좌우로 조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든다.
- ③ 만들어진 한자의 의미를 설명해 본다.

* 이미 있는 한자를 만들어도 되고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도 된다.



一	上	下	日	月	火(=…)
山	木	羊	水(=氷)	人	田
魚	貝	門	口	八	



그림과 같이 캘리그라피로 표현된 한자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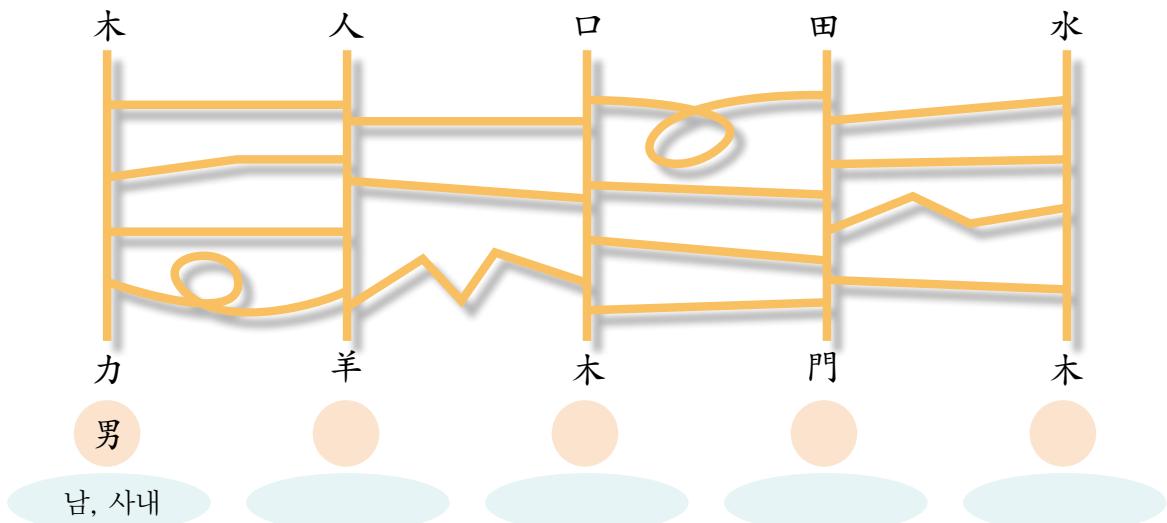
*캘리그라피: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그림처럼 글자를 표현하는 것.



실력 다지기

1

사다리를 따라갔을 때에 두 글자가 만나 이루어지는 한자를 쓰고, 그 한자의 음과 뜻을 써 보자.



2

두 개의 카드를 연결하여 만들어진 한자를 써 보자.

(1) + →

(2) + →

(3) + →

(4) + →

(5) + →

(6) + →

3

글자를 따라 써 보고, 한자를 쓰는 원칙과 연결해 보자.

(1) •

• ㉠ 위에서 아래로 쓴다.

(2) •

•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3) •

• ㉢ 가로획을 먼저, 세로획을 나중에 쓴다.

(4) •

• ㉣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03. 단어의 짜임(1)



두 자 이상의 한자가 모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결합 방식이 생겨난다. 여기서는 병렬 관계와 수식 관계를 알아보자.



海洋 陸地

大小 多少

青天 白雲

直立 快走

海(해) 바다

陸(륙) 물

地(지) 땅

大(대) 크다

小(소) 작다

多(다) 많다

少(소) 적다

青(청) 푸르다

天(천) 하늘

白(백) 희다

雲(운) 구름

直(직) 곧다

立(립) 서다

快(쾌) 상쾌하다/빠르다

走(주) 달리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병렬 관계와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단어의 짜임

(1) 병렬 관계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지거나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이다.

- 海[바다] + 洋[큰 바다] → 海洋[넓고 큰 바다]
- 多[많다] + 少[적다] → 多少[많고 적음.]

- 병렬 관계와 수식 관계의 단어는 풀이하는 순서가 우리말과 같다.
① ②
- 多少

(2)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으로, 명사류를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류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 青[푸르다] + 天[하늘] → 青天[푸른 하늘]
명사
- 直[곧다] + 立[서다] → 直立[바로 섶.]
동사



2. 단어 읽고 풀이하기

(1) 병렬 관계의 단어

- 陸地(육지): 지구의 표면 중 물로 덮이지 않은 부분.
- 大小(대소): 큼과 작음.

- 단어 읽기: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음을 차례로 읽는다.

- 단어를 읽을 때는 두음 법칙에 유의한다.

陸地(륙지 → 육지)

(2) 수식 관계의 단어

- 白雲(백운): 흰 구름.
- 快走(쾌주): 빨리 달림.

- 단어 풀이하기: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뜻을 우리말 순서에 맞게 결합한다.

1. 병렬 관계의 단어 더 알아보기

巨 (클 거) + **大** (큰 대) → 巨大

宇 (집 우) + **宙** (집 주) → 宇宙

男 (사내 남) + **女** (여자 녀) → 男女

高 (높을 고) + **低** (낮을 저) → 高低



주합루
(宙合樓)

창덕궁 후원에 있는 건물로 1층은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奎章閣)이고 2층은 열람실이었는데, 이 열람실을 주합루(宙合樓)라고 한다. ‘宙’은 무한한 시간을 가리키므로 ‘宙合’은 무한한 시간을 아우르는 집으로 선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 宇宙: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종체.

- 高低: 높낮이.



주합루

2. 수식 관계의 단어 더 알아보기

壯 (씩씩할 장) + **士** (선비 사) → 壯士

早 (일찍 조) + **起** (일어날 기) → 早起

- 壯士: 씩씩한 사람.
- 早起: 일찍 일어남.

재미로
읽는 漢文

오빠, 오대양
(五大洋)은 어디
를 말하는 거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
대양인 태평양(太平洋), 대
서양(大西洋), 인도양(印
度洋), 남빙양(南冰洋), 북
빙양(北冰洋)을 말한단다.

남빙양과 북빙양은
무슨 뜻이야?

두 곳은 남극해 북극해라
고도 하는데 대부분 얼음
으로 이루어져 있어 ‘얼음
빙(氷)’ 자를 쓴 것이지.

巨(거) 크다

宇(우) 집

宙(주) 집

女(녀) 여자

高(고) 높다

低(저) 낮다

壯(장) 씩씩하다

士(사) 선비/사람

早(조) 일찍

起(기) 일어나다

季(계) 철

節(절) 마디

風(풍) 바람

比(비) 견주다

熱(열) 덥다

溫(온) 따뜻하다

度(도) 법도



학습 용어의 활용

계절풍(季節風)

季節風은 지구상의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바람으로 比熱에 의한 대류로 생긴다.

육지는 해수면보다 빨리 데워지고 또 빨리 식지만, 해수면은 계절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 여름에는 육지의 溫度가 바다보다 높고 바다의 기압이 육지보다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양풍이 불고, 겨울에는 그 반대이므로 육지에서 바다로 대륙풍이 분다.

- 季節風: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 比熱: 물질 1그램의 온도를 1°C 올리는 데 드는 열량과 물 1그램의 온도를 1°C 올리는 데 드는 열량과의 비율.
- 溫度: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여름 계절풍



겨울 계절풍



부채와 선풍기

부채란 ‘부치는 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줄어서 ‘부채’가 된 것이다.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어 넓적하게 벌려서 그 위에 종이나 형겁을 바른 것이다.

선풍기(扇風機)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회전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람[風]을 부채질[扇]해주는 기계[機]라는 뜻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방구부채



접부채

선풍기



함께 해 보기

다음 방법에 따라 한자 카드 놀이를 해 보자.

방법

- ① 모둠별로 <보기>의 한자를 사용하여 한자 카드를 만든다.
- ② 한자를 연결하여 두 자로 된 단어를 만든다.
- ③ 만들어진 단어의 음과 뜻을 적는다(사전이나 인터넷 활용).
- ④ 이미 배운 단어는 1점, 새로운 단어는 2점을 준다.

(단, 음만 맞는 새로운 단어는 1점을 준다.)

보기

洋 地 大 多
少 走 天 雲
白 快 小 靑
陸 立 海 直

→

<만들어진 단어>

- 大小(대소): 큼과 작음.(1점)
- 大海(대해): 큰 바다.(2점)





구례의 운조루에 있는 쌀뒤주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누구든지 열어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변에서 생활 도구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보기>를 참조하여 ()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男女, 比熱, 溫度, 巨大, 季節風

- (1) 바람의 종류에는 ()과 국지풍이 있다.
- (2)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을 ()라고 한다.
- (3) 어떤 물질 1그램의 온도를 1°C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이라고 한다.

2

제시된 뜻에 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자.

- | | | | |
|-----------|---|-------|-------|
| (1) 바로 섬 | • | • 大 • | • 天 • |
| (2) 푸른 하늘 | • | • 靑 • | • 走 • |
| (3) 크고 작음 | • | • 直 • | • 小 • |
| (4) 빨리 달림 | • | • 快 • | • 立 • |

3

제시된 단어를 짜임이 같은 것끼리 나누어 적어 보자.



- (1) 병렬 관계 – 뜻이 서로 상대되는 경우
()
- (2) 병렬 관계 – 뜻이 서로 비슷한 경우
()
- (3) 수식 관계 – 명사류를 수식하는 경우
()
- (4) 수식 관계 – 동사류를 수식하는 경우
()

04. 단어의 짜임(2)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결합 방식의 또 다른 예로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가 있다.

日出 山高水長

讀書 聞一知十

下山 多情多感



出(출) 나오다

長(장) 길다

讀(독) 읽다

書(서) 글/책

聞(문) 듣다

知(지) 알다

情(정) 뜻

感(감) 느끼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 · 술목 · 술보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단어의 짜임

(1) 주술 관계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

- 日[해] + 出[나오다 → 뜨다] → 日出[해가 뜸.]

• 日: 해. 날.

(2) 술목 관계

‘서술어+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

- 讀[읽다] + 書[책] → 讀書[책을 읽음.]

• 술목 관계와 술보 관계의 단어는 풀이하는 순서가 우리말과 다르다.

② ①
• 讀書

(3) 술보 관계

‘서술어+보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

- 下[내려가다] + 山[산] → 下山[산에서 내려감.]

② ①
• 下山
• 下: 아래. 내려가다.

2. 단어 읽고 풀이하기

• 山高水長(산고수장): 산은 높게 솟고 강은 길게 흐름.

- 인자(仁者)나 군자(君子)의 덕행이 높고 한없이 오래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山高水長: ‘주술+주술’로 이루어짐.

• 聞一知十: ‘술목+술목’으로 이루어짐.

• 多情多感: ‘술보+술보’로 이루어짐.

• 聞一知十(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앎.

- 지극히 총명함을 이르는 말.

• 多情多感(다정다감): 정이 많고 느낌이 많음.





일상 용어의 활용

1. 부수와 획수

(1) 부수: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

(2) 획수: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

- 日: 날 일(日)부, 0획

- 聞: 귀 이(耳)부, 8획

- 感: 마음 심(心)부, 9획



部首索引

1획	ム	357	弋	694	止	1084
又	369	弓	695	彑	1092	
丨	129	疋	705	夊	1101	
丶	133	多	706	母	1106	
口	365	手	710	比	1108	
丨	136	口	714	毛	1110	
丨	140	土	726	氏	1115	
士	454	宀	809	戠	1117	
丨	141	辛	809	水	1119	
久	483	氵	1119	冂	1120	
又	493	牙	1318	水	1119	
夕	499	𠂔	2228	火	1262	
大	495	𠂔(火)𠂔	2234	禾	1300	
	500					

자전과 부수색인

부수는 모두 214자이다.

2. 부수의 변형

- 洞의 부수: 물 수(水 → 洞)

- 悅의 부수: 마음 심(心 → 悅, 小)

- 抱의 부수: 손 수(手 → 抱)

- 菜의 부수: 풀 초(艸 → 菜)

- 부수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

- 제부수: 글자 자체가 부수인 글자.

예 日, 月, 山, 水 등



다독왕 김득신

조선 중기의 학자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은 문명을 크게 펼친 인물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몹시 노둔했다. 김득신의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질책하기보다 오직 勤勉할 것을 가르쳤다.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成功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대문장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김득신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책을 잡으면 수없이 反復하여 읽었다. ‘독수기(讀數記)’에서 자신이 1만 번 이상 읽은 책 목록 36권을 소개할 정도였다. 심지어 아내의 상을 당했을 때도 일가친척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 소리에 맞춰 책을 읽었다고 한다.

“도곡집”, “다산시문집” 참조



洞(동) 마을	悅(열) 기쁘다	抱(포) 안다	菜(채) 나물	勤(근) 부지런하다
勉(면) 힘쓰다	成(성) 이루다	功(공) 공	反(반) 돌이키다	復(복) 돌아오다
方(방) 모/방법/방위	音(음) 소리	速(속) 빠르다	通(통) 통하다	精(정) 자세하다
細(세) 가늘다	部(부) 부분	形(형) 모양	心(심) 마음	朴(박) 소박하다/성
賢(현) 어질다	英(영) 꽃부리	純(순) 순수하다	淑(숙) 맑다	雄(웅) 수컷/웅장하다



학습 용어의 활용

여러 가지 讀書 方法

- 音讀: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
- 速讀: 책이나 글의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 것.
- 通讀: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글 전체를 대강 살펴보는 것.
- 精讀: 글의 細部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세하게 읽는 것.

이외에도 默讀(默讀), 지독(遲讀), 전부 읽기, 발췌 읽기 등이 있다.



한·중·일 삼국의 한자체

- 정체자(正體字):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한자로, 전통적으로 써 오던 방식 그대로의 한자.
- 간화자(簡化字):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중국의 문자 개혁에 따라 字形을 간략하게 고친 한자.
- 신자체(新字體):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복잡한 글자의 획수를 간략하게 고친 한자. 흔히 약자(略字)라고도 함.

한국	중국	일본
魚	鱼	魚
節	节	節
讀	读	読





함께 해 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자를 찾아보자.

(1) 자전에서 부수로 感 찾기

- ① ‘부수색인’의 4획에서 부수인 ‘心’을 찾는다.
- ② ‘心’에 해당하는 쪽을 편다.
- ③ ‘感’에서 ‘心’을 뺀 나머지 획수를 센다. – 9획
- ④ 9획 부분에서 ‘感’을 찾아 뜻, 음을 확인한다.



자전의 자음(字音)색인이나
총획(總劃)색인으로 한자를
찾을 수도 있다.



(2) 컴퓨터로 感 찾기

- ① 한글 프로그램에서 **Ctrl + F9** 키를 누른다.
- ② ‘感’의 부수인 ‘心’을 선택한다.
- ③ 부수를 뺀 나머지 획수(9획)를 입력해 나온 한자에서 ‘感’을 찾는다.
- ④ ‘感’의 뜻, 음을 확인한다.



(3) 스마트폰으로 感 찾기

- ① 포털 사이트에서 ‘한자찾기’를 실행한다.
- ② 필기 인식기를 선택한다.
- ③ 필기 인식기에 ‘感’을 쓰고, 화면에 나온 한자 중에서
‘感’을 눌러 뜻, 음을 확인한다.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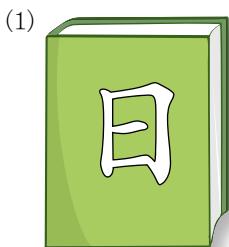
이름	모양	음	뜻	부수	총획	어휘
박	朴	박	소박하다	[木부]	6획	純朴
현	賢	현	어질다	[貝부]	15획	賢淑
영	英	영	꽃부리	[艸부]	9획	英雄



실력 다지기

1

한자의 음, 뜻을 쓰고 부수 부분에 색칠해 보자.



()



()



()



()

2

<보기>와 같이 빈칸에 써 보자.



日出	日	出
주술 관계	해가	뜨다

(1)

讀書	讀	書
술목 관계		

(2)

下山	下	山
술보 관계		

3

제시된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 카드를 찾아 연결해 보자.

- (1) 해가 뜸.
- (2) 정이 많고 느낌이 많음.
- (3)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앓.
- (4) 산은 높게 솟고 강은 길게 흐름.
- (5)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
- (6) 책이나 글의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 것.



-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활용** 日, 月, 火, 水, 木, 金, 土,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文字, 使用, 但只, 季節風, 比熱, 溫度, 讀書, 方法, 音讀, 速讀, 通讀, 精讀, 細部
- 2 한자의 짜임(1)**
- (1) 상형자: 日, 月, 火, 山, 貝, 魚, 田
 - (2) 지사자: 一, 二, 上, 下, 本, 末
- 3 한자의 짜임(2)**
- (1) 회의자: 林, 休, 安, 男, 信, 炎
 - (2) 형성자: 間, 洋, 味, 村, 頭, 注
- 4 단어의 짜임(1)**
- (1) 병렬 관계
 - 海洋, 陸地, 巨大, 宇宙
 - 大小, 多少, 男女, 高低
 - (2) 수식 관계
 - 青天, 白雲, 壯士
 - 直立, 快走, 早起
- 5 단어의 짜임(2)**
- (1) 주술 관계: 日出 山高水長
 - (2) 술목 관계: 讀書 聞一知十
 - (3) 술보 관계: 下山 多情多感
- 6 필순의 원리**
- ① 위에서 아래로 쓴다. 三
 - ②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川
 - ③ 가로획을 먼저 세로획을 나중에 쓴다. 十
 - ④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水
 - ⑤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 尤
 - ⑥ 받침은 나중에 쓴다. 逆
- 7 부수와 획수**
- 부수: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
 - 획수: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
- 日: [日부, 0획], 聞: [耳부, 8획], 感: [心부, 9획]
- 8 부수의 변형**
- 물 수 (水 → 氵) • 마음 심 (心 → 忄, 小)
 - 손 수 (手 → 扌) • 풀 초 (艸 → 艹)

II

삶의 지혜가 담긴 말

05. 네 글자에 담긴 뜻
06. 이야기가 있는 성어
07. 풍자와 교훈이 담긴 말
08. 짧은 글, 깊은 뜻



성어와 속담, 격언에는 선인들이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면 풍부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익혀 문장 풀이 능력을 기르고, 글의 내용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지혜와 교훈을 배워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서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성어, 속담 · 격언 속에 깃들어 있는 선인들의 지혜를 배운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05. 네 글자에 담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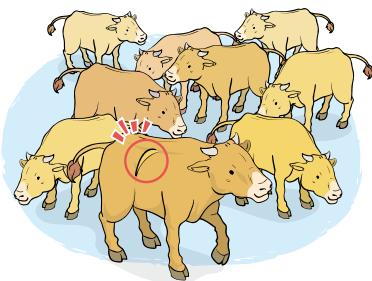


성어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쓰이던 말로, 전하고 싶은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주지. 한자 성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말해.

一石二鳥



九牛一毛



東問西答



右往左往



雪上加霜



以心傳心



石(석) 돌

鳥(조) 새

牛(우) 소

毛(모) 털

東(동) 동녘

西(서) 서녘

答(답) 대답하다

右(우) 오른쪽

往(왕) 가다

左(좌) 왼쪽

雪(설) 눈

加(가) 더하다

霜(霜) 서리

以(이) 써

傳(전) 전하다



본문 깊이 보기

1. 성어 읽기

- | | |
|----------------|----------------|
| • 一石二鳥 - 일석/이조 | • 九牛一毛 - 구우/일모 |
| • 東問西答 - 동문/서답 | • 右往左往 - 우왕/좌왕 |
| • 雪上加霜 - 설상/가상 | • 以心傳心 - 이심/전심 |

2. 성어 풀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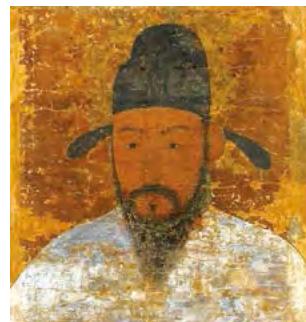
- 一石二鳥 |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음.
속뜻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
- 九牛一毛 |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하나의 털.
속뜻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
- 東問西答 |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함.
속뜻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右往左往 |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함.
속뜻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 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덮임.
속뜻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 以心傳心 | 마음으로 마음에 전함.
속뜻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음.

- 성어는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뜻과 속뜻을 함께 알아야 한다.
- 一石二鳥: 우리말 속담인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와 뜻이 통한다.
- '九'는 '매우 많음'을, '一'은 '극히 적음'을 나타낸다.

- 雪上加霜: 우리말 속담인 '흉년에 윤달'과 뜻이 통한다.

덤!
+
좌의정과
우의정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은 영의정(領議政)과 함께 조선 시대 삼정승(三政丞)으로 불렸다. 서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순이고 주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무(政務)와 외교 관계 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황희(1363~1452) 조선 시대 최장수 재상으로 24년간 재임하였다.



1.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上 (상)	위	頂上
	오르다	上京

• 上京: 서울에 올라감.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鳥 (오) 까마귀	鳥合之卒
鳥 (조) 새	傷弓之鳥

- 鳥合之卒: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
- 傷弓之鳥: 활에 다친 새. 즉 한 번 훈이 난 일로 늘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을 이르는 말.



'鳥'는 새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로, 머리 부분[白] 가운데의 '一'은 새의 눈을 나타낸다. 그러나 까마귀는 몸과 눈이 모두 깨맣기 때문에 눈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눈을 표시하지 않았다.



삼족오(三足鳥)

쌍영총 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삼족오는 태양을 상징한다.

아하! 생활 속의 성어

頂(정) 정수리

京(경) 서울

鳥(오) 까마귀

合(합) 합하다

之(지) 가다/어조사

卒(卒) 마치다/병사

傷(상) 상하다

弓(궁) 활

犬(견) 개

馬(마) 말

勞(로) 수고롭다

耳(이) 귀

足(족) 발/족하다

血(혈) 피



학습 용어의 활용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성어

다음은 우화 형식으로 꾸민 이야기이다.

암탉이 품고 있던 달걀이 모두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 경찰들이 출동했다. 암탉이 사는 헛간에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 犬馬之勞(견마지로): '개나 말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 馬耳東風(마이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鳥足之血(조족지혈):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의 사대문

사대문(四大門)은 조선 시대 도성(都城)인 서울 성곽의 4개의 큰 성문으로, 정동(正東)의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정서의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정남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정북의 숙청문(肅清門, 북대문)을 아울러 이르는 명칭이다. 숙청문은 중종 이후 '숙정문(肅靖門)'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새로 만든 문루에도 '숙정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함께 해 보기

오른쪽에 제시된 한자 성어 중 한 가지를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 <보기>와 같이 ‘나만의 학습 노트’에 기록해 보자.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해도 좋다.

一石二鳥

東問西答

雪上加霜

九牛一毛

右往左往

以心傳心



한자 성어

一石二鳥(일석이조)

음, 뜻

일 하나, 석 돌, 이 둘, 조 새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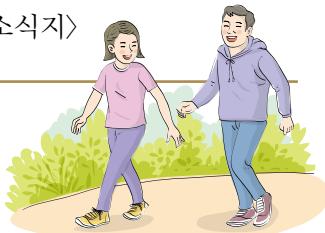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맞추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利益)을 얻음을 이르는 말.

조사 내용

건강·나눔 一石二鳥 ‘희망 한걸음 축제’

건강시 행복구는 도심 속 길을 걸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의 한걸음 축제’를 개최한다. 제10회 행복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 오전 8시 30분 행복 공원에서 출발, 나눔 공원을 반환점으로 하여 다시 행복 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행복구 소식지>



광화문(光化門)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이다. ‘문(門)’ 자가 들어간 현판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제시된 한자로 만들 수 있는 한자 성어를 써 보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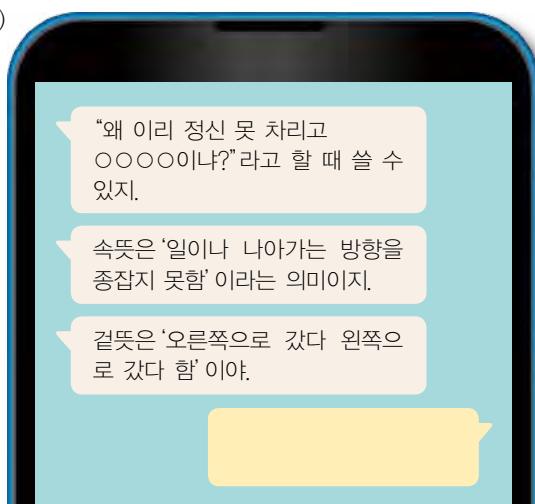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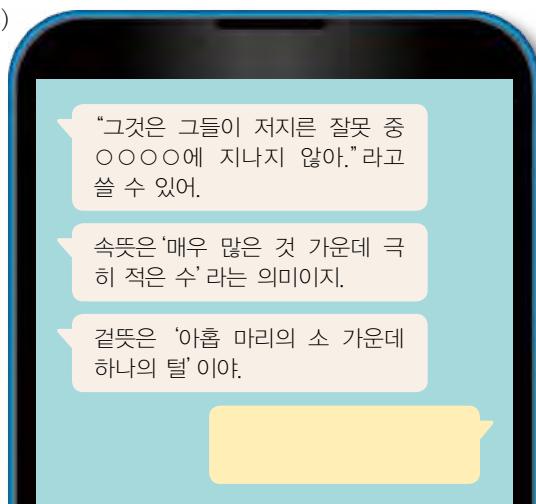
2

대화창에서 설명하는 한자 성어를 빙칸에 써 보자.

(1)



(2)



3

성어의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다니 그야말로 東問西答인데.
- ②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이것이야말로 一石二鳥로군.
- ③ 즐거운 수업 시간을 위해 노력하였으니 그래도 雪上加霜이야.
- ④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둘이 마음이 통하다니 以心傳心이네.

06. 이야기가 있는 성어



고사성어는 유래가 있는 성어로,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 선인들의 삶의 자세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助長

登龍門

漁父之利

朝三暮四

鷄卵有骨

五十步百步



助(조) 돋다

登(등) 오르다

*龍(룡) 용

漁(어) 고기 잡다

父(부) 아버지

利(리) 이롭다

朝(조) 아침

暮(모) 저물다

鷄(계) 닭

卵(란) 알

有(유) 있다

步(보) 걸음

百(백) 일백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고사성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고사성어의 유래와 속뜻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고사성어 읽고 풀이하기

- 助長(조장) | 자라도록 도움.

속뜻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登/龍門(등/용문) | 용문에 오름.

속뜻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 漁父之/利(어부지/리) | 어부의 이익.

속뜻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

-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 | 오십 보 도망간 것이나 백 보 도망간 것이나 같음.

속뜻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같은 것.

- 성어를 읽을 때는 의미에 유의하여 끊어 읽어야 한다.
- 고사성어는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뜻과 함께 유래와 속뜻을 알아야 한다.
- 龍門: 황하(黃河) 상류의 지명.
- 之: ~의.

- 五十步百步: 우리말 속담인 '도토리 키 재기' 와 뜻이 통한다.

2. 고사성어의 유래와 속뜻



朝三暮四(조삼모사) |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중국 송나라 저공(狙公)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 여기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한다'는 뜻이 나왔다.



鷄卵有骨(계란유골) | 달걀에 뼈가 있음.

즉 '달걀이 꽂았다'는 뜻. 세종 대왕의 명령으로 하루 동안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모두 황희의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종일 비가 와서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다가 저녁 때 달걀 한 꾸러미가 들어왔는데, 모두 꽂아서 먹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된다'는 뜻이 나왔다.



1.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長 (장)	길다	長壽
	잘하다	長技
	어른	訓長



- 長壽: 오래 삶.
- 長技: 가장 능한 재주.
- 訓長: 글방의 스승.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登 (등)	오르다	登極
	발	쏘다

- 登極: 임금의 자리에 오름.



오발탄

'오발탄(誤發彈)'은 '잘못 쏜 탄환'이라는 뜻으로 이범선이 지은 단편 소설이다. 월남한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분단의 비극성을 증언하고 황폐화된 전후(戰後)의 사회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소설 “오발탄”

어부지리(漁父之利)

壽 (수) 목숨	技 (기) 재주	訓 (훈) 가르치다	極 (극) 다하다	發 (발) 피다/쏘다
誤 (오) 그릇되다	家 (가) 집	食 (식) 먹다	宿 (숙) 잠자다	竹 (죽) 대나무
故 (고) 예	友 (우) 벗	易 (역) 바꾸다/(이) 쉽다	思 (사) 생각	居 (거) 살다
危 (위) 위태롭다	美 (미) 아름답다	語 (어) 말씀	不 (불)/(부) 아니다	說 (설) 말씀
句 (구) 글귀				



학습 용어의 활용

소설과 한자 성어

한자 성어는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에도 쓸 수 있다. 다음은 소설 속 상황과 그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연결한 것이다.

• 東家食西家宿(동가식서가숙)

- 이중섭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대구와 부산, 통영, 진주, 서울, 대구, 칠곡을 오가면서 친구들의 집을 전전했다.〈엄광용, “화가 이중섭” 중에서〉

• 竹馬故友(죽마고우)

- 김 아무개와 박 아무개는 어려서 한동네에 살면서 공부도 함께 했다. 그래서 클수록 정이 두터워 지더니 마침내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정(友情)을 버리지 말자. 훗날 누가 잘되든 반드시 복과 재앙을 함께 나누자.”라고 서로 굳게 맹세하며 형제의 의를 맺었다.〈“옛이야기-우정의 길” 중에서〉

• 易地思之(역지사지)

- 동생 탓만은 아니야. 내 탓도 있어. 내가 잠시 기분이 상해서, 동생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건 잘못이었어. 그런 나를 동생은 얼마나 원망했을까!〈이강백, “틀판에서” 중에서〉

■ 東家食西家宿: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뜻으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을 이르는 말.

■ 竹馬故友: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한 · 중 · 일의 한자 성어

한자 성어(漢字成語)는 한 · 중 · 일 세 나라에서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되나, 간혹 그 의미가 달리 쓰이는 경우도 있고 한자가 조금 다르거나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 중국 | 居安思危(거안사위)

▶ 편안히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함.

주로 쓰는 의미가 다른 경우

八方美人(팔방미인)

한국 | 여러 방면의 일에 능통한 사람.(긍정적 의미)

일본 |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대하는 사람.(부정적 의미)



한자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

한국 | 語不成說(어불성설)

중국 | 語不成句(어불성구)

▶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함께 해 보기

고사성어의 유래를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해 보자.

<방법>

- ① 5~6명으로 한 모둠을 만든다.
- ② 모둠 내에서 기획, 자료 조사, 대본, 연출자, 연극인, 발표자 등의 역할을 나눈다.
- ③ 토의 과정을 통해 성어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대본을 작성한다.
- ④ 대본에 따라 연극을 만들어 발표한다.
- ⑤ 아래 점수표에 따라 서로 평가하여 점수를 표기한다.(각 항목 10점 만점)



항목별	모둠별	1	2	3	4
1. 내용의 전달이 잘 되었는가?		점	점	점	점
2. 대본의 내용이 독창적이었는가?		점	점	점	점
3. 연기력이 좋았는가?		점	점	점	점
4. 발표를 잘하였는가?		점	점	점	점
총점		점	점	점	점



‘로마의 휴일(休日)’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이다. 영화나 연극의 포스터나 안내 책자 등에서 한자가 쓰인 것을 찾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다음을 참조하여 □ 안에 알맞은 한자 성어를 써 보자.



(1) □□□□: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2) □□□□: 쳐지를 바꾸어서 생각
하여 봄.

2

성어를 끊어 읽어야 할 곳에 ‘/’ 표시를 하고 읽어 보자.

(1)

登龍門



(2)

漁父之利



(3)

五十步百步



3

성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朝三暮四는 원숭이와 관련된 고사성어로군.



② 漁父之利는 ‘어부의 이익’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



③ 助長은 ‘바람직한 일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한다’는 뜻이야.



④ 登龍門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을 뜻해.



⑤ 五十步百步는 ‘오십 보 도망간 것이나 백 보 도망간 것이나 같다’는 의미이지.

07. 풍자와 교훈이 담긴 말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잡언을 뜻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전승되어 온 속담에는 풍자와 교훈이 담겨 있다. 생활 속에 속담을 활용함으로써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吾鼻三尺. 牛耳讀經.

去言美라야 來言美나라. “동언해”¹⁾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여유당전서”²⁾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 “순오지”³⁾



吾(오) 나	鼻(비) 코	尺(척) 자	經(경) 지나다/경서	去(거) 가다
言(언) 말씀	來(래) 오다	歲(세) 해	習(습) 익히다	至(지) 이르다
于(우) 어조사	衣(의) 옷	新(신) 새롭다	爲(위) 하다/여기다	好(호) 좋다
舊(구) 예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 구조를 구별한다.
-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속담 속에 깃들어 있는 선인들의 지혜를 배운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구조 – 주술 구조

- 吾鼻 + 三尺: 내 코가 석 자다.
주어 서술어

2. 문장 읽기 – 현토하여 읽기

- 去言美(거언미)라야 来言美(내언미)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주술 구조: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
- 吾鼻三尺: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 ‘鼻’은 여기서 ‘콧물’을 뜻한다.

- 현토: 한문을 읽을 때 구절과 구절 사이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 등을 붙여 읽는 방법.

3. 속담의 풀이와 속뜻

- 牛耳讀經 | 쇠귀에 경 읽기.

속뜻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 세 살 적의 버릇이 여든에 이른다.

속뜻 버릇은 평생 가므로 어릴 적부터 잘 들여야 한다.

- 衣以新爲好요: 옷은 새것을 좋다고 여기고

人以舊爲好라.: 사람은 오래된 것을 좋다고 여긴다.

속뜻 사람은 오래 사귈수록 서로 간의 정이 더욱 두터워진다.

• 之: ~의.

• 于: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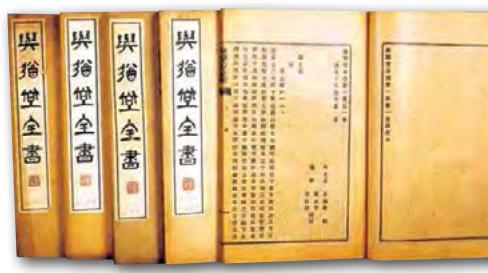
• 以~爲… : ~을 …으로 여기다(삼다).



여러 가지 옛날 자[尺]



‘尺’은 ‘자’를 말한다. 한 자[一尺]는 대략 30cm 정도 이므로, ‘三尺’은 약 90cm이다. ‘삼척동자(三尺童子)’라는 말은 키가 1m도 채 안 되는 어린아이 또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말한다.



“여유당전서”



“순오지”

1) 동언해(東言解): 편자 미상의 한문 속담집.

2)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문집(文集).

3) 순오지(旬五志): 조선 중기에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쓴 문학 평론집.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來] (래) 오다 由來
 [麥] (맥) 보리 麥酒

- 由來: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2. 뜻이 비슷한 한자

[言] (언) 말씀 遺言
 [語] (어) 말씀 語根

- 遺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 語根: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麥飯石

흰색의 석영과 검은색의 장석이 섞인 돌로, 그 모양이 뭉친 보리밥[麥飯]과 같다고 하여 맥반석이라 불린다. 여과제, 소염제 등으로 쓰이며,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찜질방, 식기, 의료기 등에 활용된다.



맥반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무학 대사를 놀려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스님은 꼭 돼지 같습니다.”

그러자 무학 대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성계는 기쁘게 웃으며 물었다.

“허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사께서는 돼지 같다고 해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아니, 정말입니까?”

무학 대사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성계는 그 말에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고 한다. <구전>



由(유)	말미암다	麥(맥)	보리	酒(주)	술	遺(유)	남기다	根(근)	뿌리	飯(반)	밥
泰(태)	크다	病(병)	병	藥(약)	약	考(고)	생각하다	惡(악)	악하다	手(수)	손
寸(촌)	마디	堂(당)	집	陽(양)	볕	陰(음)	그늘	俗(속)	풍속	談(담)	말씀



학습 용어의 활용

한자가 사용된 속담

- 티끌 모아 泰山.
- 痘 주고 藥 준다.
- 長考 끝에 惡手 둔다.
- 면 四寸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書堂 개 삼 년에 風月을 읊는다.
- 陽地가 陰地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 長考: 오랫동안 깊이 생각함.
- 惡手: 바둑이나 장기에서 잘못 두는 나쁜 수.
- 風月: ‘음풍농월’의 준말로 ‘시(詩)’를 이름.



한문 속
문화 읽기



한국

-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어떻게 말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



중국

- 조조(曹操)를 말하니 조조가 온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교롭
게도 그 순간 언급된 사람이 금세 나타나
니 말을 삼가야 한다는 뜻.



일본

- 면류(麵類) 중에서는 보타모치[떡 종류]가 좋다.
- 말 한마디로 무지(無知)가 드러난다. 즉, 말
을 조심하라는 뜻.





함께 해 보기

<보기>에 제시된 한문 속담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해 보자.

<방법>

- ① 5~6명으로 한 모둠을 만든다.
- ② 한 학생은 속담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차례대로 속담을
몸으로 표현한다.
- ③ 다른 모둠에서는 평가지에 점수를 작성한다.(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한다.)



- 吾鼻三尺.
- 牛耳讀經.
- 去言美, 來言美.
- 三歲之習, 至于八十.
- 衣以新爲好, 人以舊爲好.



항목별	모둠별	1	2	3	4
1. 표현이 독창적이었는가?		점	점	점	점
2. 연기력이 좋았는가?		점	점	점	점
3. 의미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였는가?		점	점	점	점
총점		점	점	점	점



지하철역에 ‘동대문(東大門)’이라 쓰여 있다. 주변에서 역이나 이정표 등에 쓰여 있는 한자를 찾아보자.





실력 다지기

1

()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p>현중</p> <p>속담 말하기 게임을 해 보자^^</p>  <p>해원</p> <p>長() 끝에 惡手 둔다.</p>  <p>현중</p> <p>病 주고 () 준다.</p>	 <p>혜원</p> <p>() 堂 개 삼 년에 風月 읊는다.</p>  <p>현중</p> <p>티끌 모아 泰山.</p>  <p>혜원</p> <p>에구, 쪘다. ㅠㅠ</p>
--	--

2

<보기>의 한자를 조합하여 <조건>에 맞게 써 보자.

 <p>보기</p>	三, 吾, 之, 習, 鼻, 尺
---	------------------



1 ‘주어 + 서술어’의 문장 구조를 이루도록 할 것.

2 ‘내 코가 석 자다’의 풀이가 되도록 할 것.

()

3

속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p>(가) 三歲之習() 至于八十().</p> <p>(나)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p>



(가)는 ‘세 살 적의 버릇이 여든에 이른다’는 의미이지.



(가)는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



(가)의 () 안에는 각각 ‘이’, ‘이라’의 현토가 들어가야 해.



(나)는 ‘새로운 친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나)는 오래 사귄 사람이 소중하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지.

8. 짧은 글, 깊은 뜻



격언은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표현한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뜻은 매우 깊다. 격언을 통해 선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보자.

成我者는 朋友也라. “서하집”¹⁾

動必三省하고 言必再思하라. “백씨장경집”²⁾

病從口入하고 禍從口出이라. “태평어람”³⁾

君子喜揚人善하고

小人喜揚人不善이라. “청성잡기”⁴⁾



我(아) 나

者(자) 사람

朋(봉) 벗

也(야) 어조사

動(동) 움직이다

必(필) 반드시

省(성) 살피다

再(재) 다시/둘

從(종) 따르다

入(입) 들어가다

* 禍(화) 재앙

君(군) 임금

子(자) 아들

喜(희) 기쁘다

揚(양) 드날리다

善(선) 착하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목 구조를 구별한다.
- 격언에 담긴 선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구조 – 주술목 구조

- 君子 + 喜 + 揚人善: 군자는 남의 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 小人 + 喜 + 揚人不善: 소인은 남의 불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 주술목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풀이한다.

2. 격언의 풀이와 교훈

- 成我者는 朋友也라. | 나를 이루어 주는 사람은 벗이다. • 者: ~하는 사람.
교훈 나를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 주는 벗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의미.
- 動必三省하고 言必再思하라. |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세 번 살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
교훈 말과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신중히 하라는 의미.
- 病從口入하고 禍從口出이라. |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 從: ~로부터.
교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



삼성(三省)

'삼성(三省)'은 "논어(論語)"에서 증자(曾子)가 날마다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하였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는지, 벗과 함께 사귀는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이다.



증자(B.C.505~?)

- 서하집(西河集): 고려 후기의 문인 임춘(林椿)의 시문집.
-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중국 당(唐)나라 때 백거이(白居易)가 저술한 책.
- 태평어람(太平御覽): 중국 송나라 때 이방(李昉)이 편찬한 백과사서(百科辭書).
- 청성잡기(青城雜記): 조선 후기의 학자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잡록집(雜錄集).

1. 뜻이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順從	順 (순) 따르다/차례	順位
	從 (종) 따르다	服從

- 順位: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나 지위.
- 服從: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죽음.

2. 뜻이 상대적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出入	出 (출) 나오다	退出
	入 (입) 들어가다	借入
喜悲	喜 (희) 기쁘다	喜悅
	悲 (비) 슬프다	悲鳴

- 退出: 물러나서 나감.
- 借入: 돈이나 물건을 꾸어 둘임.



좌우명

'좌우명(座右銘)'을 풀이하면 '자리의 오른쪽에 새긴 글'이다. 즉, 늘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말한다. 옛날 중국의 탕 임금은 세숫대야에 글을 새겨 두고 씻을 때마다 그것을 보며 마음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이상의(李尙毅) 이야기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상의(李尙毅)는 아이 때 성품이 매우 경솔하여 진득이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 부모가 그것을 걱정하였다. 그러자 이상의는 여유로운 성품을 가지기로 마음먹고,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자그마한 방울을 차고 그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방울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 그래서 중년에는 진중한 태도가 천성처럼 되었다. 후세 사람 이 자식을 가르칠 때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 본보기로 삼는다.

“청장관전서”에서



順(순) 따르다/차례	位(위) 자리	服(복) 옷/따르다	退(퇴) 물러나다	借(차) 빌리다
悲(비) 슬프다	鳴(명) 울다	觀(관) 보다	察(찰) 살피다	世(세) 세상
敗(배) 패하다	北(복) 북녘/(배) 달아나다	王(왕) 임금	命(명) 목숨/명령하다	患(환) 근심/병



학습 용어의 활용

선인들이 남긴 말



공자

사람을 觀察함에 있어 먼저 그 행동의 동기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그 사람됨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늘의 도(道)는 남는 곳에서 덜어 내어 不足한 곳에 보태는 것이다.



노자



퇴계 이황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世上의 이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행(行)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을 쌓아 오래도록 힘쓰기가 더욱 어렵다.

젊었을 때 내가 한 일 가운데 열에 아홉은 실패였다.

나는 敗北者가 되고 싶지 않아 열 배는 더 노력했다.



버나드 쇼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은 1596년에 허준(許浚)이 王命을 받고 편찬을 시작하여 1610년에 완성한 백과사전적 의서(醫書)이다. 실제로 患者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의학 정보를 정리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집대성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중 유일한 의학 서적으로 2009년에 등재되었다.



“동의보감”



함께 해 보기

 선인들의 좌우명을 보고, 자신만의 좌우명을 만들어 보자.

책을 읽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 신국빈(申國賓) –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

– 이이(李珥) –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길을
오르는 것 같이 해야 하니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게 된다.

– 이제신(李濟臣) –

허물을 줄이고자 하는 선비에게는
바른 말을 해 주는 벗이
깨끗한 거울이다.

– 황종해(黃宗海) –

나의 좌우명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주변에서 한자로 쓰인 격
언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來 甘 罷 苦



실력 다지기

1

<보기>를 참조하여 ()를 완성해 보자.



順, 入, 位, 出, 借, 退

단어	풀이와 활용	
()	풀이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나 지위.
	활용	그 팀은 <u>순위</u> 가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다.
()	풀이	물러나서 나감.
	활용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은 <u>퇴출</u> 해야 한다.

2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한문 선생님

動必三省하고 言必再思하라.

- ① 항상 밝고 즐겁게 행동하겠습니다.
- ② 공부할 때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③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 ④ 어른을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 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신중히 하겠습니다.

3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痘從口入, 禍從口出.

(나) 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 ① (가)의 ‘從’은 ‘~로부터’로 풀어야 한다.
- ② (가)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 ③ (나)의 맨줄 친 부분은 ‘주술 구조’이다.
- ④ (나)의 ‘君子’와 ‘小人’은 상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다른 사람의 선을 드러내어 칭찬하라는 의미이다.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頂上, 上京, 烏合之卒, 傷弓之鳥, 長壽, 長技, 訓長, 登極, 誤發, 由來, 麥酒,
遺言, 語根, 順位, 服從, 退出, 借入, 喜悅, 悲鳴

(2) 학습 용어의 활용

- 犬馬之勞, 烏足之血, 馬耳東風, 東家食西家宿, 竹馬故友, 易地思之, 泰山,
病, 藥, 長考, 惡手, 四寸, 書堂, 風月, 陽地, 陰地, 觀察, 世上, 敗北者

2 문장의 구조

(1) 주술 구조

- 吾鼻(주어) + 三尺(서술어)

(2) 주술목 구조

- 君子(주어) + 喜(서술어) + 揚人善(목적어)
- 小人(주어) + 喜(서술어) + 揚人不善(목적어)

3 혼토하여 읽기

- 去言美라야 來言美나라.

4 한자 성어의 속뜻

- 一石二鳥: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
- 九牛一毛: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
- 東問西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雪上加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 以心傳心: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음.

5 고사성어의 속뜻

- 助長: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登龍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 漁父之利: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
- 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 五十步百步: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같은 것.

6 속담의 속뜻

- 牛耳讀經: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 三歲之習 至于八十: 벌릇은 평생 가므로 어릴 적부터 잘 들여야 한다.
- 衣以新爲好 人以舊爲好: 사람은 오래 사귈수록 서로 간의 정이 더욱 두터워진다.

7 격언의 교훈

- 成我者朋友也: 나를 ‘참된 나’로 만들어 주는 벗의 소중함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 動必三省 言必再思: 말과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신중히 하라는 의미이다.
- 病從口入 禍從口出: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이다.

III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09. 옛 교과서에서 배우다

10. 사서에서 얻은 깨달음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12. 우리 선현이 남긴 교훈

한문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다. 특히 한문 고전 속에는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상,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단원에서는 옛 어린이들의 교재에 실렸던 글, 사서(四書)와 제자백가 등에 들어 있는 주옥같은 경구를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교훈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 옛 교과서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한다.
- 문장의 유형 중 명령문, 평서문을 구별한다.
- 사서(四書)에 담긴 내용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주술보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제자백가에 담긴 내용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우리 선현이 남긴 글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9. 옛 교과서에서 배우다

조선 시대에도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지.
요즘 같은 다양한 교과서는
없었지만, “명심보감”, “격몽
요결”, “동몽선습” 같은 책들을
가지고 공부했었단다.

一言不中이면 千語無用이라. “명심보감”¹⁾

當正身心하여 表裏如一이라. “격몽요결”²⁾

父子는 天性之親이니 生而育之하고

愛而教之하고 奉而承之하고 孝而養之니라. “동몽선습”³⁾



“명심보감” 판본

中(중) 가운데/맞다	千(천) 일천	無(무) 없다	當(당) 마땅하다	正(정) 바르다
身(신) 몸	表(표) 겉	*裏(리) 속	如(여) 같다	性(성) 성품
親(친) 친하다	生(생) 나다	而(이) 어조사	育(육) 기르다	愛(애) 사랑
教(교) 가르치다	奉(봉) 받들다	承(승) 잇다	孝(효) 효도	養(양) 기르다/봉양하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시를 구별한다.
- 옛 교과서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실사(實辭)와 허사(虛辭)

(1) 실사: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

-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부사

(2) 허사: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 天性之親(실사+실사+허사+실사): 타고난 친애하는 사이이니,
- 生而育之(실사+허사+실사+실사):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른다.

- 之: '天性之親'의 '之'는 어조사이고, '生而育之'의 '之'는 대명사로서, 여기서는 '자식'을 가리킨다.
- 而: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사이며, 순접일 때와 역접일 때가 있다.

2. 문장 풀이하기

- 一言不中이면 千語無用이라. |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도 쓸모가 없다.
- 當正身心하여 表裏如一이라. |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한다.
- 奉而承之하고 孝而養之니라. | (자식은) 부모를 받들고 모시며 효도하고 봉양한다.

- 不: 다음에 오는 글자의 초성이 'ㄷ'이나 'ㅈ'일 때는 '부'로 읽는다.
- 中: '(이치에) 맞다'는 의미.
- 表裏: 곁과 속.
- 如一: 하나와 같다. → 한결같다.
- 之: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킨다.



오륜(五倫)
이란?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이른다.

-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 봉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확인 다음 문장에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해 보자.

孝而養之



"오륜행실도" 중 '석진단지'

조선 시대 효자 유석진이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는 고사를 기록한 것.

- 1) 명심보감(明心寶鑑): 중국 명(明)나라의 범립본(范立本)이 편찬한 책.
- 2) 격몽요결(擊蒙要訣):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지은 어린이용 학습서.
- 3) 동몽선습(童蒙先習): 조선 중종 때, 박세무(朴世茂)가 지은 어린이용 학습서.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奉 (봉)	받들다	奉仕, 奉祝
泰 (태)	크다	泰斗, 泰山
堂 (당)	집	堂叔, 慈堂
當 (당)	마땅하다	正當, 充當

- 奉祝: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함.
- 泰斗: 泰山北斗의 준말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堂叔: 아버지의 사촌 형제.
- 慈堂: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中 (중)	가운데/속	胸 中
	맞다	命 中

- 胸中: 가슴 속.
- 命中: 표적에 바로 맞음.



부모를 뜻
하는 표현

부모를 뜻하는 표현으로, 아버지는 '父親'이라는 말 외에 '엄한 어버이'라는 뜻의 '엄친(嚴親)'이 있으며, 어머니는 '母親'이라는 말 외에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뜻의 '慈親'이 있다.

말과 행동이 한결같았던 尾生

이 고사에서 '尾生之信(미생지신)'이라는 성어가 유래되었는데, 이 성어는 '신의가 두터움'을 뜻하기도 하고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仕(사)	벼슬/섬기다	祝(축)	빌다
充(총)	차다	胸(흉)	가슴
孫(손)	손자	接(접)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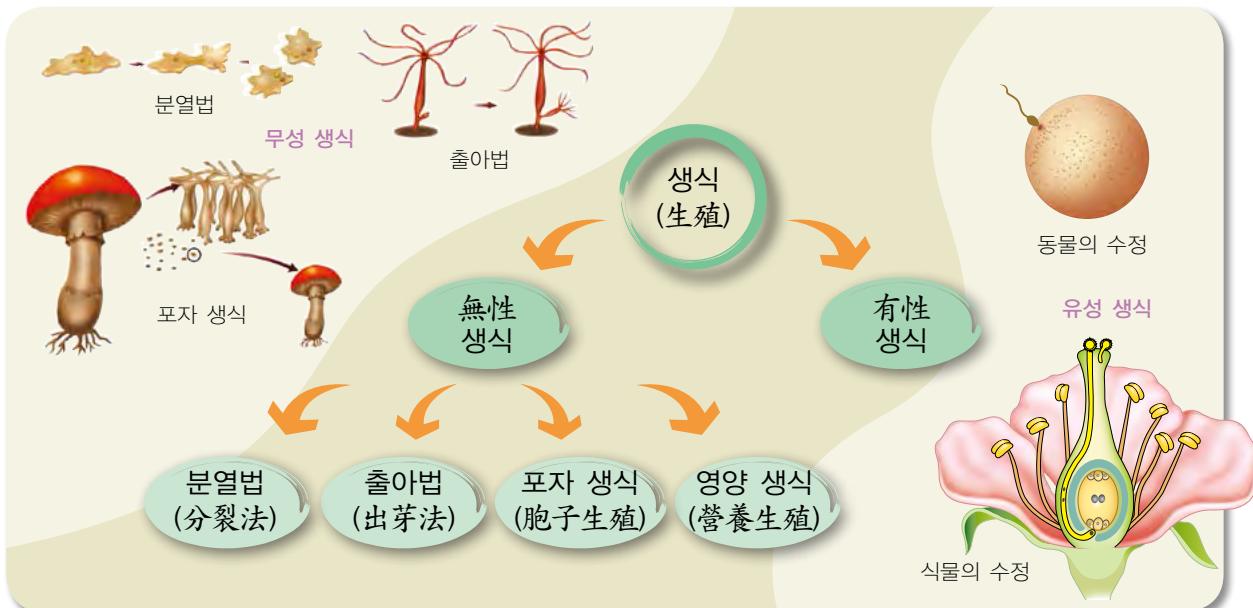
斗(두)	말
母(모)	어머니
體(체)	몸
王(주)	주인

叔(숙)	아저씨
尾(미)	꼬리
結(결)	맺다
須(수)	모름지기



학습 용어의 활용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



- **無性 生식**: 암수 배우자의 융합 없이 이루어지는 생식.
 - 암수 생식 세포의 結合 없이 子孫을 만드는 생식 방법을 무성 생식이라고 한다.
- **有性 生식**: 암수의 두 배우자가 합일한 接合體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發生)하는 생식법.
 - 암수가 구별되는 생물들은 대부분 유성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든다.



책을 다 끝내면
하는 잔치
– 책거리

서당은 조선 시대에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던 곳이다. 서당에서는 대부분 “천자문”을 必須 교재로 삼았으며, 그 밖에 “동몽선습”,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을 為主로 교육하였다. 한문 독해력이 갖추어지면 사서 삼경 같은 경서를 공부하게 된다. 학동(學童)이 책 하나를 모두 배우고 나면 집안 형편에 맞게 훈장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책거리’ 혹은 ‘책씻이’라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김홍도, ‘서당’



함께 해 보기

<예시>를 보고, 나만의 효 문자도를 만들어 보자. 또 문자도에 그린 사물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이 문자도(文字圖)는 ‘孝’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각각 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죽순: 맹종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해다가 병을 고침.



잉어: 왕상이 한겨울에 얼음이 언 강에서 잉어를 잡아 계모에게 드림.



부채: 황향이 훌아버지를 위해 여름에는 베갯머리에서 부채질하고, 겨울에는 몸으로 이불을 데움.



거문고: 순임금이 거문고를 연주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



내가 만든 효 문자도	그림에 담긴 사물의 의미



오른쪽은 ‘충(忠)’자 문자도로, 물고기와 용은 ‘등용 [벼슬]’을 나타내고, 새우와 조개는 단단한 껍질로 싸여 있어 굳은 지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자로 만들어진 문자도를 찾아보고 문자도에 그려진 사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아래 단어의 뜻풀이에 맞게 ㉠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가로 열쇠: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세로 열쇠: 아버지의 사촌 형제.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一言_㉠不_㉡中, 千語無用.

(나) ㉡當正身心, ㉡表裏如一.

(다) 父子, 天性之親, 生_㉠而育之, 愛而教之, 奉而承之, 孝而養之.

2

오른쪽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

- ① 혜원
- ② 정현
- ③ 다원
- ④ 현중
- ⑤ 유빈

혜원
㉠은 '부'라고 읽어야 해.

정현
㉡은 '가운데'라는 뜻이야.

다원
㉡은 '마땅히'라는 뜻이야.

현중
㉡은 '겉과 속'이라는 뜻이지.

유빈
㉡은 실사와 허사 중에서 허사지.

3

(다)에서 '자식의 도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풀이해 보자.

10. 사서에서 얻은 깨달음

‘사서삼경’에서
‘사서’는 무엇인가요?



사서(四書)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네 가지 책을 말한단다.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이라. “대학”¹⁾

人一能之면 己百之하고 人十能之면 己千之니라. “중용”²⁾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논어”³⁾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맹자”⁴⁾



欲(욕) 하고자 하다 修(수) 닦다

其(기) 그

先(선) 먼저

能(능) 능하다

己(기) 몸/자기

所(소) 바

勿(물) 말다

施(시) 베풀다

於(어) 어조사

恒(항) 항상

敬(경) 공경하다

黃(황) 노랗다

律(률) 법

章(장) 글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의 유형 중 명령문을 구별한다.
- 사서(四書)에 담긴 내용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欲: ~하고자 하다

- 欲修其身者: 그 자신을 닦고자 하는 사람

(2) 勿: ~하지 마라

- 勿施於人: 남에게 베풀지 마라.

• 於: ~에게

2. 문장의 유형 – 명령문

-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
- 己: ‘자기’의 의미.
- 所: ~하는 바. → ~하는 것.
- 人: ‘남’의 의미.

3. 문장 풀이하기

•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이라. | 그 자신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之: 그것.

• 人一能之면 己百之하고 人十能之면 己千之니라. | 남이 한 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그것을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그것을 천 번 한다.

•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 愛人者: 남을 사랑하는 사람.
• 之: 그.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을 ‘黃金律(Golden Rule)’이라고 한다.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文章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따뜻한 나눔

1) 대학(大學):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로, 본디 “예기(禮記)”의 한 편이었음.

2) 중용(中庸): 유교 경전인 사서의 하나로, 본디 “예기”의 한 편이었음.

3) 논어(論語): 공자(孔子)와 그 문인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4) 맹자(孟子):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맹자(孟子)가 지은 책.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施 (시)	베풀다	施工, 實施
旅 (려)	나그네	旅客, 旅情
族 (족)	겨레	遺族, 種族
人 (인)	사람	軍人, 偉人
入 (입)	들다	出將入相

- 旅情: 여행할 때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나 시름 따위의 감정.

2. 뜻이 상대적인 한자

先 (선)	먼저	先烈, 先史
後 (후)	뒤	後食, 後園

- 偉人: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 出將入相: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다 갖추어 장성(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낼을 이르는 말.
- 先烈: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열사(烈士).



안중근 의사

의사와
열사

의사(義士)는 무력(武力)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고, 열사(烈士)는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예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공자(孔子), 그 이름의 비밀

공자는 중국의 춘추 시대 대사상가로 천하를 종횡하며 인(仁)의 실천을 위해 힘썼다. 성은 공(孔)이고, 이름은 구(丘)이며,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그의 이름이 ‘구’인 것은 공자의 어머니가 이 구산(尼丘山)에서 기도를 드려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설, 나면서부터 정수리 부분이 움푹 들어가 언덕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工(공)	장인	實(실)	열매/실제	旅(려)	나그네	客(객)	손/나그네	族(족)	겨레
種(종)	씨/심다	軍(군)	군사	偉(위)	크다	將(장)	장수	相(상)	서로/재상
烈(렬)	맵다	史(사)	역사	後(후)	뒤	園(원)	동산	求(구)	구하다
追(추)	쫓다	個(개)	낱	的(적)	과녁/어조사	題(제)	제목	讓(양)	사양하다
益(익)	더하다	良(양)	어질다	論(론)	의논하다				



학습 용어의 활용

도덕 교과 관련 용어

- 欲求: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 欲求를 追求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친 欲求 추구는 個人的으로나 사회적으로 問題가 될 수 있다.
- 讓步: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거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利益을 희생함.
 - 家族 간에 서로 讓步하고 배려해야 한다.
- 良心: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 도덕적으로 옳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良心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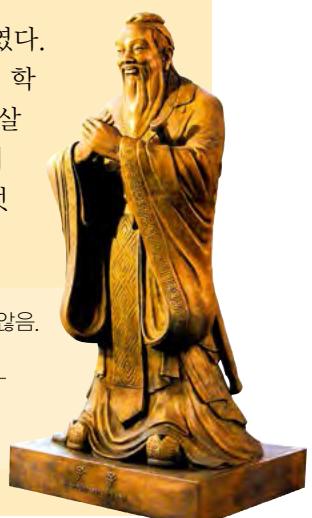


한문 속 문화 읽기

나이를 나타내는 말

공자는 “論語”에서 자신의 일생을 나이별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서른 살에 자신의 학문을 확립하였고[而立],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不惑], 쉰 살에는 천명을 알았고[知天命], 예순 살에는 귀로 들으면 모두 이해되었고[耳順], 일흔 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從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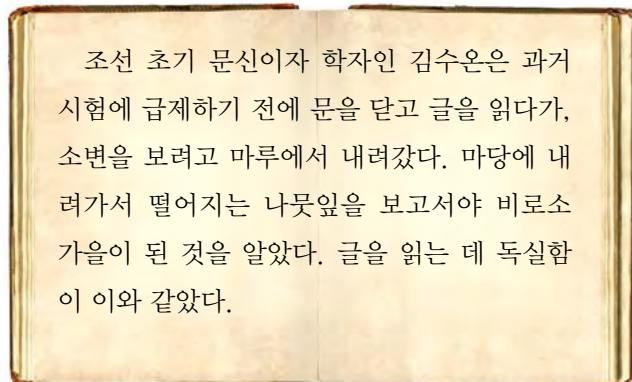
15	뜻을 확립함: 이립(而立)	40	하늘의 명을 암. 지천명(知天命)	60	법도에 어긋나지 않음. 종심(從心)
지학(志學) 학문에 뜻을 둠.		불혹(不惑) 미혹되지 않음.		이순(耳順) 이치를 이해함.	





함께 해 보기

다음은 “패관잡기”에 실린 김수온(金守溫)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수온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 전에 문을 닫고 글을 읽다가, 소변을 보려고 마루에서 내려갔다. 마당에 내려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서야 비로소 가을이 된 것을 알았다. 글을 읽는 데 독실함이 이와 같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계절의 변화도 잊은 김수온처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적어 보고, 토론해 보자.

나의 목표와 준비

시기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오른쪽은 ○○출판사에서 나온 “○○○ 표준발음사전”의 일부인데, ‘입춘(立春)’이 ‘입춘(入春)’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잘못 표기된 한자를 찾아보고 바르게 고쳐 보자.

입춘(立春)	입춘(入春)
입춘대길	입춘(入春) 대길
입춘대(：)길	입춘(入春) 대(：)길
입(入) 춘(春) 대(大)길(吉)	입(入) 춘(春) 대(大)길(吉)

입춘(入春) 대길(大吉)



실력 다지기

1

깃발에 쓰인 한자와 <보기>에 있는 한자 한 자씩을 조합하여 한자를 만들고 음과 뜻을 써 보자.



2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 (나) 己所不欲, ㉡ 勿施於人.
- (다) 愛人者, 人恒愛④之, 敬人者, 人恒敬之.

- ① ㉠은 ‘욕심’이라는 뜻이다.
- ② ㉡은 ‘~하지 마라’는 뜻이다.
- ③ ㉢은 ‘대명사’이다.
- ④ ㉣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자신을 닦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의미이다.
- ⑤ ㉤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 유형이다.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남보다 백 배의 노력을 하거나 일만 시간을 들여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자.

-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의 ‘일만 시간의 법칙’ :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혼란한 시대에 제자백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자백가가 뭔가요?



諸子는 ‘여러 선생님’ 이란 뜻이고, 百家는 ‘많은 학파’ 란 뜻으로 많은 사람들의 研究에 의해 이룩된 다양한 사상을 이르는 것이란다.



人與人이 相愛면 則不相賊이라. “목자”¹⁾

不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 “손자”²⁾

右手畫圓하고 左手畫方이면 不能兩成이라. “한비자”³⁾

上善若水니 水善利萬物而不爭하여

處衆人之所惡라. “도덕경”⁴⁾



諸(제) 모두

研(연) 갈다

究(구) 궁구하다

與(여) 주다/더불다

則(즉) 곧/(칙) 법

*賊(적) 도적/해치다

戰(전) 싸우다

*屈(굴) 굽다

兵(병) 병사

畫(화) 그림/그리다

圓(원) 둥글다

兩(량) 둘

若(약) 같다

萬(만) 일만

物(물) 물건

爭(쟁) 다투다

處(처) 곳/처하다

衆(중) 무리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보 구조의 문장을 구별한다.
- 제자백가에 담긴 내용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구조 – 주술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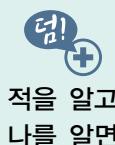
- 上善[가장 좋은 것] + 若[같다] + 水[물]
주어 서술어 보어
: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 주술보 구조: ‘주어+서술어+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로, ‘주어–보어–서술어’의 순서로 풀이한다.

2. 문장 풀이하기

- 人與人이 相愛면 則不相賊이라. |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는다.
- 不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 | 싸우지 않고서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 右手畫圓하고 左手畫方이면 不能兩成이라. |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면, 둘 다 그릴 수 없다.
- 水善利萬物而不爭하며 處衆人之所惡라. |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뜻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 與: ~과(와).
- 則: ~하면.
- 善之善者: 좋은 것 중의 좋은 것. → 가장 좋은 것.
- 者: ~것.
- 畫: ‘그리다’의 의미.
- 善: ‘잘하다’의 의미.
- 惡: (악) 악하다./(오) 미워하다.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으로 알고 있지만, “손자”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손자(B.C.535~?)

- 1) 묵자(墨子):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노나라의 사상가인 묵자의 철학서.
- 2) 손자(孫子): 중국 춘추 시대 말기 손자가 편찬한 병법서.
- 3) 한비자(韓非子): 중국 전국 시대 말기의 한비(韓非)가 지은 책.
- 4) 도덕경(道德經):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노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책.

1. 뜻이 상대적인 한자

無 (무)	없다	無情, 無效
有 (유)	있다	保有, 領有
利 (리)	이롭다	利用, 利敵
害 (해)	해하다	害蟲, 冷害

- 領有: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여 가짐.
- 利敵: 적을 이롭게 함.
- 冷害: 여름철의 이상 저온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입는 피해.



영토란?

領土는 국가가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영해(領海)·영공(領空)을 포함한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반도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老子는 죽음을 앞둔 스승 상창의 안부를 여쭈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였다. 스승이 입을 벌리며 물었다. “내 입속을 보거라. 내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가 있느냐?” 상창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가 다 빠지고 없었다. “없습니다.” “왜 혀는 있는데, 이는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노자가 대답했다. “이가 없는 것은 딱딱하기 때문이고 혀가 남아 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군요.” 그러자 상창은 돌아누우며 말했다. “천하의 도리가 그 안에 있으니,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설원(說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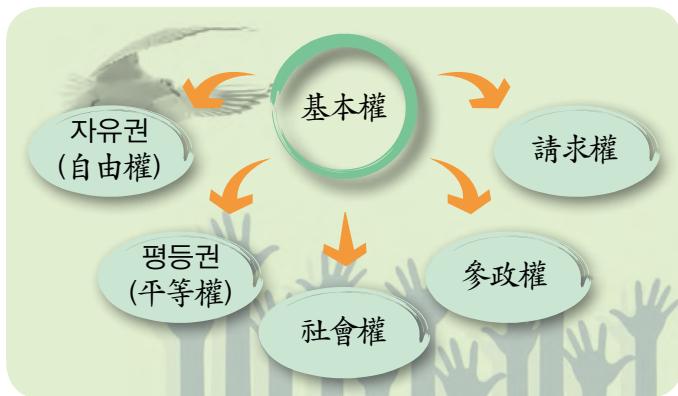
效 (효)	본받다/ <u>효험</u>	保 (보)	보호하다	領 (령)	거느리다	敵 (적)	대적하다	害 (해)	해롭다
蟲 (蟲)	벌레	冷 (랭)	차다	老 (로)	늙다	基 (기)	터	權 (권)	권세
* 社 (사)	모이다	參 (참)	참여하다/(삼) 셋	政 (정)	정치	請 (청)	청하다	財 (재)	재물
產 (산)	낳다	黑 (흑)	검다	運 (운)	옮기다				



학습 용어의 활용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基本權을 보장하고 있다.



- **基本權:** 기본적 인권

- 인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성을 가진 권리라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 **請求權:**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請求權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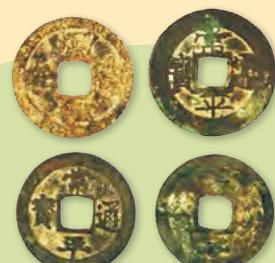
- **參政權:**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 財產과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 女性, 黑人들의 參政權 요구 및 확대 運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양은?

예전 동양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생각하였다. 엽전의 모양이 둥근 테두리에 네모가 뚫린 모양,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만든 것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명제는 전근대 시기 말까지 동아시아 사회에서 하늘과 땅의 모양에 관한 권위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졌다.



창덕궁 부용지와 조선 시대의 엽전



함께 해 보기

 다음 조건에 맞추어 PPT를 만들어 모둠별로 수업해 보자.

<조건>

- ① 네 개 모둠으로 나누어 본문의 문장 가운데 한 문장씩 맡는다.
- ② 입력 방법은 먼저 본문을 입력하고, 본문 한자 밑에 음과 뜻을 쓰고, 특별한 경우 보충 설명을 덧붙이며, 풀이를 쓴다.
- ③ 유의점: 문서를 작성할 사람, 수업을 할 때 본문을 읽거나 설명할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모두가 참여한다.

III.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人與人이 相愛
~과 ~에 사랑하다
則不相賊 이라. '제자'
~하면



오른쪽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그릇에다 ‘복 복(福) 자’를 새긴 것들이다. 이와 같이 주변 생활 도구 중에서 한자가 쓰여진 것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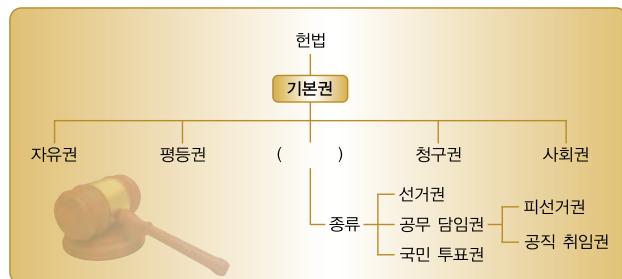
실력 다지기

1

도표와 글의 내용에서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자로 쓰시오.

() 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재산과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 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 여성, 흑인들의 () 요구 및 확대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①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②惡.
 (나) 人與人相愛, ③則不相賊.
 (다)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라) 右手畫圓, 左手畫方, 不能兩成.

2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은 주술보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②의 뜻은 '미워하다'이고 음은 '오'이다.
- ③ ③의 뜻은 '법칙'이고 음은 '칙'이다.
- ④ ④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 ⑤ 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나)의 문장을 대본으로 만들어 읽을 때, 말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12. 우리 선현이 남긴 교훈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글
중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은
없나요?



왜 없겠니? 퇴계 이황이나
정조 임금 같은 훌륭한 선인들의
말이 있단다.



聖人之道는 責己不責人이라. “노사집”¹⁾

未可以言而言者는 其罪小요 可以言而不言者는
其罪大라. “홍재전서”²⁾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無窮이어늘 岂可是己而非人이라오?

“퇴계선생언행록”³⁾



기정진의 ‘취석정기’ 현판



“퇴계선생언행록”

聖(성) 성인

道(도) 길/도리

責(책) 꾸짖다

未(미) 아니다

可(가) 옳다

罪(죄) 허물

舍(사) 집/버리다

學(학) 배우다

義(의) 옳다

理(리) 이치

*窮(궁) 궁하다/다하다

*豈(기) 어찌

是(시) 옳다

非(비) 아니다/그르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의 유형 중 평서문을 구별한다.
- 우리나라 선현들의 글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유형 – 평서문

- 聖人之道는 責己不責人이라.: 성인의 도는 자기를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전술하는 문장.

2. 문장 풀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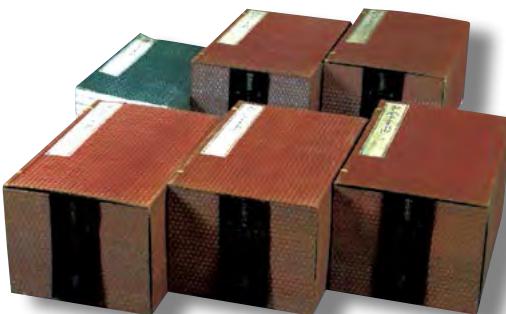
- 未可以言而言者는 其罪小요 可以言而不言者는 其罪大라. |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無窮이어늘 岌可是己而非人이리오? |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없음은 학자의 큰 병이다. 천하에 옳은 이치가 끝없이 많거늘 어찌 자기만 옳다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 可以: ~할 만하다.
- 而: ~한데.
- 能: ~할 수 있다.
- 舍: ‘버리다’의 의미.
- 人: 남.
- 之: ~의.
- 非: ‘그렇다’의 의미.
- 無窮: 다함이 없다. → 끝없이 많다.



'聖'이란?

'聖'은 '성스럽다'는 의미로, '聖人'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며, '성은(聖恩)이 하해(河海)와 같다'는 말처럼 임금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였다.



“홍재전서”와 정조 임금이 쓴 시

- 노사집(蘆沙集): 조선 후기 유학자인 기정진(奇正鎮)의 문집.
- 홍재전서(弘齋全書): 조선 후기 정조(正祖)의 문집.
-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권두경이 이황(李滉)의 언행을 기록한 책.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未	(미) 아니다	未曾有
朱	(주) 붉다	朱紅, 朱黃

- 小暑: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이 때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 小寒: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이 때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

2. 뜻이 상대적인 한자

大	(대) 크다	大豆, 大悟
小	(소) 작다	小暑, 小寒



대두와
소두

보통 ‘大豆’는 ‘콩’을 지칭하며, 팥이 전래되면서 ‘팥’을 ‘小豆’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大麥’은 ‘보리’이며 ‘小麥’은 ‘밀’이다.



콩 · 팥 · 보리 · 밀



장안의 눈 만 개가 장성의 눈 한 개만도 못하다

전설에 의하면, 장성 사람 기정진은 어릴 때 왼쪽 눈을 다쳐 애꾸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수수께끼를 냈다. “동해에 한 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머리가 없고 꼬리도 없으며 등뼈도 없다. 그림으로 그리면 둑글고 글자로 쓰면 모가 난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다. 왕이 臣下들을 모아 놓고 풀어 보라고 했으나 풀 수 없자, 어떤 신하가 장성에 기정진이라는 신동이 있으니 물어보는 것 이 좋을 듯하다고 아뢰었다. 왕이 불러 풀어 보라고 하니, 즉석에서 “고기 어(魚) 자에 머리와 꼬리가 없으면 밭(田) 자만 남고, 가운데 내려 긋는 척추뼈가 없으므로 오직 날(日) 자만 남게 됩니다. 해를 그림으로 그리면 둑글고 글씨로 쓰면 모가 납니다.”라고 말했다. 기정진의 명쾌한 풀이를 듣자 왕은 무릎을 치고 크게 기뻐하며 “장안의 수많은 눈이 장성의 한 개 눈보다 못하다.”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曾(증) 일찍이	朱 (주) 붉다	紅(홍) 붉다	豆 (두) 콩	悟 (오) 깨닫다	暑 (서) 덥다
寒(한) 차다	臣 (신) 신하	近(근) 가깝다	代 (대) 대신하다	國 (국) 나라	樹 (수) 나무
交(교) 사귀다	改 (개) 고치다	革(혁) 가죽/고치다	徒 (도) 무리	刑 (형) 형벌	鮮 (선) 곱다/생선
戶(호) 집/문	強 (강) 강하다	化(화) 되다			



학습 용어의 활용

역사 관련 용어



- 改革: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 흥선 대원군의 改革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修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제를 맺음.
–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修交



한문 속
문화 읽기

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教徒를 處刑하자, 이를 구실로 프랑스가 朝鮮을 침략한 것이 병인양요이다. 그러나 대원군은 門戶를 개방하지 않았고, 이러한 쇄국양이 정책은 1868년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분묘 도굴 사건으로 더욱 強化되었다. 1871년 신미양요 이후 전국 곳곳에 척화비(斤和碑)가 세워졌는데, 현재 서울 경복궁, 부산 용두산 공원, 경상남도 함양군 등에 남아 있다.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척화비



함께 해 보기

다음은 정조(正祖)와 신하의 문답이다.



신하: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는 것이야 실로 미워할 만하지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도둑질하는 무리로 돌려 버린 것은 어째서입니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간(諫)해야 할 자리에서 간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까?

정조: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는 것은 죄가 작지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니, 봉우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사대부가 조정에 섰을 때의 처신은 더욱 이러해야 한다.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간해야 할 자리에서 간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냐는 질문은 그 대의 말이 옳다.



위의 대화 글을 읽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한 경험과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은 경험을 상황극으로 꾸며 보자.



오른쪽은 독립운동가 조명하 선생의 동상으로, ‘조명하의사지상(趙明河義士之像)’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한자가 새겨진 동상을 찾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바르게 쓰인 단어에 ○표를 하면서
길 찾기 놀이를 해 보자.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聖人之道, 責己不責人.

(나)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2

(가)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대화를 골라 보자.

① 시험을 망친 건
동생 때문이야.

② 학교에 지각한 건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늦게 주셔서 그래.

⑤ 내 방이 지저분한 건
내가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③ 내가 살찐 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런 거야.

④ 눈이 나빠진 건
스마트폰 때문이야.



3

(나)의 문장을 칠판에 필기하였다. 내용 중 잘못된 곳을
찾아 고쳐 써 보자.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奉仕, 奉祝, 泰斗, 泰山, 堂叔, 慈堂, 正當, 充當, 胸中, 命中, 施工, 實施, 旅客, 旅情, 遺族, 種族, 軍人, 偉人, 出將入相, 先烈, 先史, 後食, 後園, 無情, 無效, 保有, 領有, 利用, 利敵, 害蟲, 冷害, 未曾有, 朱紅, 朱黃, 大悟, 大豆, 小暑, 小寒

(2) 학습 용어의 활용

- 無性, 結合, 接合體, 有性, 欲求, 讓步, 良心, 基本權, 社會權, 參政權, 請求權, 近代國家樹立, 修交, 改革, 義兵

2 한자의 쓰임

(1) 欲: ~하고자 하다

- 欲修其身者: 그 자신을 닦고자 하는 사람

(2) 勿: ~하지 마라

- 勿施於人: 남에게 베풀지 마라.

3 실사(實辭)와 허사(虛辭)

(1) 실사: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

(2) 허사: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 天性之親(실사+실사+허사+실사)

- 生而育之(실사+허사+실사+실사)

4 문장의 유형

(1) 명령문

-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2) 평서문

- 聖人之道는 責己不責人이라.: 성인의 도는 자기를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5 문장의 구조 – 주술보
구조**

上善[가장 좋은 것] + 若[같다] + 水[물]: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주어 서술어 보어

6 문장 풀이하기

(1) 一言不中, 千語無用.: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도 쓸모가 없다.

(2)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3) 人與人, 相愛, 則不相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는다.

(4) 聖人之道, 責己不責人.: 성인의 도는 자기를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5)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IV

그리움의 노래

13. 그대, 어디 있나요?

14. 봄바람 부는 날

15. 그리움을 강물에 띄워



한문학에서는 시와 산문을 합하여 ‘시문(詩文)’이라고 한다. 그만큼 시는 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우리 선인들은 시를 좋아하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과 감정을 시로 표현했다.

이 단원에서는 그리움을 제재로 한 한시(漢詩)를 다루고 있다. 사랑의 감정이나 그리움의 정서는 시대나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준다. 이 단원에 제시된 한시를 읽고 감상하면서 선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울러 한시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오언시와 칠언시의 기본적인 특징과 성격을 알아보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오언시와 칠언시에 대하여 이해한다.
- 한시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시를 읽고 풀이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설명한다.
- 한시의 감상을 통해 선인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 한시의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한다.

13. 그대, 어디 있나요?



그리움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감정이다. 한시 가운데에는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 매우 많다. 꽃이 필 때나 질 때도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 보았던 풍경만 보아도 그 사람이 그립다. 그리움을 노래한 시구를 읽으며 옛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 보자.

欲問相思處,

花開花落時.

설도¹⁾

人面不知何處在,

桃花依舊笑春風.

최호²⁾



1) 설도(薛濤, 768?~832): 중국 당나라 때의 여류 시인. “전당시” 등에 90여 수의 시가 남아 있다.

2) 최호(崔護, 772~846):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전당시”에 시 6수가 실려 있다.

開(개) 열다

花(화) 꽃

落(락) 떨어지다

時(시) 때

面(면) 얼굴

何(하) 어찌

在(재) 있다

*桃(도) 복숭아

依(의) 의지하다/전과 같다

笑(소) 웃다

春(춘) 봄

內(내) 안

容(용) 얼굴/받아들이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오언시와 칠언시에 대하여 이해한다.
- 시구를 바르게 읽고 풀이하며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

- (1) 五言詩: 한 구(句)가 다섯[五] 글자[言]로 이루어진 시(詩).
- (2) 七言詩: 한 구(句)가 일곱[七] 글자[言]로 이루어진 시(詩).

2. 시구 읽기

- (1) 오언시: 欲問相思處(욕문相思處)[○○▽○○○]
- (2) 칠언시: 人面不知何處在(인면부지不知何處在)[○○○○▽○○○]



相思病

‘相思’란 ‘그리움’이라는 뜻이다. ‘상사병’이란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한다. 고전 소설인 “운영전”은 상사병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다.



“운영전”

3. 시구 풀이하기

- | | |
|----------|-----------------------|
| 欲問相思處, | 그리운 임 계신 곳 물어보고파 |
| 花開花落時. | 꽃 필 때나 꽃 질 때나 어느 때든지. |
| 人面不知何處在, | 그대 얼굴 어디 있나 알 수 없어라 |
| 桃花依舊笑春風. | 복사꽃은 예전처럼 봄바람에 웃는데. |

- 相思處: 그리운 곳. 곧, 그리운 임 계신 곳.

- 依舊: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음.



확인 시구를 끊어 읽는 부분에 ‘▽’ 표 하고,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花開花落時. • 桃花依舊笑春風.



이해와
감상

앞의 시구는 당나라 때의 여류 시인인 설도의 ‘춘망사(春望詞)’ 중에 나온다. 꽃이 피어도 함께 감상하지 못하고, 꽃이 져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며 상심하는 여인의 감정을 묘사했다. 뒤의 시구는 당나라 때 최호의 ‘제도 성남장(題都城南莊)’에 나온다. 지난해 청명절에 찾았던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복사꽃만 예전처럼 흐드러지게 피었을 뿐 그때 보았던 그리운 사람은 보이지 않음을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두 시 모두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김동석, ‘도화의구소춘풍’





일상 용어의 활용

1. 뜻이 비슷한 한자

面 (면)	얼굴	湖面, 鐵面皮
容 (용)	얼굴	受容, 威容
顏 (안)	얼굴	洗顏, 紅顏

- 鐵面皮: 쇠로 만든 낫가죽이라는 뜻으로,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
- 紅顏: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何 (하)	어찌	誰何, 幾何學的
河 (하)	강	冰河, 百年河清

- 幾何學的: 기하학에 관련이 있거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百年河清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즉,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황허강



상사목과 상사화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에 “내가 만일에 임을 못 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든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相思木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相思木은 흔히 연리지(連理枝)라고도 부르는데,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하여 하나로 합해진 것을 이른다. 한편, 相思花는 잎이 다 시들어 사라지면 비로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돋아나는 식물이다. 꽃과 잎이 永遠히 만나지 못하고 서로 그리워만 한다고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생겼다.



湖(호) 호수	鐵(철) 쇠	皮(피) 가죽	受(수) 받다	威(위) 위엄
顏(안) 얼굴	洗(세) 씻다	誰(수) 누구	幾(기) 몇	河(하) 물
氷(빙) 얼음	年(년) 해	清(청) 맑다	遠(원) 멀다	詩(시) 시
作(작) 짓다	品(품) 물건	初(초) 처음	等(등) 같다/등급	校(교) 학교
童(동) 아이	線(선) 줄	色(색) 빛	現(현) 나타나다	



학습 용어의 활용

詩의 이해



한문 속 문화 읽기

한국 – 이옥봉(李玉峯)

오시겠다 약속하고 임은 어찌 늦으시나?
[有約郎何晚]
뜨락의 매화도 지려 하는 즈음인데.
[庭梅欲謝時]

그리움을 읊은 시구

일본 – 잇쿄소준(一休宗純)

달 밝은 밤 임 생각 길이 잊지 못하고
[月夜思君長不忘]
밤 깊도록 그리워하다 빈자리에 누웠네.
[夜深戀慕臥空床]

중국 – 두보(杜甫)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今春看又過]
어느 날이 이 몸이 돌아갈 해인가?
[何日是歸年]



함께 해 보기

1

다음과 같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찾아 발표해 보자.

그리움을 노래한 시

검색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2

다음은 한시를 소재로 하여 만든 노래들이다. 이와 같이 한시를 소재로 만든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들어 보고, 그 노랫말을 적어 보자.

동 십 초

설도 작시, 김안서 역시, 김성태 작곡

꽃 - 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 - 고 -
 만 - 날 날 은 - - 아 들타 - 기
 약 이 없 - 네 -. 무 - 어 라 맘과 맘은
 뱃 - 지 - 웃 - 하 - 고 한 것 되 이 풀 앞만
 맷 으 려 - 는 고 -. 한 것 되 이
 풀 앞만 맷 - 으 려 - 는 - 고 -.



어느 미술 전시회의 제목으로, ‘미인(美人)’이라고 쓰여 있다. 전시회 등에서 볼 수 있는 한자를 찾아보고 그의 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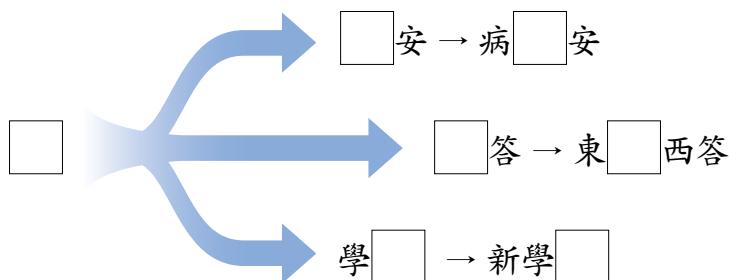




실력 다지기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넣어 의미망을 완성해 보자.



2

시구를 소리 내어 읽고 풀이해 보자.

- (1) 花開花落時
- (2) 桃花依舊笑春風

3

그림의 내용을 참조하여 풀이를 완성해 보자.

(1)

(2)

欲問相思處:

그리운 임 계신 곳

()



人面不知何處在:

그대 얼굴 ()

알 수 없어라.



14. 봄바람 부는 날



봄을 제재로 한 시 가운데는 겨우내 메말랐던 초목에 새로이 꽃이 피고 싹이 돋는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것도 있지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작품도 많다.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한시 작품을 통해 한 여인이 느끼는 봄의 서정을 함께 느껴 보자.

東風三月時에

處處落花飛라.

綠綺相思曲이나

江南人未歸라.

매장¹⁾



1) 매장(梅窓, 1573~1610): 조선 중기의 기녀(妓女)이자 여류시인. 시집으로 “매창집”이 있다.

飛(비) 날다

綠(록) 푸르다

*綺(기) 비단

曲(곡) 굽다/곡조

江(강) 강

南(남) 남녘

歸(귀) 돌아오다

怨(원) 원망하다

望(망) 바라다/원망하다

憂(우) 근심

愁(수) 근심

遊(유) 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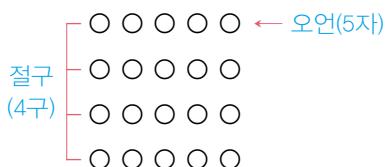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오언 절구 한시를 토를 달아 낭송하고 풀이한다.
- 한시를 통해 선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오언 절구의 이해

한 구(句)가 五言으로 되어 있고,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근체시를 오언 절구라고 한다.



- 근체시(近體詩): 고체시(古體詩)와 상대되는 시체(詩體)로 당나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오언시와 칠언시로 이루어졌는데, 4구로 이루어진 것을 절구(絕句), 8구로 이루어진 것을 율시(律詩)라고 한다.

2. 오언 절구 읽기 – 토를 달아 읽기

東風三月時(동풍▽삼월시)에

處處落花飛(처처▽낙화비)라.

綠綺相思曲(녹기▽상사곡)이나

江南人未歸(강남▽인미귀)라.

- 오언시는 기본적으로 '2자/3자'로 끊어 읽되, 시의 의미에 맞게 토를 달아 읽는다.
- 落花: 낙화(○), 락화(✗)
- 綠綺: 녹기(○), 록기(✗)

확인 위 시를 끊어 읽기에 유의하여 토를 붙여 소리 내어 읽어 보자.

3. 오언 절구 풀이하기

東風三月時에 | 봄바람 불어오는 삼월 시절에

- 東風: ① 동쪽에서 부는 바람.
② 봄바람.

處處落花飛라. | 곳곳마다 지는 꽃 바람에 나네.

- 綠綺: 거문고의 이름.

綠綺相思曲이나 | 거문고에 그리운 노래 실어 보내도

江南人未歸라. | 강남으로 떠나신 임 돌아오잖네.



“매창집”



이해와
감상

봄이 깊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들도 바람에 하릴없이 떨어져 흩날린다. 하지만 봄이 되면 오겠노라 약속하고 떠나신 임은 봄이 다 지나가고 꽃이 다 지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과, 그 속에 숨겨진 憎望과 憂愁의 정서가 애잔하고도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 시대 유명한 여류 시인으로 허균, 유희경 등 당대의 명사들과 交遊한 매창이 지은 이 시의 원제목은 ‘春思’로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1. 뜻이 비슷한 한자

落 (락)	떨어지다	脱落, 落花巖
降 (강)	내리다	降下, 降水量
思 (사)	생각	思念, 思考方式
想 (상)	생각	空想, 假想現實
憶 (억)	생각, 기억하다	追憶, 記憶喪失



낙화암과 백화정

2.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曲 (곡)	굽다	曲藝, 曲線美
	가락	舞曲, 練習曲

계절과
바람

春 – 東風 – 샛바람
 夏 – 南風 – 마파람
 秋 – 西風 – 하늬바람
 冬 – 北風 – 된바람



이옥봉의 詩才

이옥봉(李玉峯)은 조원(趙瑗)의 청이었는데, 시를 잘 지었다. 다음 일화는 시인으로서 이옥봉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이야기이다.

한 번은 어느 촌부(村婦)의 남편이 소를 도둑질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혔다. 글을 모르는 그 여자는 이옥봉에게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부탁했다. 이옥봉은 그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시구를 적었다.

“제가 직녀가 아니온데[妾身非織女: 청신비직녀] / 제 남편이 어찌 견우이리까?
 [郎豈是牽牛: 낭기시견우]” 견우(牽牛)란 직녀의 남편 이름이기도 하지만 ‘소를 끌고 가다’라는 뜻도 되니, 결국 남편이 소를 끌고 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고을 태수가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그 남편을 풀어 주었다고 한다.

“지봉유설”에서

脫(탈)	벗다	巖(암)	바위	降(강)	내리다/(항) 항복하다	量(량)	해아리다	念(념)	생각
式(식)	법	想(상)	생각	空(공)	비다	假(가)	거짓	憶(억)	생각/기억하다
記(기)	기록하다	喪(상)	잃다/죽다	失(실)	잃다	藝(예)	재주	舞(무)	춤추다



학습 용어의 활용

時調에 쓰인 한자 어휘

時調는 고려 末期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固有의 정형시이다. ‘그리움’을 주제로 한 시조 두篇을 읽어 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春風이를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룬 임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²⁾

마음이 어린 後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느 임 오리마는
지는 일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서경덕³⁾



*萬重雲山(만중운산): 만 겹으로 구름이 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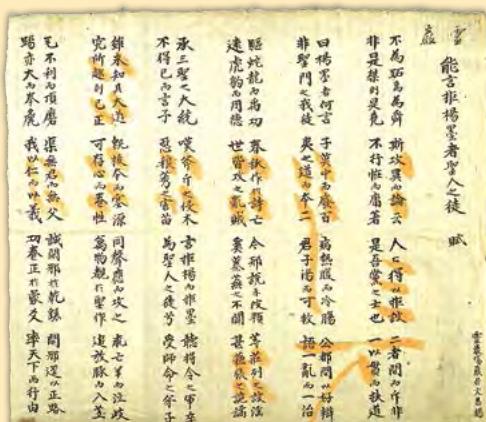
2) 황진이(黃真伊, ?~?). 조선 중기의 명기(名妓)이자 시인.

3) 서경덕(徐敬德, 1489~1546). 조선 중기의 학자. 호는 화담(花潭).



백일장

白日場은 글짓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글짓기 大會를 일컫는 말로 요즘
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조선 시대
에는 地方의 문교 진흥책의 하나로
문장 실력을 겨루던 시험이었다. 하
지만 과거 시험과는 달리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더라도 관리로 임용되지는
않았으며, 단지 명예를 지닐 뿐이었
다. 달밤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詩才를 서로 견주
어 보기도 하는 望月場과 대조적인
의미로, 대낮[白日]에 시재를 겨룬
다 하여 白日場이라는 말이 생긴 것
으로 본다.



조선 시대 백일장 답안지

練(련) 익히다

夏(하) 여름

秋(추) 가을

冬(동) 겨울

才(재) 재주

調(조) 고르다

期(기) 때

固(고) 굳다

篇(편) 책

重(중) 무겁다

場(장) 마당

會(회) 모이다



함께 해 보기

본문에서 배운 한시를 다음과 같이 낭송하는 대회를 열어 보자.

<낭송>

- ① 네 명이 한 모둠을 이룬다.
- ② 시의 분위기에 맞는 그림이나 배경 음악을 재생한다.
- ③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암송한다.
- ④ 나머지 모둠은 점수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표기한다.

東風▽三月時에 處處▽落花飛라.
綠綺▽相思曲이나 江南▽人未歸라.



항목별	모둠별	1	2	3	4
1. 토를 달아 ‘2자/3자’로 제대로 끊어 읽었는가?		점	점	점	점
2. 시를 읽을 때 음악성을 잘 살렸는가?		점	점	점	점
3. 낭송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는가?		점	점	점	점
4. 배경 그림이나 음악이 적절했는가?		점	점	점	점
총점		점	점	점	점



사진은 매창(梅窓)의 시비(詩碑)이다. 공원이나 기념관 등에 있는 시비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 시와 시인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





실력 다지기

1

밑줄 친 한자의 공통적인 뜻을 써 보자.

- (1) 脫落 - 降下
- (2) 思考方式 - 假想現實

[2 ~ 4]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東風三月時()	處處落花飛()
綠綺相思曲()	江南人未歸()

2

() 안에 알맞은 토를 써넣고, 끊어 읽기에 유의하여 낭송해 보자.

3

시의 주제를 대표하는 두 글자의 시어(詩語)를 찾아 쓰고, 시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적어 보자.

(1) 시어: ()

(2) 감상: _____

4

그림을 보고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15. 그리움을 강물에 띠워



그리움의 정서는 고금(古今)이나 동서(東西)를 초월하며, 나이나 성별(性別)의 차이도 없다.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조선 전기 한 문신(文臣)의 시를 감상해 보자.

江上雪消江水多요

夜來聞唱竹枝歌라.

與君一別思何盡고?

千里春心送碧波라.

이극감¹⁾



1) 이극감(李克堪, 1427~1465): 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덕여(德輿), 시호는 문경(文景).

消(소) 사라지다

夜(야) 밤

唱(창) 부르다

枝(자) 가지

歌(가) 노래

別(별) 다르다/헤어지다

盡(진) 다하다

里(리) 마을/거리 단위

送(송) 보내다

*碧(벽) 푸르다

波(파) 물결

放(방) 놓다

惜(석) 아끼다/애석하다

학 / 습 / 목 / 표



본문 깊이 보기

1. 칠언 절구의 이해

한 구(句)가 七言으로 되어 있고,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근체시를 칠언 절구라고 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칠언 절구 한시를 토를 달아 낭송하고 풀이한다.
- 한시의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한다.

• 칠언 절구



2. 칠언 절구 읽기 – 토를 달아 읽기

江上雪消江水多(강상설소▽강수다)요
夜來聞唱竹枝歌(야래문창▽죽지가)라.
與君一別思何盡(여군일별▽사하진)고?
千里春心送碧波(천리춘심▽송벽파)라.

- 칠언시는 기본적으로 '4자/3자'로 끊어 읽되, 시의 의미에 맞게 토를 달아 읽는다.

확인 위 시를 끊어 읽기에 유의하여 토를 붙여 소리 내어 읽어 보자.

3. 칠언 절구 풀이하기

江上雪消江水多요 | 강가에 눈 녹아 강물은 불어나고
夜來聞唱竹枝歌라. | 밤새도록 죽지가 노랫소리 들렸다네.
與君一別思何盡고? | 그대와 헤어진들 생각마저 그치리오?
千里春心送碧波라. | 천 리 밖 그리운 맘 푸른 물결에 보낸다네.

- 江水多: 강물이 많아지다. → 강물이 불어나다.
- 竹枝歌: 여기서는 평양의 민요를 가리킴.
- 與: ~와(과).
- 春心: 사랑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방송

요즈음에는 '放送'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을 가리키지만, 예전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 주는 일을 의미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放送'이라는 용어가 일천 번 넘게 등장한다.



겨우내 쌓인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고, 밤새 음악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봄날인데 시인은 이별의 아픔에 잠 못 이룬다. 비록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였다지만 그리운 마음마저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푸른 물결에 그리운 마음을 실어 보낸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惜別'의 정감을 잘 느낄 수 있다. "동문선"에 실려 있는 이 시의 원제목은 '차대동강누선운(次大同江樓船韻)'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水 (수)	물	渴水, 泉水
氷 (빙)	얼음	冰玉, 伐氷
永 (영)	길다	永久, 永眠
雲 (운)	구름	雲集, 浮雲
雪 (설)	눈	除雪, 暴雪

- 渴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강물 따위의 물이 마를.
- 伐氷: 나중에 쓸 목적으로 강이나 호수 따위에서 얼음 조각을 떠냄.
- 永眠: 영원히 잠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



望雲之情

당(唐)나라 때 적인걸(狄仁傑)은 벼슬살이를 하면서 賢明하고 올바른 재판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모함을 받아 투옥 되었다가 좌천되었다. 지방에 勤務하던 그가 산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한 데서 유래한 성어가 '望雲之情'으로, 멀리 떠나온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을 뜻한다.



2. 뜻이 상대적인 한자

送 (송)	보내다	送客, 發送
迎 (영)	맞이하다	迎入, 歡迎
來 (래)	오다	到來, 由來
往 (왕)	가다	往復, 已往

- 迎入: 환영하여 받아들임.
- 到來: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정지상과 '送人' 시

고려 때 정지상(鄭知常, ?~1135)은 시인으로 유명한데, 대동강 가 부벽루에는 그의 대표작인 '送人' 이 걸려 있었다. 그 시가 너무 훌륭하여 중국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칭찬하니 나중에는 중국 사신이 오면 다른 시는 다 떼어 버리고 이 시만 걸어 놓았다고 한다. '送人' 시는 다음과 같다.

비 그친 강둑에 풀빛은 젖은데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남포에서 임 보내는 슬픈 노래 올리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나 마를거나?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는데. [別淚年年添綠波(별루연년첨록파)]



渴(갈) 목마르다

泉(천) 샘

玉(옥) 구슬

伐(벌) 치다

久(구) 오래다

眠(면) 잠자다

集(집) 모으다

浮(부) 뜨다

除(제) 덜다/없애다

暴(폭) 사납다



학습 용어의 활용

詩와 관련된 한자 어휘

主題, 素材,
音數律, 詩的 話者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즐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① 素材는 진달래꽃이다.
② 詩的 話者는 여성으로 볼 수 있다.
③ 主題는 '이별의 情恨과 그 승화'이다.
④ 音數律은 7·5조의 민요 형식과 유사하다.
⑤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表現이 두드러진다.

한문 속 문화 읽기

시조 가운데는 한문으로 번역하여 기록된 것들도 많다. 고려를 向한 忠誠과 一片丹心을 노래한 포은(圃隱) 정몽주의 '丹心歌'를例로 들어 본다.

이 몸이 죽어 죽어	[此身死了死了(자신사료사료)]
일백 번 고쳐 죽어	[一百番更死了(일백번갱사료)]
백골이 진토 되어	[白骨爲塵土(백골위진토)]
넋이라도 있고 없고	[魂魄有也無(흔백유야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向主一片丹心(향주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寧有改理也歟(영유개리야여)]

정몽주

明(명) 밝다	務(무) 힘쓰다	迎(영) 맞이하다	歡(환) 기쁘다	到(도) 이르다
已(이) 이미	素(소) 바탕/희다	材(재) 재목	數(수) 셉	話(화) 말씀
恨(한) 한하다	向(향) 향하다	片(편) 조각	丹(단) 붉다	例(례) 본보기



함께 해 보기

 본문에서 배운 한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써 보자.

江上雪消江水多요

夜來聞唱竹枝歌라.

與君一別思何盡고?

千里春心送碧波라.



- 제1구: 계절과 장소, 자연의 변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쓴다.
- 제2구: 시간적 배경(밤)과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쓴다.
- 제3구: 이별의 아픔과, 이별은 했지만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쓴다.
- 제4구: 그리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쓰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그리운
사람에게….



TV 요리 프로그램 장면이다. ‘최고(最古: 가장 오래) & 최고(最高: 가장 으뜸)’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이 TV 화면에 나오는 한자를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제시된 풀이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 연결해 보자.

- (1)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 (2) 시에서 음절의 수를 일정하게 하여 이루는 운율.
- (3)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중요한 문제.
- (4) 작품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재료.

(1)

•

(2)

•

(3)

•

(4)

•

素材

主題

音數律

詩的 話者

2

제시된 그림에 맞는 시구(詩句)를 <보기>에서 찾아 쓰고 풀이해 보자.



江上雪消江水多, 夜來聞唱竹枝歌. 與君一別思何盡, 千里春心送碧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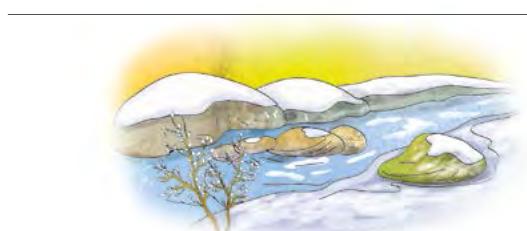
(

):



(

):



(

):



(

):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湖面, 鐵面皮, 受容, 威容, 洗顏, 紅顏, 誰何, 幾何學的, 水河, 百年河清, 脫落, 落花巖, 降下, 降水量, 思念, 思考方式, 空想, 假想現實, 追憶, 記憶喪失, 曲藝, 曲線美, 舞曲, 練習曲, 渴水, 泉水, 水玉, 伐水, 永久, 永眠, 雲集, 浮雲, 除雪, 暴雪, 送客, 發送, 迎入, 歡迎, 到來, 由來, 往復, 已往

(2) 학습 용어의 활용

- 文學, 作品, 初等學校, 童詩, 表現, 時調, 末期, 固有, 春風, 萬重雲山, 主題, 素材, 音數律, 詩的話者

2 오언시(五言詩)와 칠언
시(七言詩)

(1) 오언시: 한 구(句)가 다섯[五] 글자[言]로 이루어진 시[詩].

- 오언시 끊어 읽기: ○○▼○○○

欲問相思處(욕문▼상사처), 花開花落時(화개▼화락시)

(2) 칠언시: 한 구(句)가 일곱[七] 글자[言]로 이루어진 시[詩].

- 칠언시 끊어 읽기: ○○○○▼○○○

人面不知何處在(인면부지▼하처재), 桃花依舊笑春風(도화의구▼소춘풍)

3 오언 절구의 이해

(1) 오언 절구: 한 구(句)가 五言으로 되어 있고,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근체시.

(2) 오언 절구 토틀 달아 읽고 풀이하기

- | | |
|-----------------|--------------------|
| 東風三月時(동풍▼삼월시)에 | 봄바람 불어오는 삼월 시절에 |
| 處處落花飛(처처▼낙화비)라. | 곳곳마다 지는 꽃 바람에 나네. |
| 綠綺相思曲(녹기▼상사곡)이나 | 거문고에 그리운 노래 실어 보내도 |
| 江南人未歸(강남▼인미귀)라. | 강남으로 떠나신 임 돌아오잖네. |

(3) 시의 주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4 칠언 절구의 이해

(1) 칠언 절구: 한 구(句)가 七言으로 되어 있고,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근체시.

(2) 칠언 절구 토틀 달아 읽고 풀이하기

- | | |
|---------------------|--------------------------|
| 江上雪消江水多(강상설소▼강수다)요 | 강가에 눈 녹아 강물은 불어나고 |
| 夜來聞唱竹枝歌(야래문창▼죽지가)라. | 밤새도록 죽지가 노랫소리 들렸다네. |
| 與君一別思何盡(여군일별▼사하진)고? | 그대와 헤어진들 생각마저 그치리오? |
| 千里春心送碧波(천리춘심▼송벽파)라. | 천 리 밖 그리운 맘 푸른 물결에 보낸다네. |

(3) 시의 주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함.

V

우리 땅, 우리 문화

16. 우리가 사는 이 땅

17. 동방의 아름다운 풍속

18. 동방의 위대한 문화유산

19. 소중한 사람들, 가족



우리나라를 흔히 ‘비단으로 수놓은 것 같다’ 하여 ‘금수강산’이라고 부른다. 대양으로 뻗어 나가기 좋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작은 섬까지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은 없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만의 풍속과 전통을 지키며, 우수한 문화와 문명을 일구고 꽂피웠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국토와 풍속에 관련된 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관한 글, 그리고 선조들이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을 배우게 된다.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국토와 문화,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것들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고 아울러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목보 구조를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而’, ‘以~爲…’, ‘乎’, ‘使’, ‘耳’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문장의 유형 중 의문문을 구별한다.
- 국토와 관련된 산문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지형적 특징을 이해한다.
-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관한 문장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기른다.

16. 우리가 사는 이땅



此島는 高麗가 得之於新羅하고

我朝가 得之於高麗하니 元非日本之地라. “만기요람”¹⁾



我國은 山多野少하여 車行不便이라. <증략>

我國東西南이 皆大海니 船無有不通이라. “택리지”²⁾

1)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 · 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지은 책.

2) 택리지(擇里志): 1751년(영조 27)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이 저술한 우리나라 지리서.

獨(독) 훌로

島(도) 섬

此(차) 이

* 麗(려) 곱다

得(득) 얻다

* 羅(라) 벌이다

元(원) 으뜸

野(야) 들

* 車(거) 수레/(차) 차

行(행) 가다

便(편) 편하다/(변) 뚝오줌

皆(개) 다

船(선) 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주술목보 구조를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국토와 관련된 산문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지형적 특징을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구조 – 주술목보 구조

- 我朝 + 得 + 之 + 於高麗: 조선이 고려에서 그것을 얻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 주술목보 구조: ‘주어+서술어+ 목적어+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
 - 我朝: 우리 조정, 즉 조선을 가리킴

2. 문장 풀이하기

- 此島는 高麗가 得之於新羅하고 | 이 섬은 고려가 신라에서 그것을
을 얻었고
 - 元非日本之地라. |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 我國은 山多野少하여 車行不便이라. |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들
이 적어서 수레가 다니기에 편하지 않다.
 - 我國東西南北皆大海니 船無有不通이라. |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큰 바다이니 배가 통하지 않음이 없다.

- 此島: 독도를 가리킴.
 - 之: ‘此島’를 가리킴.

‘獨島’의 명칭 유래

‘獨島’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石島’에서 유래했다. ‘돌섬’이라는 말인데, ‘돌’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한다. 따라서 ‘독섬’이라고 부르다가 이를 한자로 쓰면서 ‘獨島’가 된 것이다.



독도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6. 우리가 사는 이 땅 ● 107



일상 용어의 활용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此 (차) 이	此日彼日
比 (비) 견주다	比例代表
新 (신) 새롭다	新郎, 新種
親 (친) 친하다/아버지	親和, 家親
視 (시) 보다	輕視, 坐視

- 此日彼日: 오늘 내일 하며 자꾸 기한(期限)을 늦춤.

- 家親: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坐視: 참관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함.

2. 뜻이 상대적인 한자

得 (득) 얻다	所得, 拾得
失 (실) 잃다	大驚失色

- 大驚失色: 둠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덤!
+
比例代表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 대표제'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을 '비례 대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데,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국회 의사당



八道名의 유래

함경도(咸鏡道) – 함흥(咸興) + 경성(鏡城)
 평안도(平安道) – 평양(平壤) + 안주(安州)
 황해도(黃海道) – 황주(黃州) + 해주(海州)
 강원도(江原道) – 강릉(江陵) + 원주(原州)
 경기도(京畿道) – 서울[京]을 둘러싼 지역[畿]
 충청도(忠清道) – 충주(忠州) + 청주(淸州)
 전라도(全羅道) – 전주(全州) + 나주(羅州)
 경상도(慶尙道) – 경주(慶州) + 상주(尙州)



팔도총도(조선)

아하!
각 도 안에
있는 큰 고을
이름에서 따온
거로군.

彼(피) 저	郎(랑) 사내	和(화) 화목하다	視(시) 보다	坐(좌) 앉다
輕(경) 가볍다	拾(습) 줍다	驚(경) 놀라다	統(통) 거느리다	治(치) 다스리다
要(요) 중요하다	識(식) 알다	圖(도) 그림	太(태) 크다	宗(종) 마루



학습 용어의 활용

地理 관련 용어

국가 統治에 必要한 地理 知識을 얻기 위해 地圖를 제작하고 地理書를 편찬하였다. 太宗 때 세계 地圖인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각 지역에 대한 情報를 담고 있는 “八道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 등의 地理書를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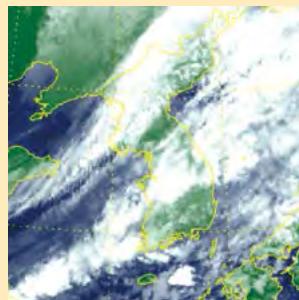
- 地理書: 어떤 지역의 수륙, 기후, 生物, 人口, 都市, 交通, 產業 등을 기록한 책.
- 地圖: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記號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 情報: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 八道地理志: 1478년(성종 9)에 양성지(梁誠之)에 의해 편찬된 지리서.



半島

우리나라는 ‘韓半島’라고 불리는 반도 국가로, 한반도 안에는 크고 작은 부속 반도가 있다. 부속 반도는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에 분포하며, 대표적인 예로 용진반도 · 태안반도 · 변산반도 · 해남반도 · 장흥반도 · 고흥반도 · 여수반도 · 고성반도 등을 들 수 있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주는 육교의 역할을 하며,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하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찍이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에 전파시켰고, 때로는 대륙과 해양 양쪽에서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원양 어업을 진흥시키고, 해외 무역에 주력할 수 있게 된 것도 반도적 위치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성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報(보) 갚다/알리다

志(지) 기록하다

都(도) 도읍

市(시) 저자

業(업) 일

號(호) 이름

韓(한) 나라 이름

半(반) 반



함께 해 보기

다음은 독도를 소재로 만든 노래이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위치, 환경 및 독도 사랑의 다짐 등을 담아 새로운 노랫말을 붙여 불러 보고 서로 평가해 보자.(4인을 기준으로 모둠을 만들어 활동하고,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홀로 아리랑

작사·작곡: 한돌



제목:

작사:

노랫말:



평가 요소 및 채점 기준	채점	총점
1. 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다.(1~7점)	점	
2. 독도의 아름다움이나 특징이 잘 표현되었다.(1~10점)	점	
3. 가사가 참신하다.(1~7점)	점	
4. 노래를 서로 조화되게 잘 불렀다.(1~5점)	점	



오른쪽 돌에 새겨진 사자성어 ‘애국애족(愛國愛族)’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자’는 뜻이다. 우리 주변에서 돌에 새겨진 한자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그림을 참조하여 □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 大 驚 □ 色

[2 ~ 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此島, 高麗, 得之於(①), ②我朝, 得之於高麗, 元非日本之地.
- 我國, 山多野少, 車行不便. ③我國東西南, 皆大海, 船無有不通.

2

①에 알맞은 나라의 이름은?

- ① 고구려 ② 백제 ③ 신라 ④ 고려 ⑤ 조선

3

④을 주술목보 구조에 유의하여 풀이해 보자.

4

⑤을 풀이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에 어떤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는지 말해 보자.

17. 동방의 아름다운 풍속

예전에는 결혼식을 신부 집에서 행했답니다.



我國婚禮는 於吉夕燭出하고 納新婦하니라. “연경재전집”¹⁾



조선 시대에는 몇 살에 성인식을 했을까요?

男子二十而冠은 有爲人父之端이요,

女子十五許嫁는 有適人之理라. “지산집”²⁾

설날에 어떤 덕담을 했을까요?



逢親舊年少 하면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로

爲德談하고 以相賀라. “동국세시기”³⁾

1)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문집.

2) 지산집(芝山集): 조선 중기의 학자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의 시문집.

3)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 후기에 홍석모(洪錫謨, 1781~1850)가 세시풍속(歲時風俗)을 해설한 책.

婚(혼) 혼인하다

禮(례) 예도

吉(길) 길하다

夕(석) 저녁

*燭(촉) 촛불

*納(납) 들이다

婦(부) 아내

*冠(관) 갓

端(단) 끝/단서

*許(허) 허락하다

*嫁(가) 시집가다

適(적) 알맞다/가다

逢(봉) 만나다

科(과) 과목

*進(진) 나아가다

官(관) 벼슬

*獲(획) 얻다

德(덕) 덕

賀(하) 하례하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而', '以~爲…'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而: ~해서, 그리고

- 男子二十而冠 有爲人父之端: 남자가 스무 살이 되어서 관례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될 단서가 있어서이다.
- 人父: 남의 아버지. → 아버지.

(2) 以~爲…: ~을 …로 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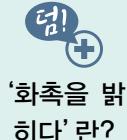
-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 爲德談: 과거 합격이나 승진, 아들 낳으라, 돈 많이 벌라는 등의 말을 덕담으로 삼다.
- 登科: 과거 합격.
- 進官: 승진.
- 德談: 주로 새해에 나누는,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

2. 문장 풀이하기

- 我國婚禮는 於吉夕燭出하고 納新婦하니라. | 우리나라의 혼례는 길한 날 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신부를 맞아들인다.
- 女子十五許嫁는 有適人之理라. | 여자가 열다섯 살이 되어야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남에게 시집갈 이치가 생기게 되어서이다.

• 燭出: 촛불을 켰.

• 適人之理: 남의 집에 시집가서 사는 이치나 도리.



‘화족(華燭)’은 ‘화려한 촛불’, 또는 ‘색을 입힌 초’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이처럼 아름답게 장식한 초는 結婚式과 같은 의식에 사용했다. 따라서 ‘화족을 밝힌다’고 하면 ‘결혼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화족(조선 시대)



1. 뜻이 상대적인 한자

夫 (부) 남편/사내	夫人 , 漁夫
婦 (부) 아내/여자	婦人 , 主婦

- 夫人: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 婦人: 결혼한 여자.

2. 부수가 같은 한자 – 조개 패(貝)

賀 (하) 하례하다	慶賀, 祝賀
貞 (정) 곧다	貞節, 忠貞
貧 (빈) 가난하다	貧困, 貧弱
財 (재) 재물	財界, 財產

- 貞節: 굳은 마음과 변하지 않는 절개.
- 忠貞: 충성스럽고 절개가 곤음.



사주단자

훈인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生年·月·日·時를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데, 그 종이를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 한다.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은 생년월일시를 중히 여긴 데서 나온 풍습이다.



사주단자



月下老人 이야기

당(唐)나라의 위고(韋固)라는 청년이 맞선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데, 한 노인이 달빛 아래에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노인은 “이 책에는 사람들의 혼사(婚事)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지. 네가 기다리는 여인은 오늘 오지 않아.”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위고의 아내 될 사람은 아직 갓난아이라고 알려 주었다. 채소 파는 초라한 노파의 어린아이가 아내가 될 것이라는 말에 실망한 위고는 하인을 시켜 해코지하게 했다.



훗날 위고는 고을 태수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17세의 아가씨는 絶世佳人(절세佳人)이었지만 언제나 이마에 꽃 모양의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위고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저는 사실은 태수의 양녀입니다. 어릴 때 유모가 채소를 팔며 길러 주었는데, 세 살 때 어떤 사람의 습격을 받아 머리에 상처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종이로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위고는 놀라며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결국은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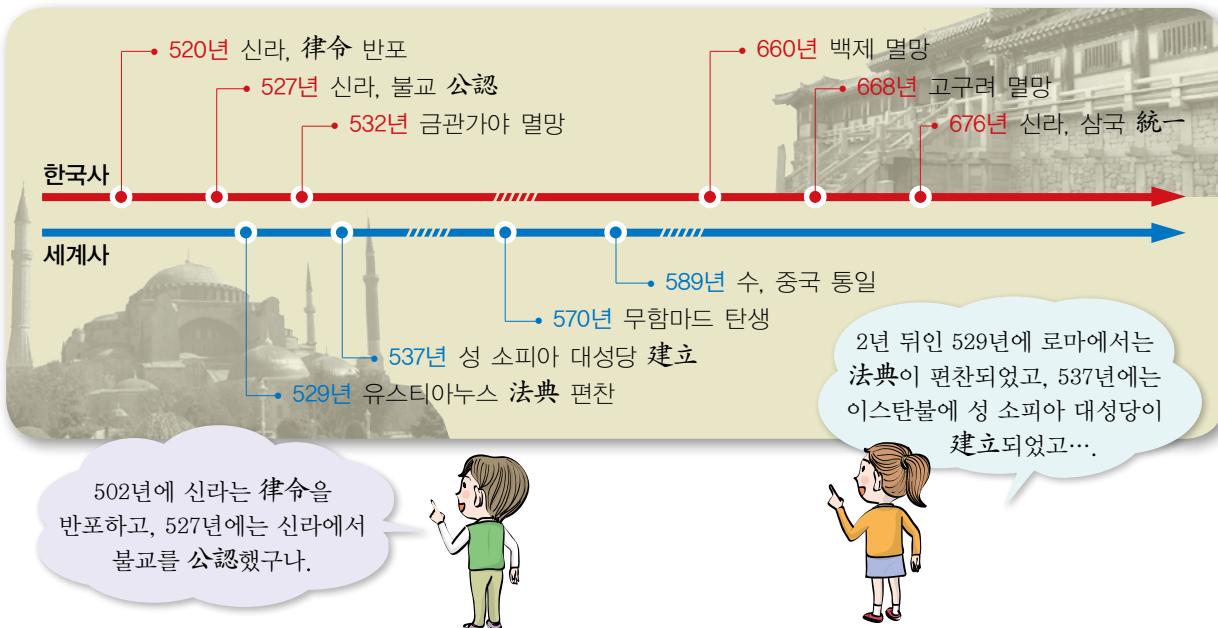
“태평광기”에서

夫 (부) 남편	慶 (경) 경사	貞 (정) 곧다	忠 (충) 충성	貧 (빈) 가난하다
困 (곤) 곤하다	弱 (약) 약하다	界 (계) 지경	絕 (절) 끊다	佳 (가) 아름답다



학습 용어의 활용

역사 연표 보기



한문 속 문화 읽기

한·중·일
삼국의 새해맞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예로부터 중요한 명절로 삼았다.

한국 – 설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하며,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설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차례를 지내며,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떡국을 먹는다. 널뛰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한다.

중국 – 춘제(春节)
음력 1월 1일을 '춘제'라고 한다. 폭죽을 터뜨려 악귀를 쫓고, 거리에서는 용놀이나 사자놀이를 하며 흥을 돋우는 풍습이 있다.

일본 – 오쇼가츠(お正月)
메이지 유신 이후로 양력으로 설을 쇠는데, 1월 1일을 '오쇼가츠'라고 한다. '오조니'라는 일본식 떡국과 '카가미모치'라는 찹쌀떡, '오세치료리'라는 정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수(령) 명령하다

典(전) 법

公(공) 공평하다

認(인) 인정하다

建(건) 세우다



함께 해 보기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설날을 가정하여 서로 주고받은 덕담의 내용을 적어 발표해 보자.

올핸 달리기 꽂찌였지만
내년엔 대표 선수가 되렴.

호호! 고마워. 넌 내년엔
음치 대신 성악가란 별명을
얻길 바랄게.



내가 한 덕담

내가 들은 덕담

듣고 싶은 덕담



‘하마비(下馬碑)’는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비석으로, 궁궐이나 종묘, 문묘 등의 입구에 세웠다. 주변에서 한자로 쓰인 비석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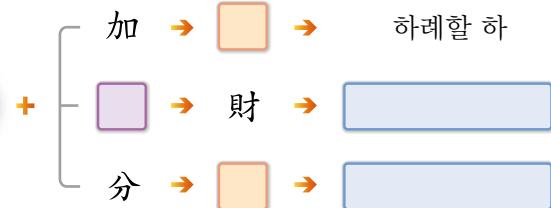


실력 다지기

1

그림의 빈칸에 알맞게 써넣어 보자.

貝



[2 ~ 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我國婚禮, 於吉夕燭出, 納新婦.
- 逢親舊年少,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 為德談, 以相賀.

2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윗글에서 해당하는 어휘를 찾아 한자로 써 보자.

(1)



•

• ① 결혼식 ()

(2)



•

• ② 덕담 ()

3

밑줄 친 부분을 ‘以～爲…’에 유의하여 풀이해 보자.

4

한자 문화권의 명절과 세시 풍속을 조사해 보자.

18. 동방의 위대한 문화유산

한문과 유교를 일본에 전했어요.



열심히 이치마.



王仁^{*}持千家文而至하니 道稚^{**}又師之하여
儒教始行이라. “청장관전서”¹⁾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답니다.



宣光七年丁巳七月日에 清州牧外興德寺에서
鑄字印施라. “직지심체요절”²⁾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우리 고유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될 것은
좋아요,

검은 것은
垢자로다.

내百姓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우리글을 만들어야겠어.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여 <중략> 新制二十八字하노니
欲使人人으로 易習하여 便於日用耳니라. “훈민정음”³⁾

仁(인) 어질다

持(지) 가지다

*稚(치) 어리다

又(우) 또

師(사) 스승

*儒(유) 선비

始(시) 처음/비로소 *宣(선) 펴다

光(광) 빛

丁(정) 넷째 천간

己(사) 여섯째 지지 *州(주) 고을

*牧(목) 치다

外(외) 바깥

興(흥) 일어나다

寺(사) 절

*鑄(주) 쇠 부어 만들다

印(인) 도장/박다

*異(이) 다르다

乎(호) 어조사

*制(제) 법/짓다



본문 깊이 보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乎’, ‘使’, ‘耳’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관한 문장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기른다.

1. 한자의 쓰임

(1) 乎: ~과(와)

• 國之語音 異乎中國: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 乎: 비교를 나타내는 개사.

(2) 使: ~으로 하여금 ~하게 하다, 耳: 따름이다

•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易: (역) 바꾸다. (이) 쉽다.

2. 문장 풀이하기

- 王仁持千家文而至하니 道稚又師之하여 儒教始行이라. | 왕인 이 천자문을 가지고 이르니, 도치가 또 그를 스승으로 삼겨 유교가 비로소 행하여졌다.
- 宣光七年丁巳七月日에 清州牧外興德寺에서 鑄字印施라. | 선광 7년인 정사년 7월 모일에 청주목 외곽의 흥덕사에서 글자를 주조하여 발행했다.

- 千家文: “천자문”을 달리 이르는 말.
- 師: ‘스승으로 삼다’의 의미.
- 宣光: 북원(北元)의 연호. 선광 7년은 1377년(고려 우왕 3년), 간지로 정사년임.
- 印施: ‘인쇄하여 널리 유포했다’는 말로 지금의 발행(發行)과 같은 의미.

덤!
+
“천자문”
이란?

한자 1,000자로 시구나 성어를 만든 것으로, 중국 위(魏, 220~265)나라의 종요(鍾繇)가 지은 것과 양(梁, 502~557)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왕인이 초청을 받아 왜에 간 것이 백제 아신왕(392~404) 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전한 “천자문”은 종요의 것으로 짐작된다.



한석봉이 쓴 “천자문”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王仁: 백제 근초고왕 때의 학자로 생몰 연대는 미상. **道稚: 일본 왕 응신(應神)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

1) 정장관전서(青莊館全書):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저술로 33책 71권임.

2)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찍어 낸 불교 관련 책.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3)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 대왕(世宗大王)이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반포할 때 펴낸 책.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일상 용어의 활용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持 (지) 가지다	堅持, 扶持
特 (특) 특별하다	特別, 特採

- **堅持:**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
- **扶持:**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함.

2. 뜻이 비슷한 한자

語 (어) 말씀	語句, 佛語
說 (설) 말씀	說破, 浪說
云 (운) 이르다	云云

- **佛語:** ‘프랑스어’의 음역어.
- **說破:** 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함.
- **浪說:** 터무니없는 혀소문.
- **云云:** 글이나 말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에, 이리이러하다고 말함의 뜻으로 쓰는 말.

3. 뜻이 상대적인 한자

異 (이) 다르다	異國, 判異
同 (동) 같다	同一, 混同

- **混同:**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문무백관

‘文武百官’에서 ‘文武’는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百官’이란 ‘모든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무백관이란 문관과 무관 등 모든 벼슬아치를 뜻한다.



창덕궁 인정전과 품계석
품계석은 문무백관이 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세종,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명하다

조선 시대에 관청에 소속된 노비와 아전들에게는 정해진 휴가가 있었다. 교통 事情이 좋지 않았던 시대라서 복귀하는 날이 늦어지는 일이 많아 늦은 만큼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노비들의 불만이 많았다. 세종은 이러한 폐단을 고칠 것을 명하였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임신한 여자 종에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 휴가를 줄 것을 명하였다. 세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출산한 여자 종의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출산 한 아내가 남편 없이 산후 조리를 하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조선왕조실록” 참조



堅 (견) 굳다	扶 (부) 돋다	特 (특) 특별하다	採 (채) 캐다	佛 (불) 부처	破 (파) 깨뜨리다
浪 (랑) 물결/터무니없다	云 (운) 이르다	判 (판) 판단하다	同 (동) 같다	混 (훈) 섞이다	武 (무) 호반
事 (사) 일	全 (전) 온전하다	兄 (형) 형	弟 (제) 아우	姊 (자) 손위 누이	妹 (매) 손아래 누이



학습 용어의 활용



다문화 사회와 家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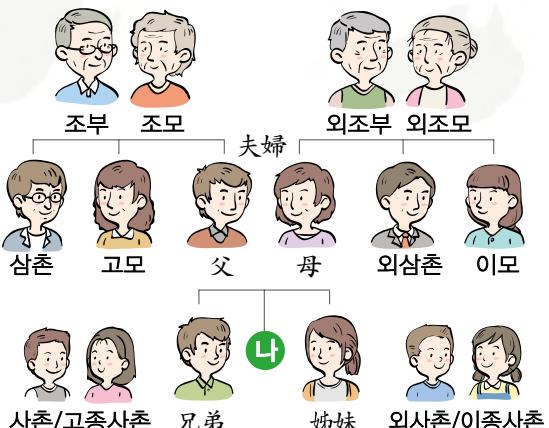
世界化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社會는 이미 외국인이 全體 인구의 2% 이상을 차지하는 多文化社會로 진입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세계화와 문화 갈등

- (1) 유럽: 경제난 심화로 이민자들이 배척되면서 다문화주의 위기.
- (2)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증가 등 다문화 현상의 가속화로 갈등.
- (3) 대책: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 필요.

우리 가족과 가족 관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고려의 문신인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신인상정예문발미(新印詳定禮文跋尾)'에는 "최윤의 등이 옛날에 '상정예문'이 낡고 또한 몽고군의 침입으로 분실되어 최충현 소장본만 남게 되었는데, 이를 주자(鑄字)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사(官司)에 나누어 간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는 13세기 초·중반에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정예문(혹은 상정고금예문)"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 남아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개화기에 조선에 왔던 프랑스 외교관이 프랑스로 가지고 간 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금속 활자 제작 모습



함께 해 보기

다음에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유산’의 특징이나 위대한 점을 사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찾아보자.

<훈민정음의 특징>

1.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 조선의 임금인 세종 대왕이 만들었다.
2. 만든 목적이나 분명한 글자이다. - 벽성들을 위해 만들었다.
3. 만든 원리를 알 수 있다. - 발음기반과 천지인(天地人)을 본떠서 만들었다.
4. 한글은 매우 기쉬운 글자이다.
5. 다양한 음성과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수원 화성
판소리



일본에는 왜에게 천자문을 전해 준 왕인의 묘라고 전해지는 유적이 남아 있다. 비석에 쓰인 ‘전왕인묘(傳王仁墓)’라는 글은 ‘왕인의 묘라고 전함.’이라는 뜻이다. 유적지에서 한자로 쓰인 비석이나 표지판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오른쪽 한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 ① 부수가 같다.
- ② 획수가 같다.
- ③ 음이 같다.
- ④ 뜻이 같다.
- ⑤ 짜임이 같다.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王仁持千家文而至，道稚又師之，儒教始行。
- 宣光七年丁巳七月日，清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 國之語音，異乎中國，〈中譜〉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2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왕인이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에 갔어.

② 왕인에 의해 일본에
불교가 전파되었지.

⑤ 세종 대왕은
사람들이 쉽게 익히게
하려고 글자를 만들었대.



③ 홍덕사에서
글자를 주조했대.

④ 세종 대왕이 만든
글자는 28자였어.

3

⑦을 ‘使’와 ‘耳’의 쓰임에 유의하여 풀이해 보자.

19. 소중한 사람들, 가족



부부란 가정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夫婦는 人倫之始요, 萬福之原이니
所關至重이라. “정암집”¹⁾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당연히 맏이인 형님이 가지셔야…….”

眉叟^{*}曰 “均是父母之子 어늘
我不可獨有家也 라.” 하다. “청파극담”²⁾



백유가 잘못을 하여 어머니가 매로 종아리를 때리니 백유가 울었다.

其母曰 “他日笞에 子未嘗泣이려니
今泣은 何也 오?” 하니,

對曰 “兪^{**}得罪에 答常痛이려니
今母之力이 不能使痛이라. 是以로 泣하노이다.” 하다. “소학”³⁾



*眉叟(미수): 조선(朝鮮) 세조(世祖) 때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성담수(成聃壽, ?~1456). 미수는 그의 자(字).

**兪(유): 중국 한(漢)나라 사람으로 성은 한(韓), 이름이 유(兪)인데, 자(字)인 백유(伯兪)로 불림.

倫(륜) 인륜

福(복) 복

原(원) 근원

關(관) 빗장/관계하다

*眉(미) 눈썹

*叟(수) 늙은이

曰(왈) 말하다

均(균) 고르다

他(타) 다르다

*笞(태) 매질하다

*嘗(상) 일찍이/맛보다

泣(읍) 울다

今(금) 이제

對(대) 대하다

*兪(유) 대답하다

常(상) 항상

*痛(통) 아프다

力(력) 힘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문장의 유형 중 의문문을 구별한다.
-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所: ~된(한) 바

- 夫婦 人倫之始 萬福之原 所關至重: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요하다.

(2) 不可, 不能: ~할 수 없다

- 均是父母之子 我不可獨有家也: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거늘 나만 홀로 집을 가질 수 없다.
- 今母之力 不能使痛 是以 泣: 지금 어머니의 힘이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읁니다.



'不可不可'
의 함정

'不可不可'는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不可, 不可'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고, '不可不, 可'라고 읽으면 '어쩔 수 없이 가능하다'의 뜻이 된다.

- 人倫: 군신 · 부자 · 형제 · 부부 따위 상하 존비의 인간관계나 질서. 흔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도 함.

- 有: 소유하다.

- 不能使痛: 어머니가 늙으셔서 매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

- 以: ~ 때문에.

2. 문장의 유형 – 의문문

- 今泣 何也: 지금 우는 것은 왜냐?

-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3. 문장 풀이하기

- 其母曰 他日答에 子未嘗泣이려니 |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에는 매를 때릴 때 네가 일찍이 울지 않더니”
- 對曰 愉得罪에 答常痛이려니 | 대답하기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매가 항상 아프더니”

- 他日: ‘전날’의 의미.
- 子: 너(2인칭).

- 愉: 백유. 흔히 윗사람에게 자기를 칭할 때 이름을 말함.

청자 원앙 모양 항로 뚜껑(고려)
원앙은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새이다.



1) 정암집(靜菴集): 조선 중종 때의 문신 · 성리학자인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시문집.

2) 청파극담(靑坡劇談):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이록(李陸, 1438~1498)이 지은 야담 · 잡록집.

3) 소학(小學): 송나라의 유자징이 편찬한 것으로, 아동들을 위한 교재.



일상 용어의 활용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夫 (부) 사내	匹夫之勇
天 (천) 하늘	祭天, 天井不知
未 (미) 아니다	未決, 未來
末 (말) 끝	末伏, 年末

- 匹夫之勇: 하찮은 남자의 용기, 즉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부리는 용기를 이름.
- 天井不知: 천장을 모른다는 뜻으로, 물건의 값 따위가 자꾸 오르기만 힘을 이르는 말.

2. 뜻이 비슷한 한자

始 (시) 처음	始作, 始祖
初 (초) 처음	初夏, 最初

- 初夏: 초여름.



삼복

三伏이란 흔히 ‘三伏 더위’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데, 여름철의 뜸시 더운 기간인 初伏, 中伏, 末伏을 일컫는 말이다. 더위를 피해 산과 溪谷을 찾아 피서를 가거나 삼계탕과 같은 영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삼계탕



“청파극담”에 실린 이야기 하나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이 길을 가다가 어느 정자에 올랐다. 한 선비가 먼저 정자에 올라 손을 뒷짐 지고 현판의 시를 보고 있다가 거만스레 맹사성을 보고 물었다. “영감은 이 시의 흥취를 좀 아시겠소?” 맹사성이 겸손한 태도로 “무식한 시골뜨기가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선비는 기고만장하여 시구절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후로 뒤따라오던 하인들이 연회를 준비하는 등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선비는 하인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맹사성인 줄 알았다. 그가 엎드려 사죄하니 맹사성은 “사람은 귀천에 관계없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오. 아까의 오만한 태도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도도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처럼 비굴함만 남았단 말이오?”라고 하고는 끌어당겨 위로하고 보냈다.



“청파극담”에서

匹 (필) 짹	勇 (용) 용감하다	祭 (제) 제사	井 (정) 우물	決 (결) 결단하다
伏 (복) 엎드리다	祖 (조) 할아버지	最 (최) 가장	溪 (계) 시내	谷 (곡) 골
尊 (존) 높이다	共 (공) 함께	定 (정) 정하다	平 (평) 평평하다	達 (달) 통달하다
分 (분) 나누다	屋 (옥) 집	續 (속) 잇다	議 (의) 의논하다	



학습 용어의 활용

건강한 가정의 특징

○ 약속 지키기

- 家族의 역할과 책임 共有하기
- 건강한 家族 규칙 만들기
- 집안의 중요한 일 함께 결정하기

○ 함께하기

- 여가 시간 함께하기
- 必要할 때 도움 제공하기
- 가치와 목표 共有하기

○ 상호 尊重

- 個人의 욕구 認定하기
- 서로 배려하고 칭찬하기
- 兩性平等한 家族 관계 형성하기

○ 社會와의 유대

- 건강한 시민의식 갖기
- 社會 共同體 의식 갖기
- 道德的 감각 發達시키기

- 家族: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 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 尊重: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 兩性平等: 양 쪽 성별에 權利, 義務,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共同體: 생활이나 行動 또는 目的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 發達: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



율곡 이이 집안의 分財記



'율곡 이이
선생가 분재기'



함께 해 보기

글을 읽고, 최정현의 행동 중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토론해 보자. 또, 나와 친구들의 의견을 말풍선 안에 적어 보자.

최정현이 열아홉 살 때, 아버지가 편찮아 고양(高陽)의 시골집에서 한양으로 약을 구하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 최정현이 즉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먹 이자 아버지가 깨어났고 그 뒤로 9년을 더 살았으니,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하늘이 감응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대풍요(昭代風謠)”



사진 속 가훈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으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한문으로 된 가훈이나 교훈·급훈 등을 찾아 의미를 알아보자.

家訓
家和萬事成



실력 다지기

1

<보기>에서 한자를 골라 어휘를 완성해 보자.



未, 末, 始, 谷, 初, 勇

- (1) 最 맨 처음. (2) 来: 앞으로 올 때. (3) 作: 어떤 일의 처음 단계.

2

() 안에 들어갈 성어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三伏
- ② 道德的
- ③ 匹夫之勇
- ④ 兩性平等
- ⑤ 天井不知



에구머니,
값이 ()로/으로
올랐네.

[3 ~ 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夫婦, 人倫之始, 萬福之原, ⑦所關至重.
- ⑨眉叟曰 “均是父母之子, 我不可獨有家也.”
- 其母曰 “⑪他日答, 子未嘗泣, ⑫今泣, 何也?”, 對曰 “⑩愈得罪, 答常痛, 今母之力, ⑫不能使痛. 是以, 泣.”

3

⑦~⑪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하는) 바’라고 풀이한다.
- ② ⑪은 ‘훗날’이라는 뜻이다.
- ③ ⑫은 의문문이다.
- ④ ⑩은 효성스러운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⑤ ⑫은 ‘~할 수 없다’라고 풀이한다.

4

⑨가 주장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보자.

- ① 공평
- ② 평균
- ③ 욕심
- ④ 고집
- ⑤ 질서

단원 갈무리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此日彼日, 比例代表, 新郎, 新種, 親和, 家親, 坐視, 輕視, 拾得, 所得, 大驚失色, 夫人, 漁夫, 婦人, 主婦, 慶賀, 祝賀, 貞節, 忠貞, 貧困, 貧弱, 財產, 財界, 堅持, 扶持, 特別, 特採, 語句, 佛語, 說破, 浪說, 云云, 異國, 判異, 同一, 混同, 匹夫之勇, 祭天, 天井不知, 未決, 未來, 末伏, 年末, 始作, 始祖, 初夏, 最初

(2) 학습 용어의 활용

- 地理書, 地圖, 情報, 八道地理志, 律令, 公認, 法典, 建立, 家族, 世界化, 兄弟姊妹, 尊重, 兩性平等, 共有, 共同體, 發達

2 한자의 쓰임

(1) 而: ~해서, 그리고

- 男子二十而冠 有爲人父之端: 남자가 스무 살이 되어서 관례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될 단서가 있어서이다.

(2) 以~爲…: ~을 …로 삼다

-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 爲德談: 과거 합격이나 승진, 아들 낳으라, 돈 많이 벌라는 등의 말을 덕담으로 삼다.

(3) 乎: ~과(와)

- 國之語音 異乎中國: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4) 所: ~된(한) 바

- 夫婦 人倫之始 萬福之原 所關至重: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요하다.

3 문장의 구조 – 주술목 보 구조

我朝 + 得 + 之 + 於高麗: 조선이 고려에서 그것을 얻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 문장의 유형 – 의문문

• 今泣은 何也오?: 지금 우는 것은 왜냐?

5 문장 풀이하기

(1) 我國東西南, 皆大海, 船無有不通.: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큰 바다 이니, 배가 통하지 않음이 없다.

(2) 我國婚禮, 於吉夕燭出, 納新婦.: 우리나라의 혼례는 길한 날 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신부를 맞아들인다.

(3) 欲使人入, 易習, 便於日用耳.: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4) 對曰 “兪得罪, 答常痛, 今母之力, 不能使痛, 是以, 泣.”: 대답하기를 “제가 죄를 지음에 매가 항상 아팠더니 지금 어머니의 힘이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옵니다.”라고 하였다.

VI

뜻을 세우고 학문의 세계로

20.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21. 우리 고전 속의 자연 과학

22. 예술에 혼을 바친 사람들



‘입지(立志)’는 ‘뜻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다. 선인들은 뜻을 굳건히 세운 다음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죄선을 다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 부유함을 믿고 자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고심했던 어머니의 이야기, 귀천을 따지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임을 주장한 글, 집념의 예술가 이야기 등이다. 아울러 예체능과 수학에 관련된 글도 배우게 된다. 이런 글들을 통해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 보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則’, ‘以爲’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일화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우리 고전 속 자연 과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한 예술가의 일화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20.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들을 훌로 키운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밭에 묻어 두었던 은덩이를 가져와서는 아들, 며느리, 손자를 불러 놓고 말했어요.

吾於三十年前에 治圃得此니 而還掩之라.

第念汝輩尚幼한데 家富而無教면 則恐不得成人이라.

"이향견문록"¹⁾

한(漢)나라 장군 이광은
북방의 흥노들이 비장군(飛將軍)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전하죠.
그런데 하루는…….



廣^{*}이 出獵 할새 見草中石 하고 以爲虎而射之하니
中石沒鏃한데 視之하니 石也라. 因復更射之니
終不能復入石矣라. "사기"²⁾

前(전) 앞

*圃(포) 밭

*還(환) 돌아오다

*掩(엄) 가리다

第(제) 차례/다만

汝(여) 너

*輩(배) 무리

尚(상) 송상하다/아직

*幼(유) 어리다

富(부) 부자

*恐(공) 두려워하다

廣(광) 넓다

*獵(렵) 사냥하다

*見(견) 보다

草(초) 풀

虎(호) 호랑이

射(사) 쏘다

*沒(몰) 가라앉다/박히다

*鏃(족) 화살촉

因(인) 인하다

更(갱) 다시/(경) 고치다

終(종) 마치다/끝내

矣(의) 어조사

*質(질) 바탕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則', '以爲'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일화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則: ~하면

- 家富而無教 則恐不得成人: 집이 부유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두려웠다.

(2) 以爲: ~라고 여기다

- 廣出獵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광이 사냥 나갔다가 풀 속에 있는 돌을 보고 호랑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쏘았다.

- 則: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 구실을 함.
- 不得: ~할 수 없다.
- 成人: ① 사람다운 사람이 됨.
② 어른.

- 廣: 이광(李廣)을 가리킴.

2. 문장 풀이하기

- 吾於三十年前에 治圃得此나 而還掩之라. | 내가 30년 전에 채 소밭을 가꾸다가 은을 얻었으나 도로 그것을 묻어 버렸다.
- 第念汝輩尙幼한데 | 다만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아직 어린데
- 中石沒鎛한데 視之하니 石也라. | 돌에 맞아 화살촉이 박혔는데 그것을 보니 돌이었다.
- 因復更射之나 終不能復入石矣라. | 그래서 다시 그것을 쏘았으나 끝내 다시 돌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 治: 다스리다. 여기서는 '(채소밭을) 가꾼다'는 의미.
- 此: 여기서는 '은'을 가리킴.
- 中石沒鎛: 돌에 박힌 화살촉이라는 뜻으로, 정신(精神)을 집중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
- 不能: ~할 수 없다.
- 復(부): 다시.
- 入石: '(화살촉을) 돌 속으로 들어가게 하다'의 의미.



주몽

주몽(朱蒙)은 활쏘기에 천부적인 素質이 있었다. 그는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百發百中이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했다. 그는 훗날 고구려를 세운다.

*廣(광): 중국 한(漢)나라 때의 무인인 이광(李廣, ?~B.C.119).

1)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조선 후기의 문인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이 쓴 인물 행적기.

2) 사기(史記): 한(漢)나라 무제 때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이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저술한 고대의 역사서.



이광의 묘

1. 뜻이 비슷한 한자

見 (견)	보다/견해	淺見
視 (시)	보다	近視

- 淺見: 얕은 생각이나 견해.
- 近視: 가까운 데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것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시력.

2. 음이 같은 단어 - '성인'

- 成人教育 - 殺身成仁 - 聖人君子

- 成人: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 成仁: 인을 이룸.
- 聖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리를 본받을 만한 사람.

3. 끝말잇기

- 未收 → 收入 → 入浴 → 浴室
- 郡邑 → 邑治 → 治世 → 世波

- 邑治: 조선 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
- 世波: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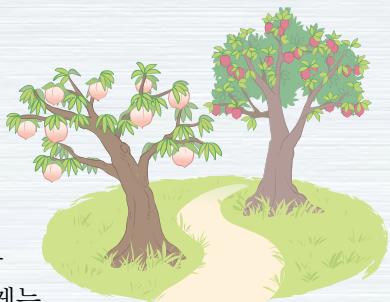


殺身成仁
이란?

공자가 말했다.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을 이룬다[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여기에서 나온 ‘殺身成仁’이라는 말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마천은 이광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광은 성품이 청렴해 상을 받으면 항상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음식을 먹어도 부하들과 같은 것을 먹었다. 죽을 때까지 40여 년간 관리로 있었지만 집에는 여분의 재산이 없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복승아와 오얏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그의 인간됨을 칭찬한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사람이 모여드는데, 이광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광의 손자 이릉 역시 장군으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릉은 흥노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항복하여 포로가 되고 만다. 조정에서는 이릉을 비난하는데, 이때 사마천이 나서서 “이릉은 공이 많고, 이릉이 지금 죽지 않고 적에게 넘어간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변호한다. 한 무제는 화를 내며 사마천에게 궁형이라 는 벌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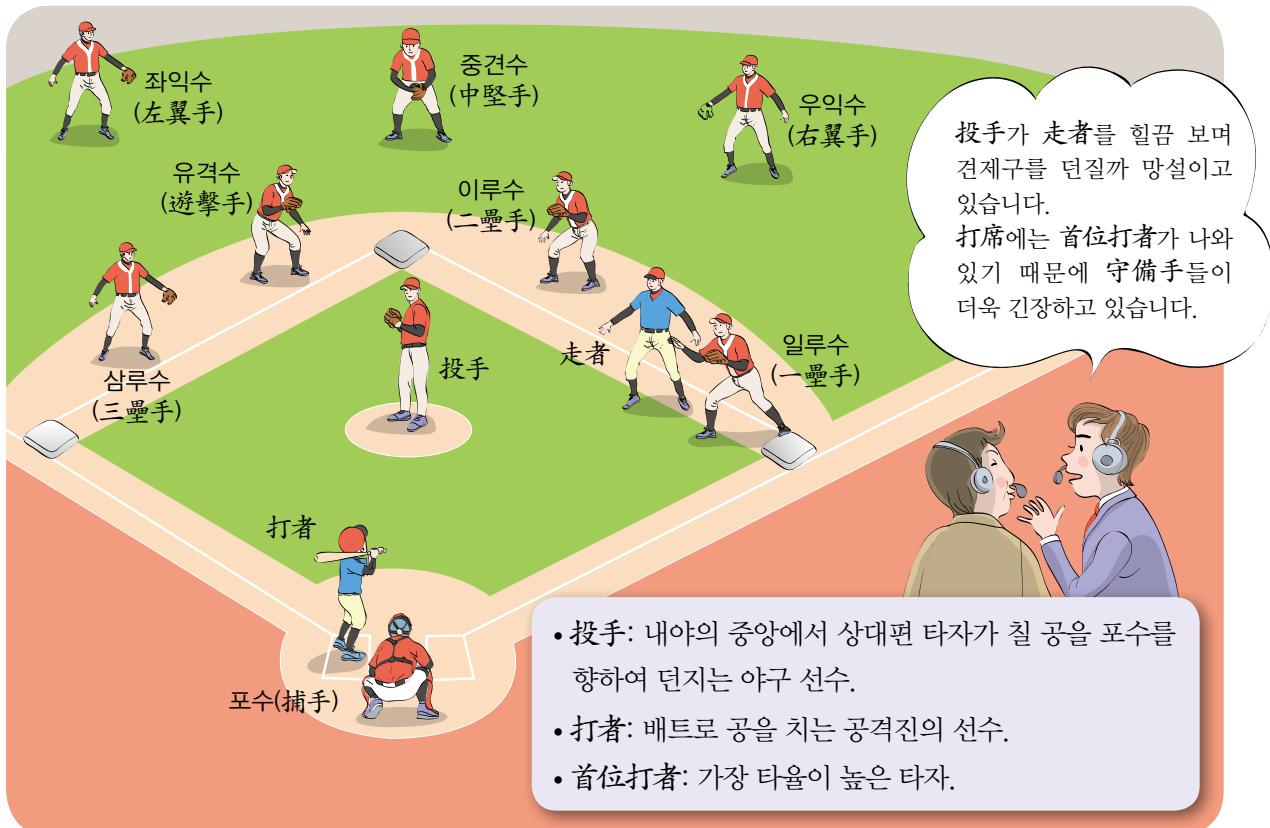


이광과 그의 손자 이릉



학습 용어의 활용

야구(野球) 관련 용어



남산의 석호정

석호정(石虎亭)은 서울의 남산 기슭 장충동에 있는 정자이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황학정(黃鶴亭)이 조선 시대의 왕들과 관료들이 활을 쏜 곳이라면 석호정은 주로 민간인들이 활을 쏜 곳이다. 한국 전쟁 때 건물과 함께 모든 자료가 없어져서 왜 정자 이름을 ‘石虎’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광의 고사에서 따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정자는 1956년 이곳에 있던 노인정을 보수한 것이라고 한다.

淺(천) 얕다

殺(살) 죽이다

收(수) 거두다

浴(욕) 목욕하다

室(실) 집/방

郡(군) 고을

邑(읍) 고을

投(투) 던지다

打(타) 치다

席(석) 자리

首(수) 머리

守(수) 지키다

備(비) 갖추다



함께 해 보기

<예시>에 있는 사마천 관련 이야기처럼, 다음에 제시한 조건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 학습 노트에 적어 보자.

- 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을 소개한 기사나 이야기를 찾는다.
가) 가난을 딛고 성공한 사람. 나) 장애를 극복한 사람.
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사람.
- ② 내용을 공책에 옮겨 적는다.
- ③ 기사나 이야기 중에 나오 주요 한자 어휘를 한자로 바꾼다.



무제는 시종에게 명하여 당장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심문하게 한 다음 궁형에 처한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수치스러워 죽고자 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죽기를 포기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마련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내가 죽으면 내 문장이 후세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한 그는 결국 위대한 역사서인 “사기”를 완성한다.

- 중요(重要)
- 태산(泰山)
- 문장(文章)
- 후세(後世)
- 사기(史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출판물에는 나라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한자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獨·佛 등 반전국에 요청
“탕감 땐 재건 참여 고려”

‘살인 독감’ 美 확산
어린이 20여명 사망



실력 다지기

1

대화의 밑줄 친 ‘성인’을 각각 한자로 써 보자.

(1)

지난번 화재에서
살신성인한 의인에게
훈장이 추서된대.



(2)

공자는 식견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기에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



(3)

나도 어서 성인이 되어
모든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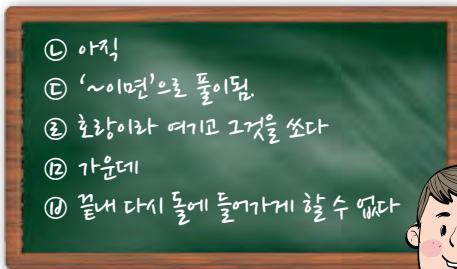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⑦吾於三十年前, 治圃得此, 而還掩之. 第念汝輩尚幼, 家富而無教, ⑧則恐不
得成人.
- 廣, 出獵, 見草中石, ⑨以爲虎而射之, ⑩中石沒鏃, 視之, 石也. 因復更射之, ⑪
終不能復入石矣.

2

칠판에 적힌 ①~⑪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⑦ ② ⑩ ③ ⑨
④ ⑪ ⑤ ⑫ ⑥ ⑬



3

⑦이 자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20자 내외로 써 보자.

21. 우리 고전 속의 자연 과학

옛날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 함께
풀어 봅시다.



今有人分銀하되 每人分七兩이면 餘四兩이요,
每人分九兩이면 少十二兩이라. 問하노니 人數及銀數는
各若干이오? “산학정의”¹⁾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일까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

醫는 治病者也라. 不計貴賤하고 人有病病이면
必往하여 鍼醫者鍼하고 藥醫者藥하여 以生之라.
此는 古之常然之道라. “백곡집”²⁾

1) 산학정의(算學正義): 조선 말기 고종 때 천문학자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지은 수학책.

2) 백곡집(栢谷集): 조선 중기의 시인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시문집.

銀(은) 은

每(매) 매양

餘(여) 남다

及(급) 미치다/～와(과)

各(각) 각각

千(간) 방패

醫(의) 의원

計(계) 셈하다

貴(귀) 귀하다

*賤(천) 천하다

*鍼(침) 바늘/침놓다

古(고) 예

然(연) 그러하다



본문 깊이 보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우리 고전 속 자연 과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선인들의 직업의식에 관한 글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1. 한자의 쓰임

○ 及: ~와(과)

- 問人數及銀數各若干: 물노니, 사람의 수와 은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 若干: ① 얼마. ② 조금.

2. 문장 풀이하기

- 今有人分銀하되 |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은을 나누는데
- 每人分七兩이면 餘四兩이요, 每人分九兩이면 少十二兩이라. | 1명당 7냥씩 나누어 가지면 4냥이 남고, 1명당 9냥씩 나누어 가지면 12냥이 부족하다.

- 有: 어떤.
- 兩(냥): 화폐 단위.
- 少: 적다. 즉 '부족하다'는 의미.



문제 풀이

사람 수를 x 라 하고, 은의 총 수량을 y 라 하면,
 $y = 7x + 4 \cdots ①$, $y = 9x - 12 \cdots ②$ 라고 방정식을 제시한 뒤,
②식에서 ①식을 빼면, $0 = 2x - 16$, 따라서 $x = 8 \cdots ③$,
③을 ①에 대입하면, $y = (7 \times 8) + 4 = 60$.
그러므로 사람 수는 8명, 은의 총 수량은 60개이다.

- 醫는 治病者也라. 不計貴賤하고 人有病病이면 必往하여 | 의사 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세가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 鍼醫者鍼하고 藥醫者藥하여 以生之라. | 침의는 침을 놓고 약의는 약을 처방하여 이로써 그를 살린다.
- 此는 古之常然之道라. | 이것은 예전의 늘 그래왔던 도리이다.

- 者: ~하는 사람.
- 病病: 병이 위중하다.

- ‘鍼醫’는 침을 놓는 의사, ‘藥醫’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 常然: 항상 그러한. 즉 항상 변함없는.



“산학정의”(왼쪽)
김득신 독서상(오른쪽)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若 (약) 같다	明若觀火
苦 (고) 쓰다/괴롭다	苦杯, 忍苦

- 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 忍苦: 고로움을 참음.

2. 뜻이 비슷한 한자

道 (도) 길/도리	柔道, 赤道
路 (로) 길	街路, 鐘路

- 赤道: 지구의 자전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지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른 평면과 지표와의 교선.

3. 끝말잇기

• 臥病 → 病中 → 中華 → 華婚

• 華婚: 결혼을 달리 일컫는 말.



은행의
기원

'行'의 뜻에는 '가다, 다니다' 외에 '가게'라는 뜻이 있다. 예전에 화폐로 銀을 사용했는데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했다. 銀을 맡아 주고 삽을 받는 가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銀行이라고 했다.



의사(醫師) 조광일(趙光一)

조광일은 침술로 이름이 있었다. 조광일의 오두막을 지나다 보니 어떤 노파가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아들이 아파 죽게 되었답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그럼시다.”

조광일은 즉시 일어나 걸음을 놓으며 조금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그대의 재주로 어찌 명성을 얻지 않고 천한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는가?”

조광일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세상 의원들이 제 의술을 믿고 남에게 교만하게 굴며 서너 번 청을 한 뒤에야 응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또 그들이 가는 곳도 귀인의 집이 아니면 부잣집이며, 만약 가난한 집이면 백 번을 청해도 한 번도 일어서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의 인정이겠습니까? 저의 소임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救해 주는 것입니다.”



“이계집(耳溪集)”에서



학습 용어의 활용



수학 관련 용어



- 수는 물건의 다소, 대소, 위치, 순서와 計算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생긴 것으로 자연수에서 시작하여 정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虛數, 복소수 등으로 확장되어 발전되었다.
 - 分數: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로 분모와 분자로 구성된다. 真分數, 假分數 등이 있다.
 - 有理數: 理致에 맞는 수. 즉 정수나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한다.
- 對角線: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이은 선분을 말한다.



혜민서와 광혜원

혜민서(惠民署)는 조선 시대 때 의약과 서민의 치료를 맡았던 국립 병원이었다. 고려 시대의 혜민국을 이어 1392년(태조 1)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고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이라 했던 것을 1466년(세조 12) 혜민서라 개칭하였다.

광혜원(廣惠院)은 미국 선교사 알렌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알렌은 甲申政變 때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해 준 인연으로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고종의 도움으로 1885년에 광혜원을 개원했다. 이 병원은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외에 한양 都城 내의 환자를 치료하던 활인서가 있었다.



광혜원

苦 (고) 쓰다/괴롭다 路 (로) 길 救 (구) 구원하다 致 (치) 이르다	杯 (배) 잔 街 (가) 거리 自 (자) 스스로 角 (각) 뿔	忍 (인) 참다 鐘 (종) 쇠북 算 (산) 셉하다 申 (신) 아홉째 지지	赤 (적) 붉다 臥 (와) 눕다 虛 (허) 비다 變 (변) 변하다	柔 (유) 부드럽다 華 (화) 빛나다 眞 (진) 참 城 (성) 성
--	---	---	---	---



함께 해 보기

다음은 전통적인 수학 문제이다. 문제와 풀이를 연결한 뒤 정답을 써 보자.

(1)

良馬가 行三十五日 하되
毎日에 行一百七十里라.
問合行里하면 幾何오?

①

일 년은 열두 달이요, 매월은 삼십
일이라면 (일 년은) 며칠인가?
<정답>

(2)

歲一十二月이요, 每月
三十日이면 問爲日幾何
오?

②

세 사람씩 수레를 타면 수레 두 대
가 비고, 두 사람씩 타면 아홉 사람이
걸어가야 한다. 사람과 수레는 각 얼
마인가?
<정답>

(3)

三人共車면 二車空이요,
二人共車면 九人步라.
問人與車는 各幾何오?

③

좋은 말이 35일을 가되 매일 170리
를 간다. 가는 거리를 합산하면 얼마
인가?
<정답>



‘미용실(美容室)’ 이란 ‘용모를 아름
답게 해 주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주
변에서 한자로 쓰인 간판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잘못된 한자를 바르게 고쳐 보자.

어제 축구 시합에서
우리 반이 若杯를
마셨어.

훈련을 제대로 안 했으니
明苦觀火지. 내가 출전했더
라면 거뜬히 이겼을 텐데.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今有人分銀, 每人分七兩, 餘四兩, 每人分九兩, 少十二兩. 問, 人數及銀數, 各若干?

(나) 醫, 治病者也. 不計貴賤, 人有病病, 必往, 鍼醫者鍼, 藥醫者藥, 以生之. 此,
古之常然之道.

2

(가) 글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풀어 보자.



3

(나)에서 밑줄 친 ‘古之常然之道’는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풀어 써 보자.

22. 예술에 혼을 바친 사람들



명필은 재주로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李掌令* 命殷은 瘡於書라. 雖在路上이라도
常執木枝以行하며 曰 “不可一刻忘執筆之法也라.”
하더니 竟以筆名世하다. “형설기문”¹⁾

그림 그리기를
지독하게 좋아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李澄이 幼登樓而習畫 러니, 家失其所在 라가
三日乃得이라. 父怒而笞之 어늘 泣引淚而成鳥 하니,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라. “연암집”²⁾

*掌令: 조선 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

1) 형설기문(螢雪記聞): 조선후기 이극성(李克誠, 1721~1779)이 지은 인물 일화집.

2) 연암집(燕巖集): 조선 후기 관료이며 문장가인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시문집.

李(리) 오얏/성

執(집) 잡다

名(명) 이름

引(인) 끌다

*掌(장) 손바닥

*刻(각) 새기다/시각

*澄(징) 맑다

*淚(루) 눈물

*殷(은) 나라 이름

忘(망) 잊다

*樓(루) 다락

*謂(위) 이르다

*痡(벽) 벼룩

筆(필) 붓/글씨

乃(내) 이애

榮(영) 영화

雖(수) 비록

*竟(경) 마침내

怒(노) 성내다

*辱(욕) 욕되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雖: 비록 ~라 하더라도

- 雖在路上 常執木枝以行: 비록 길 가는 중이더라도 항상 나뭇가지를 쥐고 다녔다.

(2) 可: ~할 수 있다

-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 이는 그림에서 영욕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路上: 길 위, 즉 길 가는 도중이라는 의미.

• 忘榮辱於畫者也: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여 명예나 모욕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
 • 於: ~에서.

2. 문장 읽고 풀이하기

• 李掌令命殷은 癖於書라. | 장령 이명은은 글씨 쓰기를 지나치게 좋아했다.

• 掌令: 조선 시대에, 사헌부에 속한 정4품 벼슬.

• 不可一刻忘執筆之法也. | 잠시라도 붓을 잡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 癖於書: 글씨 쓰기에 버릇이 있다는 뜻으로 '붓글씨 쓰기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한다'는 의미.

• 竟以筆名世하다. | 끝내 글씨로 세상에 이름나다.

• 不可: ~해서는 안 된다.

• 李澄이 幼登樓而習畫려니 |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고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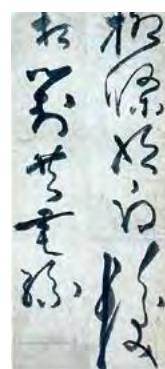
• 一刻: 15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짧은 시간' 혹은 '잠시'의 의미.

• 家失其所在라가 三日乃得이라. | 집에서는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사흘이 되어서야 찾았다.

• 乃: 곧, 이에.

• 父怒而笞之어늘 泣引淚而成鳥하니, |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때리자 울면서 눈물을 끌어다가 새를 그리니,

• 成鳥: '새를 완성하다'의 뜻.



이명은의 글씨



이징의 그림



1. ‘亡’이 쓰인 한자

忘 (망) 잊다	忘恩, 勿忘草
忙 (망) 바쁘다	公私多忙
望 (망) 바라다	觀望, 希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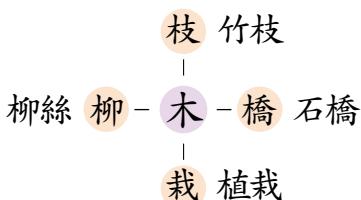
- 公私多忙: 공적 · 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쁨.
- 觀望: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2. ‘成’이 쓰인 한자

城 (성) 성	都城, 土城
盛 (성) 성하다	茂盛, 昌盛

- 都城: 도읍지의 성이란 말로 ‘서울’을 이름.

3. ‘木’을 부수로 하는 한자



- 柳絲: 버들가지.
- 植栽: 초목을 심어 재배함.



물망초



영국의 루돌프는 연인 펠타를 위해 꽃을 꺾다가 미끄러져 강물에 빠졌다. 꽃을 펠타에게 던지며 “나를 잊지 말아주오.”라고 하며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꽃이 勿忘草이다.

“산야초 식물도감”에서



음악을 향한 김성기의 집념

김성기는 왕세기에게 거문고를 배웠는데, 왕세기가 신곡을 만들면 김성기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김성기는 밤마다 왕세기의 집 앞으로 가서 왕세기가 연습하는 곡을 창문에 귀를 대고 몰래 들으며 익혀 이튿날 아침이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연주했다. 왕세기가 이상하게 여겨 밤에 거문고를 타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자 김성기가 놀라 땅바닥에 거꾸러졌다. 김성기의 음악에 대한 탁월한 眼目과 노력을 가상히 여긴 왕세기는 자신이 지은 곡을 모두 전수해 주었다.



“추재집”에서



학습 용어의 활용

미술 관련 용어

전시회 소식

국립 미술관에서는 ‘한국인의 일상’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선조들의 다양한 水墨畫, 油畫, 風景畫 등의 미술 작품과 함께 병풍, 불화, 가구, 도자기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 안경(安堅), 수묵 산수화



월하정인(月下情人)
- 신윤복(申潤福), 수묵 채색화

한문 속 문화 읽기

화제

畫題란 ‘그림의 제목’이라는 뜻이지만, 간혹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 또는 그림을 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적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秀作 중의 하나로 제자인 이상적에게 준 ‘세한도’라는 작품이다. 화제는 ‘歲寒圖’인데, 옆에 장문의 글이 있어 왜 ‘세한도’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제주도로 유배 간 후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이 상적은 자기를 잊지 않고 중국에서 구입한 귀한 서책을 보내 준 것에 대해, 공자가 “한 해가[歲] 추워진[寒] 뒤에 소나무·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즉 어려운 처지의 자신에게 한결같이 스승으로 대하는 제자를 상록수인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세한도
- 김정희(金正熙), 한글



歲寒圖
- 김정희(金正熙), 수묵 화

茫(망) 망하다	恩(은) 은혜	忙(망) 바쁘다	私(사) 사사롭다	希(희) 바라다	盛(성) 성하다
茂(무) 우거지다	昌(창) 창성하다	柳(류) 벼들	絲(사) 실	橋(교) 다리	栽(재) 심다
植(식) 심다	眼(안) 눈	墨(묵) 먹	油(유) 기름	景(경) 볕	秀(수) 빼어나다



함께 해 보기

1

나의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고, 후대에 평가받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2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보자.

시기	해야 할 일	실천 계획
현재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표지판이다. 각각 안전에 주의하라는 ‘주의 안전(注意安全)’,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금지 입내(禁止入内)’, 여행객에게 더 이상 오지 말고 멈추라는 ‘유객지보(游客止步)’이다. 한자를 알면 한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실력 다지기

1

() 안에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보자.



望, 忙, 亡, 忘

公私多()한 가운데에도
성황을 이뤄 주셔서 축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希()이
보입니다.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李掌令命殷，癖於書。雖在路上，常執木枝以行，曰“不可⑦一刻忘執筆之法也。”
 ⑦竟以筆名世。
- (나) 李澄，幼登樓而習畫，家失其所在，三日乃⑧得。父怒而笞之，泣引淚而⑨成鳥。此可謂忘榮辱於畫⑩者也。

2

⑦~⑩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① ⑦: 잠시 | ② ⑧: 끝내 | ③ ⑨: 찾다 |
| ④ ⑩: 새를 잡다 | ⑤ ⑪: ~한 사람 | |

3

(가)와 (나)의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 보자.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淺見, 近視, 成人教育, 殺身成仁, 聖人君子, 未收, 收入, 入浴, 浴室, 郡邑, 邑治, 治世, 世波, 明若觀火, 苦杯, 忍苦, 柔道, 赤道, 街路, 鐘路, 臥病, 病中, 中華, 華婚, 忘恩, 勿忘草, 公私多忙, 觀望, 希望, 都城, 土城, 茂盛, 昌盛, 竹枝, 柳絲, 石橋, 植栽

(2) 학습 용어의 활용

- 投手, 打席, 打者, 首位打者, 虛數, 真分數, 假分數, 有理數, 對角線, 水墨畫, 油畫, 風景畫

2 한자의 쓰임

(1) 則: ~하면

- 家富而無教 則恐不得成人: 집이 부유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두려웠다.

(2) 以爲: ~라고 여기다

- 廣出獵 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광이 사냥 나갔다가 풀 속에 있는 돌을 보고 호랑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쏘았다.

(3) 及: ~와(과)

- 問人數及銀數各若干: 물노니, 사람의 수와 은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4) 雖: 비록 ~라 하더라도

- 雖在路上常執木枝以行: 비록 길 가는 중이더라도 항상 나뭇가지를 쥐고 다녔다.

3 문장 풀이하기

(1) 第念汝輩尙幼: 다만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아직 어린데

(2) 因復更射之, 終不能復入石矣.: 그래서 다시 그것을 쏘았으나 끝내 다시 돌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3) 醫, 治病者也, 不計貴賤, 人有病病, 必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세가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4) 鍼醫者鍼, 藥醫者藥, 以生之: 침의는 침을 놓고 약의는 약을 처방하여 이로써 그를 살린다.

(5) 不可一刻忘執筆之法也.: 잠시라도 붓을 잡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父怒而笞之, 泣引淚而成鳥: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때리자 울면서 눈물을 끌어다가 새를 그리니

VII

시와 인생

23. 달이 뜨면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25. 왜 사냐건, 웃지요

시는 옛 문인들의 필수 교양이었으며, 과거 시험의 필수 과목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선인들의 삶에서 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였던 셈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시를 배우고 창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선인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시 짓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야말로 시는 인생의 거울과도 같고, 자신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단원에서는 어린이가 쓴 천진난만한 시, 한 지식인의 고독하고 괴로운 심정을 읊은 시, 낭만적인 시인이 인생을 달관한 시 등 세 편의 한시를 배우게 된다. 이 단원에 제시된 한시를 읽고 감상하면서 선인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고, 한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알아보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오언 절구와 칠언 절구 한시를 바르게 낭송한다.
- 시구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여 한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한다.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의 내용을 이해한다.
- 한시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한시의 감상을 통해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이해한다.

23. 달이 뜨면



조선 시대 어린이들도 시를 썼을까? 당연히 그 시절에도 어린이들은 시를 배우고 창작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어린이가 쓴 시를 통해 선인들의 정서와 감정을 함께 느껴 보자.

日落月復出 하니

天地晝夜明 이라.

長留今夜月 이면

天地何時冥 이리오? 이현석¹⁾



1) 이현석(李玄錫, 1647~1703): 조선 후기의 문신. 호는 유재(游齋)로 지봉 이수광의 증손이다.

晝(주) 낮

留(류) 머무르다

*冥(명) 어둡다

兒(아) 아이

證(증) 증거

神(신) 귀신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암운법을 익혀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한다.
- 조선 시대의 동시를 통해 선인들의 정서를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시의 이해

- 형식: 오언 절구
- 운자: 明, 冥
- 주제: 밤하늘을 밝히는 달을 노래함.

2. 한시의 특징 – 암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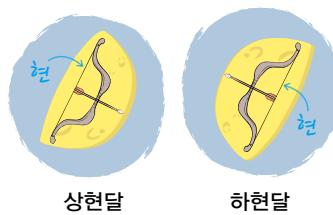
한시에서 시구의 끝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방법을 암운법(押韻法)이라고 하며, 이때 암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3. 한시 읽고 시구 풀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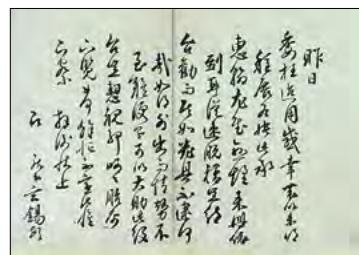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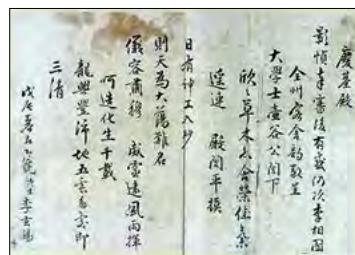
日落月復出(일락／월부출)하니	해가 지고 달이 다시 뜨니
天地晝夜明(천지／주야명)이라.	온 세상이 밤낮으로 밝아요.
長留今夜月(장류／금야월)이면	오늘 밤 달을 길이 붙잡아 두면
天地何時冥(천지／하시명)이리오?	온 세상이 언제인들 어둡겠어요?

덤!
+
상현달과
하현달

'현(弦)'이란 '활시위'를 말한다. 상현(上弦)달은 매달 음력 7, 8일경에 나타나는 반달로, 현이 위쪽에 위치하고 등근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달이다. 그와 반대로, 하현(下弦)달은 매달 음력 22, 23일경에 나타나는 반달로, 현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등근 부분이 위쪽에 위치하는 달이다.



상현달 하현달



이현석의 시(왼쪽)와 간찰(오른쪽)



이해와
감상

兒童이 지은 시를 童詩라고 한다. 이 시는 이현석이 6세에 지은 것으로 제목은 '月出'이다. 해가 지고 달이 떠서 밤도 낮처럼 환하니, 오늘 밤에 뜬 달을 오래도록 붙잡아 둔다면 세상은 항상 밝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현석의 천재성을 證明하는 작품으로, 운자까지 맞추어 지은 五言絕句 시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모두 놀라며 그를 神童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일상 용어의 활용

1. 뜻이 상대적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長短	長 (장) 길다 長壽, 課長	
	短 (단) 짧다 短身, 短針	• 短針: 짧은 바늘. 시계에서, 시를 가리키는 짧은 바늘.
古今	古 (고) 예 古松, 古瓦	• 古瓦: 옛 기와.
	今 (금) 이제 今昔, 昨今	
明暗	明 (명) 밝다 分明, 證明	
	暗 (암) 어둡다 暗香, 暗黑	• 暗香: 그윽이 풍기는 향기.

2. 뜻이 비슷한 어휘

- 天地 - 乾坤 - 世界
- 春秋 - 年歲 - 年齒
- 歲月 - 光陰 - 星霜
- 天地: 하늘과 땅. 온 세상.
- 齒: 이. 나이.
- 星霜: 세월. 별은 일 년에 한 바퀴를 돌고 서리는 매해 추우면 내린다는 뜻으로, 한 해 동안의 세월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재미로
읽는
漢文

오세신동 김시습

김시습은 3세에 시를 지었고, 5세에는 “중용”과, “대학”을 익혀 사람들이 ‘신동’이라 불렀다. 당시의 정승인 허조(許稠)가 “내가 늙었으니 ‘늙을로(老)’ 자를 사용해서 시를 지어 보아라.” 하였다. 김시습이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老木開花心不老].”라고 하자, 허정승이 무릎을 치며 찬탄하기를 “이 아이가 이른바 神童이구나!”라고 하였다.

그의 소문을 들은 세종 대왕이 승정원에 불러 詩才를 시험하니 과연 뛰어났다. 임금은 비단을 하사하며 장성하면 장차 크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로부터 이름을 온 나라에 펼쳐 ‘오세신동’라고만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패관잡기”, “매월당집”에서



김시습

課(과) 매기다	短(단) 짧다	針(침) 바늘	松(송) 소나무	瓦(와) 기와
昔(석) 예	昨(작) 어제	暗(암) 어둡다	香(향) 향기	乾(건) 하늘
坤(곤) 땅	齒(치) 이	星(성) 별	支(지) 지탱하다/지지	連(련) 있다
仰(양) 우러르다	崇(송) 높이다	拜(배) 절하다	乙(을) 둘째 천간	丙(병) 셋째 천간
戊(무) 다섯째 천간	庚(경) 일곱째 천간	辛(신) 여덟째 천간	壬(임) 아홉째 천간	癸(계) 열째 천간



학습 용어의 활용



干支 - 천간과 지지

간자란 60갑자의 단위를 이루는 天干과 地支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간지를 이용하여 연도나 시간 등을 나타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띠를 열두 지지를 상징하는 동물과 連結시켰으며, 民間信仰에서는 그 동물들을 崇拜하기도 했다.

-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십이지신상 중 말(통일 신라)



지지로 나타낸 시간

○간지의 활용

- 六十甲子: 간지를 하나씩 조합하여 60년의 이름을 만들었다.
甲子, 乙丑, 丙寅, 丁卯 …
- 지지를 이용하여 시간을 나타냈다.
- 천간을 이용하여 서기(西紀)로 된 연도의 끝자리를 알 수 있다.

간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연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0년	~1년	~2년	~3년

예를 들면, 壬辰왜란은 1592년, 甲午개혁은 1894년의 일이다.



시화에 나타난 神童 이야기

시화(詩話)란 시와 시인에 관한 이야기로, 보통 한문학에서는 시에 관한 비평 · 해설 · 고증과 시인의 일화 따위를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을 일컫는다. 시화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난 詩才를 발휘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다음 이야기도 그중 하나이다.



채수(蔡壽)에게 무일(無逸)이라는 손자가 있었다. 눈이 내려 쌓인 날, 채수가 다섯 살 난 손자 무일을 업고 눈 위를 걷다가 시구를 짓기를, “개가 달려가니 매화가 떨어지네[犬走梅花落].”라고 한 다음, 무일에게 대구를 짓게 하자 무일은 “닭이 걸어가니 땃잎이 생기네[鷄行竹葉成].”라고 대답했다.

“연려실기술”에서

丑(축) 둘째 지지

寅(인) 셋째 지지

卯(묘) 넷째 지지

辰(진) 다섯째 지지

午(오) 일곱째 지지

酉(유) 열째 지지

戌(술) 열한째 지지

亥(해) 열두째 지지



함께 해 보기

본문에서 배운 ‘月出’ 시를 ‘나의 학습 노트’에 적고 분석해 보자.

시구	日	落	月	復	出
음, 뜻	(일) 해	(락) 지다	(월) 달	(부) 다시	(출) 뜨다
풀이	해가 지고 달이 다시 뜨니				
시구	天	地	晝	夜	明
음, 뜻					
풀이					
시구	長	留	今	夜	月
음, 뜻					
풀이					
시구	天	地	何	時	冥
음, 뜻					
풀이					
문자					
주제					
느낌					



사진은 어느 음식점의 이름이다. ‘맛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미락(味樂)’이라 쓰여 있다. 음식점의 간판에 쓰인 한자를 찾아 그 뜻을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다음을 참조하여 자신이 태어난 해를 간지(干支)로 나타내어 보자.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1999년은 己卯년,
2000년은 庚辰년
이니까...”



[2 ~ 3]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日落月復出, 天地晝夜明.
長留今夜月, 天地何時冥?

2

밑줄 친 ‘天地’ 와 의미가 비슷한 한자 어휘를 두 개 이상 써 보자.

3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시는 어린이가 지은 것이야.



②

시의 형식은 오언 절구지.



③

‘3자/2자’로 끊어 읽어야 해.



④

운자는 ‘明’과 ‘冥’ 이야.



⑤

밤하늘을 밝히는 달을 노래하고 있어.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상적(感傷的)으로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다. 더구나 온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차가운 비마저 내린다면 그 감정은 더욱 쓸쓸하고 고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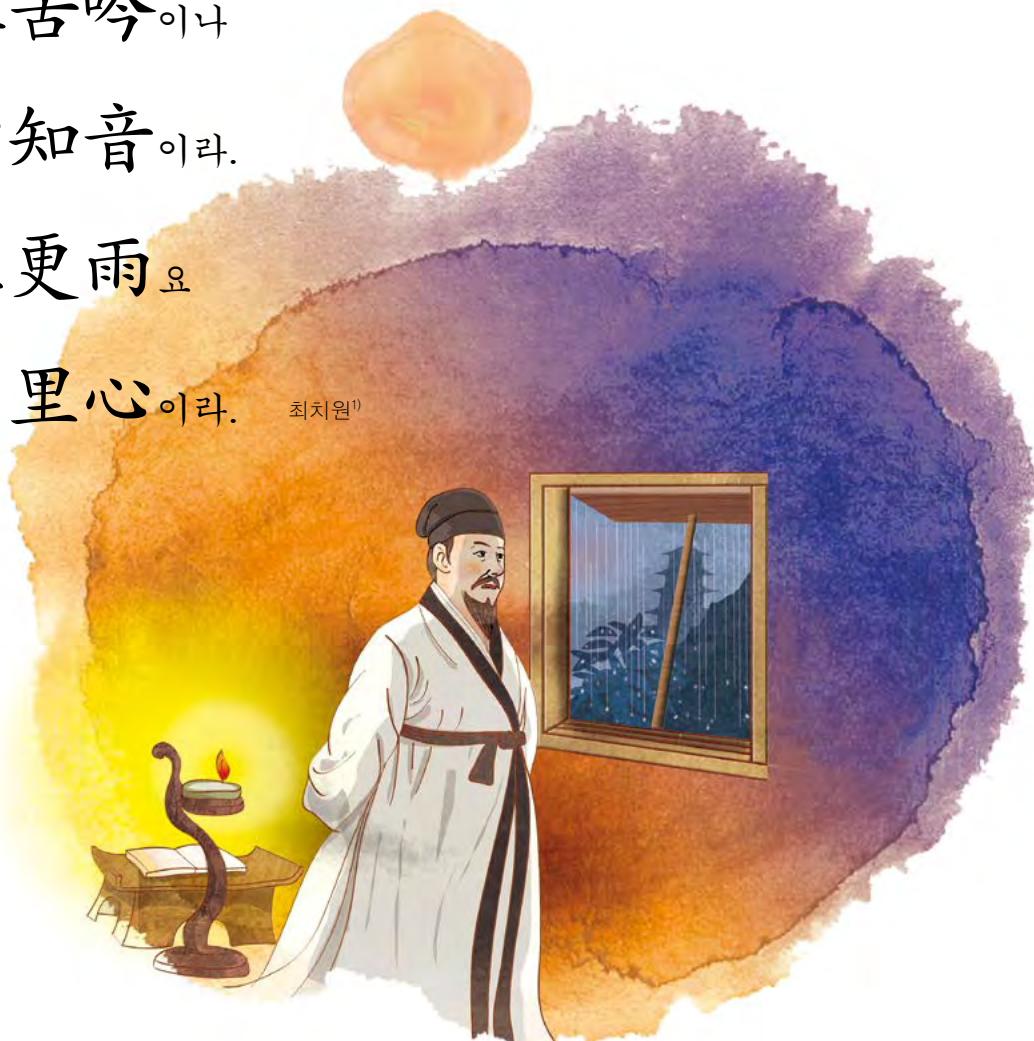
秋風唯苦吟이나

舉世少知音이라.

窗外三更雨요

燈前萬里心이라.

최치원¹⁾



1) 최치원(崔致遠, 857~?): 통일 신라 말기의 학자·문장가. 자는 고운(孤雲)·해운(海雲). 저서에 “계원필경” 등이 있다.

唯(유) 오직

吟(음) 읊다

舉(거) 들다/모든

窓(창) 창

雨(우) 비

燈(등) 등불

解(해) 풀다

限(한) 한계

哀(애) 슬프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대우법을 익혀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한다.
- 한시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시의 이해

- (1) 형식: 오언 절구
- (2) 문자: 吟, 音, 心
- (3) 주제: 비 오는 가을밤의 고독한 심경.

- 오언 절구의 운자는 주로 제2, 4구에 위치하며, 제1구에 오는 경우도 있다.

2. 한시의 특징 – 대우법

자수와 구법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이용하여 상반되거나 상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窓外 三更 雨
 ↓ ↓ ↓
 燈前 萬里 心

- ‘窗外三更雨’와 ‘燈前萬里心’은 장소와 장소, 시간과 공간, 자연물과 마음이 각각 서로 대우를 이루고 있다.

3. 한시 읽고 풀이하기

秋風唯苦吟(추풍唯유고음)이나 |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읊어도
 擧世少知音(거세少소지음)이라. | 온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요 | 창밖엔 한밤중 비만 내리고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이라. | 등불 앞에 마음만 아득하여라.

- 오언시는 보통 ‘2자/3자’로 끊어 읽는다.
- 擧世: 온 세상
- 知音: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
- 三更: 한밤중. 보통 23시~1시 사이를 가리킴.



확인 • 위 시를 끊어 읽기에 유의하여 토를 붙여 낭송해 보자.



백아의 친구인 종자기는 백아가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만 듣고도 백아의 생각을 모두 理解했다. 이 때문에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뜻을 가진 ‘知音’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거문고



‘秋夜雨中’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최치원의 시이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당나라 유학 시절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라고도 하고, 귀국 후 신분의 限界에 가로막혀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悲哀를 표현한 시라고도 한다. ‘秋風’, ‘苦吟’, ‘少知音’, ‘三更雨’, ‘萬里心’ 등 거의 모든 시어에 시인의 쓸쓸함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1. 부수가 같은 한자 – 입 구(口)

告 (고) 알리다	勸告 (권) 권하다	同 (동) 같다	同乘 (동승) 같은 차에 타다
否 (부) 아니다	否決 (부결) 거부·반대	哉 (재) 어조사	快哉 (가자이) 기쁠 때
吹 (취) 불다	吹入 (취인) 흡수·흡입	和 (화) 화목하다	講和 (강화) 평화로운 상태

- 快哉: 일 따위가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김. 또는 그럴 때 나는 소리.
- 講和: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雨 (우) 비	雨露 (우루) 비
兩 (량) 둘	兩脚 (량과) 두 다리

마각이
드러나다

'馬脚'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말의 다리' 이지만, 속뜻은 '가식하여 숨긴 본성이나 진상'이다. 이 말은 중국 원(元)나라 때의 희곡에서 유래했는데, 말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데서 생긴 말이다.



최치원의 노력

최치원의 신분으로는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신라에서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최치원의 아버지 견일(肩逸)은 열두 살 먹은 최치원을 당나라로 유학 보내면서 '10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라'고 당부한다. 6년 뒤 최치원은 18세의 나이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賓貢科)에應試하여 장원으로 합격한다. 훗날 최치원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친의 이 엄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감히 잊지 않고, 졸음을 이기려고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묶고 허벅지를 찌르기를 쉴 새 없이 하여 길러 주신 뜻에 부합하여 하였다. 실제로 '남이 백 번에 하면 나는 천 번 하는 (人百己千)' 노력으로 과거 보러 온 지 6년 만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계원필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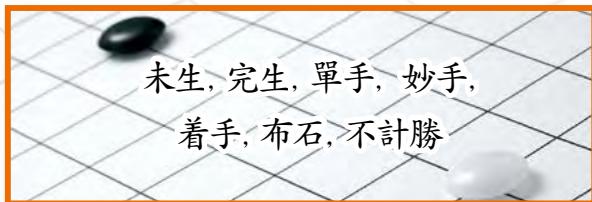
告(고) 알리다	勸(권) 권하다	乘(승) 타다	否(부) 아니다	哉(재) 어조사
吹(취) 불다	講(강) 강론하다	露(로) 이슬	甘(감) 달다	脚(각) 다리
應(응) 응하다	試(시) 시험하다			



학습 용어의 활용

바둑 용어

기록에 의하면 바둑의 歷史는 約 5천 년 정도 된 것으로 推定된다. 물론 꼭 믿을 수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바둑이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오락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이세돌 9 단과 인공 지능인 알파고와의 대결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 未生: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
- 完生: 집이나 돌이 완전히 살아 있는 상태. (↔未生)
- 單手: 단 한 수만 더 두면 상대의 돌을 땅내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
- 妙手: 생각해 내기 힘든 좋은 수.

- 着手: 바둑돌을 바둑판에 번갈아 한 수씩 두는 일.
- 布石: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여 놓는 일.
- 不計勝: 집 수의 차가 많은 것이 뚜렷하여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김.

한문 속
문화 읽기

최치원과
바둑에 얹힌
일화

우리나라에 바둑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치원에 얹힌 일화를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추라는 사람이 종에게 편지를 써 주며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 두 老人이 마주 앉아 있을 것이니 너는 回答을 받아 오너라.”라고 하였다. 종이 가 보니 과연 한 道人과 노승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종이 便紙를 전하자 도인은 웃으며, “나는 이미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니 바둑이 끝나자 편지 한 통과 青玉으로 된 바둑돌을 주었다. 종이 산에 간 때는 가을이었는데, 산에서 나올 때는 어느새 봄이 되어 있었다. 바둑 한 판을 두는 동안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도인이 바로 최치원이라고들 한다.

歷(력) 지내다

約(약) 약속하다/대략

推(추) 밀다

存(존) 있다

完(완) 완전하다

單(단) 훌

妙(묘) 묘하다

着(착) 불다

布(포) 배/펴다

勝(승) 이기다

回(회) 돌다

紙(지) 종이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 161



함께 해 보기

한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보자.

<1장>

- ① 네 명으로 한 모둠을 만든다.
- ② A4 용지에 각자 시구를 하나씩 쓰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린다.
- ③ 시의 순서에 맞추어 각각의 그림을 시구의 의미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秋風唯苦吟이나

窗外三更雨요

舉世少知音이라.

燈前萬里心이라.



사진은 최치원의 유적지임을 표시하는 비석이다. ‘고운 최선생 문창후 유허비(孤雲崔先生文昌侯遺墟碑)’라고 적혀 있다. 여행지나 유적지 등에 있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비석을 찾아 거기 적힌 한자의 뜻을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밑줄 친 한자의 음과 뜻을 구별하여 써 보자.

(1) 雨露

雨極

(2) 否決

快哉

[2 ~ 3]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秋風唯苦吟 (나) 舉世少知音

(다) 窓外三更雨 (라) 燈前萬里心

2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 보자.

제목	秋夜雨中
형식	
운자	(), (), ()
토를 달고 끊어 읽기 (‘∨’ 표시)	秋風唯苦吟(), 舉世少知音(). 窗外三更雨(), 燈前萬里心().

3

시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은이는
최치원 선생이야.

② (가)와 (나)는 대우를
이루고 있어.

⑤ 시인은 ‘知音’ 이
없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어.

③ 주제는 아름다운
가을밤의 정경이네.

④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잘 드러나 있어.



25. 왜 사냐건, 웃지요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를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자.

問余何意栖碧山 고?

笑而不答心自閑 이라.

桃花流水杳然去 하니

別有天地非人間 이라.



이백¹⁾

1) 이백(李白, 701~762):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青蓮居士).

余(여) 나

意(의) 뜻

*栖(서) 깃들이다/살다

閑(한) 한가하다

流(류) 흐르다

*杳(묘) 아득하다

間(간) 사이

仙(선) 신선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칠언 절구 한시의 특징을 이해한다.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의 내용을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시의 이해

- (1) 형식: 칠언 절구
- (2) 문자: 山, 閑, 間
- (3) 주제: 속세를 떠나 사는 삶의 정취.

- 칠언 절구 한시의 운자는 주로 제1, 2, 4구의 끝에 위치한다.

2. 한시의 특징 –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전개 방식

- 기구(起句): 시상을 불러일으킴.
- 승구(承句): 시상을 이어 받아 확대 · 발전시킴.
- 전구(轉句): 시상을 전환하거나 비약시킴.
- 결구(結句):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 일반적으로 절구 시의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이다.

3. 한시 읽고 풀이하기

問余何意栖碧山(문여하의▽서벽산)고?

| 무슨 생각에 푸른 산에 사느냐 내게 묻기에

- 칠언시는 보통 '4자/3자'로 끊어 읽는다.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부답▽심자한)이라.

| 웃기만 하고 대답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다.

- 而: ~하고.
- 不答: 부답(○), 불답(×)

桃花流水杳然去(도화유수▽묘연거)하니

|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떠가니

- 人間: 인간 세상.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이라.

| 따로 있는 세상이지 인간 세상은 아니어라.

념!
+
別有天地
非人間

"꽃 사이에 잠든 학은 자취 소리에 자주 날고, 가지 위에 두견새는 불여귀를 회답하니 '別有天地非人間' 이라." 판소리계 소설인 "별주부전"에서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온 자라가 아름다운 육지 풍경에 감탄하는 장면이다. 여기 나오는 '別有天地非人間'은 바로 이백의 시 구절이다.



판소리



이해와
감상

'山中問答' 혹은 '山中答俗人'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백의 시이다. 왜 화려한 삶을 버리고 산속에 사느냐는 물음에 그저 미소로 답하면서 흐르는 물에 떠가는 복숭아 꽃잎을 가리키는 모습에서 마치 속세를 떠난 신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백은 詩仙으로 불릴 만큼 기상이 호방하여 세속에 얹매이기를 싫어했는데, 이 시에도 그러한 그의 사상과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일상 용어의 활용

1. ‘門’이 쓰인 한자

問 (문)	묻다	探問, 家庭訪問
間 (간)	사이	田間, 指呼之間
聞 (문)	듣다	聽聞, 聞一知十
開 (개)	열다	開放, 公開競爭
閉 (폐)	닫다	密閉, 閉戶先生
閑 (한)	한가하다	閑靜, 忙中有閑

- 指呼之間: 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운 거리.
- 閉戶先生: 집 안에 틀어박혀 독서만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忙中有閑: 바쁜 가운데 한가한 겨울이 있음.(=忙中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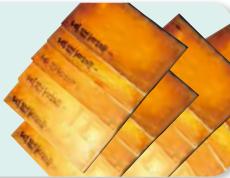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意 (의)	뜻	厚意, 意思表示
億 (억)	억	億兆, 億萬長者

- 億萬長者: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덤
+
조선 시대의
億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서 ‘億(100,000,000)’은 ‘萬의 만 배’를 뜻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十萬(100,000)’을 의미했다. 多讀으로 유명한 김득신이 “백이전(伯夷傳)”을 1억 1만 3천 番 읽었다고 하는데, 지금 단위로는 1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의미이다.



詩仙과 詩聖

한시는 중국 당나라 때 크게 發展했는데, 그 시절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이다. 이백은 기상이 호방하고 낭만적인 시인으로, 시의 신 선이라는 의미에서 ‘詩仙’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 이에 반해 두보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시를 많이 창작했으며, 시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정교하여 시의 성인이라는 의미에서 ‘詩聖’이라 불리었다. 한편, 두 사람은 중국 詩史에 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이두(李杜)’라고도 부른다.



이백

두보

探(탐)	찾다	庭(정)	뜰	訪(방)	찾다	指(지)	가리키다	呼(호)	부르다	聽(청)	듣다
競(경)	다투다	閉(폐)	닫다	密(밀)	빽빽하다	靜(정)	고요하다	厚(후)	두텁다	示(시)	보이다
億(억)	억	兆(조)	조짐/일조	番(번)	차례	展(전)	펴다	葉(엽)	잎	料(료)	헤아리다
果(과)	열매/결과	增(증)	더하다	急(급)	급하다	減(감)	덜다	鄉(향)	고향	滿(만)	차다
幸(행)	다행	待(대)	기다리다								



학습 용어의 활용



식물의 광합성

植物은 세포 속의 葉綠體에서 물과 이산화 탄소를 材料로 빛에 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光合成을 한다. 광합

성 結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빛

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

합성의 양이 增加하

지만,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광합성의 양은 오히려

急減한다.

온도가 낮은 겨울에 식물을 溫

室에서 기르는 것은 適當한 온도가 유

지되어야 光合成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문 속 문화 읽기

복사꽃 핀
理想鄉
- 무릉도원

중국 진(晉)나라 때, 무릉에 사는 한 漁夫가 배를 타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 버렸는데 우연히 복사꽃이 滿發한 숲을 발견했다. 숲 끝까지 가자 동굴이 나타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곳에는 기름진 땅과 연못이 있고, 옷차림도 바깥세상과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幸福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진시황의 난을 피해 들어와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어부를 응승하게 待接한 그들은 그곳의 존재를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바깥세상으로 나온 어부는 약속을 어기고 고을의 태수에게 말하여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다.





함께 해 보기

본문에서 배운 이백의 시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모둠별 UCC를 만들어 보자.



- ① 4명 내외로 모둠을 구성한다.
- ② 배우(2명), 연사, 촬영과 편집을 맡을 친구 등을 정한다.
- ③ 시의 내용에 맞는 배경(학교나 집 근처 나무나 숲 등)을 정한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배경으로 인물을 합성할 수도 있다.)
- ④ 배우들이 시의 내용에 맞게 연기하면, 연사가 한시 시구를 읊는다.
- ⑤ 마지막에는 모든 모둠원이 함께 본문의 한시를 읊으며 끝맺는다.
- ⑥ 촬영한 내용을 편집하여 모둠별로 상영하고 함께 평가해 본다.(각 항목 10점 만점)

항목별	모둠별	1	2	3	4
1. 배우의 연기와 변사의 역할이 적절했는가?		점	점	점	점
2. 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했는가?		점	점	점	점
3. 배경이 시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점	점	점	점
4. 내용이 창의적이고 재미있었는가?		점	점	점	점
5. 모둠원 모두가 시를 다 암송하고 있는가?		점	점	점	점
총점		점	점	점	점



임금이 쓴 글씨를 어필(御筆)이라고 한다.
사진은 조선 영조의 어필로 ‘건구고궁(乾九
古宮)’이다. 박물관이나 고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필을 찾아 사진으로 찍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다.)





실력 다지기

1

밑줄 친 어휘를 한자로 쓰고, 그 의미를 사전 등을 통해 조사해 보자.



(1) 식물은 세포 속의 엽록체에서 물과 이산화 탄소를 (2) 재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3)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4)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2 ~ 3]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問余何意栖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2

시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형식은 칠언 절구야.
- ②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 이군.
- ③ 제1구와 제2구에는 대우법이 쓰였네.
- ④ 읽을 때는 '4자/3자'로 끊어 읽어야 해.
- ⑤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시인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

3

제시된 한시와 아래 시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자.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長壽, 課長, 短身, 短針, 古松, 古瓦, 今昔, 昨今, 分明, 證明, 暗香, 暗黑, 天地, 乾坤, 世界, 春秋, 年歲, 年齒, 歲月, 光陰, 星霜, 勸告, 同乘, 否決, 快哉, 吹入, 講和, 雨露, 甘雨, 兩脚, 兩極, 探問, 家庭訪問, 田間, 指呼之間, 聽聞, 聞一知十, 開放, 公開競爭, 密閉, 閉戶先生, 閑靜, 忙中有閑, 厚意, 意思表示, 億兆, 億萬長者

(2) 학습 용어의 활용

-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酉, 戌, 亥
- 歷史, 推定, 現存, 未生, 完生, 單手, 妙手, 着手, 布石, 不計勝, 植物, 葉綠體, 材料, 光合成, 結果, 增加, 急減, 溫室, 適當

2 오언 절구-달이 뜨면

日落月復出(일락▼월부출)하니	해가 지고 달이 다시 뜨니
天地晝夜明(천지▼주야명)이라.	온 세상이 밤낮으로 밝아요.
長留今夜月(장류▼금야월)이면	오늘 밤 달을 길이 붙잡아 두면
天地何時冥(천지▼하시명)이리오?	온 세상이 언제인들 어둡겠어요?

(1) 형식: 오언 절구

(2) 문자: 明, 冥

(3) 주제: 밤하늘을 밝히는 달을 노래함.

(4) 전개 방식: 기-승-전-결

3 오언 절구-가을밤, 비
는 내리는데

秋風唯苦吟(추풍▼유고음)이나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읊어도
舉世少知音(거세▼소자음)이라.	온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요	창밖엔 한밤중 비만 내리고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이라.	등불 앞에 마음만 아득하여라.

(1) 형식: 오언 절구

(2) 문자: 吟, 音, 心

(3) 주제: 비 오는 가을밤의 고독한 심경.

(4) 전개 방식: 기-승-전-결

4 칠언 절구 - 왜 사나
건, 웃지요

問余何意栖碧山(문여하의▼서벽산)고? 무슨 생각에 푸른 산에 사느냐 내게 묻기에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부답▼심자한)이라. 웃기만 하고 대답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다.
桃花流水杳然去(도화유수▼묘연거)하니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떠가니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이라. 따로 있는 세상이지 인간 세상은 아니어라.

(1) 형식: 칠언 절구

(2) 문자: 山, 閑, 間

(3) 주제: 속세를 떠나 사는 삶의 정취.

(4) 전개 방식: 기-승-전-결

VIII

인간과 인간

26. 아내의 충고

27. 묵적동 선비, 허생

28. 자연의 주인은



선인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기록하였는데, 그중에는 후세에 길이 남을 만한 명문장들이 있다. 이러한 명문장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남편에게 충고한 아내들의 이야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허생의 사연, 자연과 더불어 인생을 즐겼던 소동파의 낭만적인 글이 실려 있다. 선인들이 남긴 명문장의 학습을 통해 한문 산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명문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자.

단원 학습 목표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허사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대화체로 이루어진 한문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감상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해한다.

26. 아내의 충고



남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聞夫子責人에 聲氣過厲하니

此非中道也
이것은 중도가 아니이다.

如是而設或正其人이라도

己先不正한데 其可乎?
아무리 그를 고치려 해도 그가 되는지 알 수 있나?

願加審思하소서. “정일당유고”¹⁾



“정일당유고”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군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死生命也니 君子는

不可失正이니이다.

況未必死者乎리오?

窮荒嶺海라도 何所不可居리오?

卽君行을 吾當相隨耳리이다. “계곡집”²⁾



1)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 조선 후기의 여류 문인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의 시문집.

2) 계곡집(谿谷集):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장유(張維)의 시문집.

聲(성) 소리

氣(기) 기운

過(과) 지나다

*厲(려) 사납다

設(설) 베풀다

或(혹) 혹시

願(원) 원하다

*審(심) 살피다

死(사) 죽다

*況(황) 하물며

*荒(황) 거칠다

*嶺(령) 재

卽(즉) 곧

*隨(수) 따르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耳’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1) 沉~乎: 하물며 ~이랴?

• 沉未必死者乎: 하물며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님에랴?

• 未必: 반드시 ~하지는 않다(부분 부정).

(2) 耳: ~일 뿐이다

• 吾當相隨耳: 나도 마땅히 따라갈 뿐입니다.

2. 문장 풀이하기

• 聞夫子責人에 聲氣過厲하니 此非中道也니이다. | 당신이 사람을 꾸짖을 때에 소리의 기세가 너무 엄하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 夫子: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

• 如是而設或正其人이라도 己先不正한테 其可乎아? | 이렇게 해서 설령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바르지 않은데 그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 中道: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庸(中庸)의 도.

• 死生命也니 君子는 不可失正이니이다. |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군자는 정도(正道)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 設或: 설령.

• 窮荒嶺海라도 何所不可居리오? | 궁벽한 산골짜기나 황량한 바닷가라도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습니까?

• 可: 옳다.



왕의 딸을 가리키는 말로 ‘공주(公主)’와 ‘옹주(翁主)’가 있다. 그중 ‘공주’는 왕과 정실 왕비 사이에서 난 딸을, ‘옹주’는 왕과 후궁 사이에서 난 딸을 말한다. 한편, ‘대군(大君)’은 왕과 왕비 사이에서 난 아들을, ‘군(君)’은 왕과 후궁 사이에서 난 아들을 말한다.



덕혜옹주 조선 고종과 후궁인 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다. 정일당은 편지에서 남편 윤광연에게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에도 중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선조(宣祖)의 넷째 딸인 정숙옹주(貞淑翁主)는 남편이자 부마(駙馬)인 신익성(申翊聖)이 광해군이 내릴 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겠다며 남편에게 정도를 지킬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에는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충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 보자.



일상 용어의 활용

1.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過 (과)	지나다	看過
	허물	過失
	지나치다	過猶不及

- 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느 뜻.

2. 뜻이 비슷한 한자

音 (음) 소리	舌音, 不協和音
聲 (성) 소리	名聲, 肉聲

- 肉聲: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3. 모양이 비슷한 한자

思 (사) 생각	深思, 見利思義
恩 (은) 은혜	恩惠, 恩重泰山

- 恩重泰山: 은혜가 태산처럼 중함.

4. 끝말잇기

- 氣溫 → 溫暖 → 暖流 → 流水



行列

‘行列’은 ‘행렬’, ‘항렬’ 두 가지로 읽는다. ‘행렬’은 여렷이 줄지어 가는 것이고, ‘항렬’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에 대한 대수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어가 행렬(재현)



황제에게 충고하여 황후가 된 종리춘

전국 시대 제나라에 종리춘이라는 노처녀가 있었다. 추녀였던 그녀는 시집을 못 가게 되자, 자신이 남편을 고르겠다고 單刀直入의로 궁궐로 갔다. 임금은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종리춘은 果敢하게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는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위태로운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위태로운데 나라에는 간신들이 得勢하고 백성들은 忠誠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는 주연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광대놀음에 날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종리춘의 眞價를 알아본 임금은 누대를 헐고 간신과 아첨배를 몰아낸 뒤 길일을 택해 그녀를 황후로 맞이했다.



제나라 선왕을 만나는 종리춘
“열녀전”에서



학습 용어의 활용



인간 居住에 영향을 주는 요인



• 居住

- 사람들은 宅地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가운데 자연환경과 관련된 조건은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居住 지역을 선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 植生

- 전통적으로 지형, 기후, 植生, 토양 등의 자연환경 조건은 인간 生活에 반드시 필요한 農業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交通

- 自動車 · 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는 것으로, 사회, 문화, 交通 등의 인문 환경 조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문 속
문화 읽기

**왕의 사위
'부마'**

‘부마(駙馬)’란 왕의 사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국서(國婿)’라고도 부른다. 부마는 본래 말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정식 명칭은 ‘부마도위(駙馬都尉)’였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이나 진(晉)나라의 두예(杜預) 등이 모두 皇帝의 사위로서 부마도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왕의 사위를 나타내는 칭호가 되었다.

“삼국지 · 위지(魏志)”에서



看(간) 보다	猶(유) 오히려/같다	舌(설) 혀	協(협) 돋다	肉(육) 고기	深(심) 깊다
惠(혜) 은혜	暖(난) 따뜻하다	列(렬) 줄	刀(도) 칼	敢(감) 감히	勢(세) 세력
誠(성) 정성	價(가) 값	住(주) 살다	選(선) 가리다	宅(택/댁) 집	活(활) 살다
農(농) 농사	皇(황) 임금	帝(제) 임금			



함께 해 보기

미래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과 내가 배우자에게 해 주고 싶은 일에 대한 다짐을 적고, 그 까닭을 써 보자.

바라는 것: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까닭: 아이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짐: 흡연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까닭: 간접흡연 역시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배우자에게

- 바라는 것:

- 까닭:

- 다짐:

- 까닭: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공시생(公試生)’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줄임말이다. 신문에 실린 한자를 찾아보고 그 뜻을 풀 이해 보자.

**公試生 25만명
'열풍' 이유있었네**

기업 취준생의 2배… 역대 최대

우리 사회에 공시 열풍이 부는 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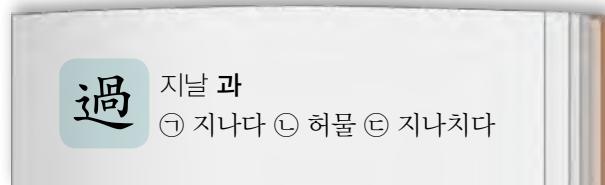


실력 다지기

1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밑줄 친 ‘過’의 뜻을 구별해 보자.

- (1) 그는 자기의 過失을 인정했다.
- (2) 모든 일은 過猶不及이어야 한다.
- (3) 그 사건의 진실한 내막은 看過되고 말았다.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聞①夫子責人，聲氣過厲，此非②中道也。如是而③設或正其人，已先不正，其可乎。願加審思。

(나) 死生命也，君子，不可失正。（④）未必死者乎。窮荒嶺海，何所不可居。卽君行，吾當相隨⑤耳。

2

①~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

- ① ①은 ‘남편’ 이란 뜻이지.
- ② ②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와 의미가 통해.
- ③ ③은 ‘설령’의 뜻이지.
- ④ ④의 ()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는 ‘況’ 이야.
- ⑤ ⑤은 ‘귀’라는 뜻이지.

3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다.
- ② (가)는 ‘남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③ (나)의 밑줄 친 ‘君’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 ④ (나)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는 정도(正道)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⑤ 이 두 글을 통해 공통으로 본받을 수 있는 가치관은 ‘애정 어린 충고’이다.

27. 묵적동 선비, 허생



서울 남산 아래 묵적동(墨積洞), 두세 칸 되는 초가집에 허생이 살았다. 허생은 생계는 뒷전인 채 글 읽기에만 몰두하니, 그의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겨우 하루하루를 견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一日에 妻甚饑하여 泣曰

“子平生不赴舉하니 讀書何爲오?”

許生笑曰 “吾讀書未熟이로다.”

妻曰 “不有工乎아?”

生曰 “工은 未素學하니 奈何오?”

妻曰 “不有商乎아?”

生曰 “商은 無本錢하니 奈何오?”

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터니 只學奈何로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연암집”¹⁾

1) 연암집(燕巖集): 조선 후기에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시문집.

妻(처) 아내

甚(심) 심하다

*饑(기) 주리다

*赴(부) 가다

*熟(숙) 익다

*奈(내) 어찌

商(상) 장사

*錢(전) 돈

*恚(에) 성내다

*且(자) 또

*罵(매) 욕하다

*盜(도) 훔치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대화체로 이루어진 한문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문장의 유형 – 의문문

- 讀書何爲: 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2. 문장 풀이하기

- 一日에 妻甚饑하여 泣曰 “子平生不赴舉하니 讀書何爲오?” | 하루는 아내가 몹시 굶주려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러 가지 않으니 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 不有工乎아? | 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 工은 未素學하니 奈何오? | 공업은 본래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소?
- 不有商乎아? | 상업이 있지 않습니까?
- 商은 無本錢하니 奈何오? | 상업은 밑천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 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터니 只學奈何로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 그 아내가 성내고 또한 욕하며 말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단지 ‘어찌하겠소’ 만 배웠나 보군요. 공업도 안 되고, 상업도 안 되면 왜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 子: 당신.
- 舉: ‘과거’의 의미.
- 乎: 문장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어의 어기를 나타낸다.
- 素: ‘본래’의 의미.
- 奈何: ‘어찌하겠소?’의 의미.

- 只: ‘단지’의 의미.

3. 본문 더 보기 – 감탄문

- 惜乎라! 吾讀書는 本期十年인데 今七年矣라.: 아깝구나! 내가 글을 읽기로는 본래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이다.

-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生’은 ‘독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요즘의 ‘학생’에 해당한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이생’도 ‘이 씨 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뜻이다.



허생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공부만 하자, 아내가 기술을 배우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생계에 관심을 써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후 허생은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다. “허생전”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대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문 소설이다. 이 작품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연암집”

1. 모양이 비슷한 한자

與	(여) 주다	給與, 授與
興	(흥) 일어나다	興起, 興亡

• 興起: 떨치고 일어남.

2. 뜻이 비슷한 한자

金	(금) 돈	賞金, 賞金
錢	(전) 돈	錢穀, 金錢
書	(서) 글, 책	書案, 書店
冊	(책) 책	冊房, 製冊
卷	(권) 책	開卷有益

• 錢穀: 돈과 곡식.



서안



‘金氏’, ‘金泉’, ‘金海’ 등과 같이 姓氏나 지역 명칭으로 쓰일 때에는 주로 ‘김’으로 읽지만, ‘現金’, ‘金石’ 등과 같이 ‘돈’이나 ‘쇠’ 등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금’으로 읽는다.

- 製冊: 책을 만드는 일.
- 開卷有益: 책을 읽으면 이로 움이 생김.



“허생전” 그 후의 이야기

허생은 공부를 중단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 당시 한양의 갑부인 변 씨(卞氏)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려 물품의 集散地에서 매점매석으로 많은 돈을 번다. 이후 변산에 숨어 사는 도둑들을 설득하여 무인도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3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凶年이 든 일본의 장기(長岐, 나가사키)에 팔아 백만 냥을 벌게 된다. 빌린 돈을 갚은 뒤 변 씨와 친해지자, 하루는 변 씨가 이완(李浣) 大將을 허생에게 소개한다. 이완은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허생에게 비웃음 만 사고 돌아간다. 허생의 非凡한 인품을 알게 된 이완은 그를 기용하고자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허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給(급) 주다
店(점) 가게
卷(권) 책

授(수) 주다
案(안) 책상
氏(씨) 성씨

賞(상) 상
冊(책) 책
姓(성) 성

貯(저) 쌓다
房(방) 방
散(산) 흩어지다

穀(곡) 곡식
製(제) 짓다
凶(흉) 흉하다



학습 용어의 활용

국제 거래에 관한 용어



국제 去來에서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생산 요소의 移動이 국가 안에서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수입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通關 節次를 거쳐야 하며, 關稅 부과 등으로 交易量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나라에 就業을 할 경우에는 국내와는 다른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다른 국가와 거래할 때 법률, 문화, 관습 등의 차이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거래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 去來: 주고받음. 또는 賣買.
- 節次: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順序나 방법.
- 關稅: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貨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苦難의
가시밭길,
과거 급제

조선 시대 양반들은 누구나 과거 급제를 꿈꾸었다.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와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길이요,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선조로 기록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문과에 급제하는 영예를 누린 사람은 연평균 30여 명에 그쳤는데, 그중 최연소 합격자는 15세의 이건창이고, 최연장 합격자는 83세의 晚學徒 박문규이다.

‘화성행행도’ 중 ‘낙남현방방도’
과거 시험 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모습을 그린 기록화(1795년, 정조 19년).



凡(범) 무릇/범상하다 移(이) 옮기다

賣(매) 팔다

晚(만) 늦다

次(차) 버금/차례

序(서) 차례

稅(세) 세금

貨(화) 재화

就(취) 나아가다

難(난) 어렵다



함께 해 보기

지금을 허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라 가정하고, 가상으로 기자가 되어 허생을 인터뷰하고 그 기사를 작성해 보자.

허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회적 진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고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
공부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부르게
사회에 진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10년 동안 공부를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허생에게 질문할 내용

허생의 대답(예상)



강릉에 있는 ‘오죽헌(烏竹軒)’의 현판으로, 주변에 검은 대나무[烏竹]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건물 명칭이 한자로 표기된 것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이 그림은 ‘책가도’이다. 그림 속에 보이는 사물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보자.



[2 ~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一日妻甚饑, 泣曰 “子平生不赴舉, ①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生笑曰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 生曰 “工未素學, 奈何?” 妻曰 “不有商乎?” 生曰 “商無本錢, 奈何?” ④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2

의문문에 유의하여 ①의 풀이 순서에 맞도록 한자 카드를 알맞게 배열해 보자.

爲

讀

何

書



3

밑줄 친 ④와 관련 있는 그림을 골라 보자.

①



②



③



④



⑤



28. 자연의 주인은



소동파와 손님이 가을밤에 배를 띄워 놓고 노닐다가 손님이 인생무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소동파가 말한다.

且夫天地之間에 物各有主하니

苟非吾之所有면 雖一毫라도 莫取라.

惟江上之清風과 與山間之明月은

耳得之而爲聲하고 目遇之而成色이니

取之無禁이요 用之不竭이라.

是造物者之無盡藏也요

而吾與子之所共適이라.

“소동파전집”¹⁾



1) 소동파전집(蘇東坡全集):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편찬한 시문집(詩文集).

*苟(구) 진실로

*毫(호) 터럭

莫(막) 없다

取(취) 가지다

*惟(유) 생각/오직

遇(우) 만나다

禁(금) 금하다

*竭(갈) 다하다

造(조) 짓다

*藏(장) 감추다/곳집

樂(락) 즐기다/(악) 풍류//(요) 좋아하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활용한다.
-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감상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해한다.



본문 깊이 보기

1. 한자의 쓰임

○ 雖: 비록 ~라 하더라도

- 苟非吾之所有 雖一毫 而莫取: 진실로 내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털 오라기 하나라도 가질 수 없다.
- 苟: 진실로.

2. 문장 풀이하기

• 且夫天地之間에 物各有主하니 | 또한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으니

• 夫: 대저.

• 惟江上之清風과 與山間之明月은 | 오직 강 위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 與: ~과(와).

• 耳得之而爲聲하고 目遇之而成色이니 | 귀로 그것을 얻어 소리가 되고 눈으로 그것을 만나 빛을 이루니

• 之: 그것.

• 取之無禁이요 用之不竭이라. |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고, 그것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 子: 당신.

• 是造物者之無盡藏也요 而吾與子之所共適이라. | 이것은 조물주의 다함 없는 창고요,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것이다.

• 適: 즐기다.



'무진장(無盡藏)'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진(無盡)'은 다함이 없다는 뜻이고 '장(藏)'은 창고이므로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뜻이 된다.



천지의 물건은 다 주인이 있으므로, 내 것이 아니면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연은 정해진 주인이 없어서 자연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세상은 관점에 따라 변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무상에 빠지지 말고, 저 자연이 무한정으로 선물하는 바람과 달의 주인으로서 樂園인 자연을 누려 보자. 이 작품은 선인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명문으로, 원제목은 '적벽부(赤壁賦)'이다.

1. ‘青’이 쓰인 한자

青	淸 (청) 맑다	淸涼, 淸淨
	請 (청) 청하다	申請, 招請
	精 (정) 자세하다/찡다	精米所
	晴 (청) 개다	晴耕雨讀

- 精米所: 쌀 짚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 晴耕雨讀: 날이 개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공부 함을 이르는 말.

2. 뜻이 비슷한 한자

禁	(금) 금하다	禁煙, 嚴禁
止	(지) 그치다	防止, 停止



독서삼여

‘讀書三餘’란 ‘겨울’, ‘밤’, ‘비 올 때’를 말한다. 위(魏)나라 동우(董遇)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젊은이에게 “열심히 거듭 책을 읽어라.”라고 하니, 젊은이가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동우가 “동사일이 없는 겨울과 밤, 그리고 일 못하는 비 오는 날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깨우쳐 주었다고 한다.

“삼국지 위지(魏志)”에서

독서삼여는
겨울, 밤, 비 오는 날!



재미로
읽는
漢文

500번 고쳐 쓴 ‘적벽부(赤壁賦)’

어느 날, 중국 송나라의 대문장가인 소식의 집에 친구가 놀러 왔다. 소식이 그에게 글을 하나 보여 주니, 친구는 매우 잘된 명문장이라고 감탄하였다. 그리고는 “이 글은 몇 번 만에 완성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소식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단 한 번에 써 내려간 것일세.” 하고 말했다. 친구는 亦是 대단하다며 다시 한 번 감탄했는데, 소식이 밖에 나간 사이에 앉았던 자리를 보니 무언가 불룩 솟아 있었다. 친구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그것을 들어 보았더니, 처음 쓴 원고인 “적벽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었다.

이태준, “문장강화”에서



涼(량) 서늘하다	淨(정) 깨끗하다	招(초) 부르다	米(미) 쌀	晴(청) 개다	耕(경) 밭 갈다
煙(연) 연기	嚴(엄) 엄하다	止(지) 그치다	停(정) 머무르다	防(방) 막다	亦(역) 또



학습 용어의 활용

신재생 에너지



• 化石 에너지

- 석탄, 石油, 천연가스 등의 化石 연료는 동식물이 땅속에 묻혀 오랫동안 물리적 · 화학적 변화를 거쳐 생성된다.

• 風力 에너지

-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힘을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고, 기계적 에너지를 다시 電氣 에너지를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 地熱 에너지

- 일본은 화산 국가이기 때문에 地熱이 豐富하여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



동파육(東坡肉, 둉포러우)은 북송 시대의 著名한 문학가이자 미식가였던 소동파(蘇東坡)가 개발한 飲食으로 유명하다. 1077년 소동파가 쉬저우 [徐州]의 지주(知州)로 있을 당시 홍수가 나자, 住民들을 이끌고 제방을 쌓아 위기를 免할 수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소동파에게 感謝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주었는데, 성품이 潔白했던 소동파는 그것을 받아 동파육을 만들어 함께 고생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두산백과”에서



동파육

既(기) 이미

電(전) 번개/전기

豐(풍) 풍성하다

著(저) 나타나다

飲(음) 마시다

民(민) 백성

免(면) 면하다

謝(사) 사례하다

潔(결) 깨끗하다



함께 해 보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 보자.



<문화유산 답사 보고서 절차>

- ① 6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한다.
- ② 답사지를 선정하고 답사 계획을 세운다.
- ③ 인터넷 등을 통해 답사 자료를 수집한다.
- ④ 답사를 실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답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⑤ 모둠별로 발표한다.

답사 보고서

모둠 명칭	모둠원 이름
답사일	답사 장소
답사 목적	답사 경로
사전 자료	답사 내용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점	
답사를 통해 느낀 점	



중국 항저우[杭州]에 있는 ‘소제(蘇堤)’로 소동파가 서호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서 붙여진 명칭이다. 외지로 여행했을 때, 한자로 표기된 것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아보자.





실력 다지기

1

붓글씨를 쓰다가 먹물을 떨어뜨려 한자의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원래 무슨 한자였을지, 유추할 수 있는 한자를 쓰고 음과 뜻을 써 보자.



[2 ~ 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且夫天地之間에 物各有主하니 苟非吾之所有면 (㉠) 一毫(㉡) 而莫取라. 惟江上之
清風과 與山間之明月은 耳得之而爲(㉢)하고 目遇之而成(㉣)이니 取之無禁이요 用
之不竭이라. 是造物者之無盡藏也요 而吾與子之所共適이라.

2

㉠에 들어갈 한자와 ㉡에 들어갈 토를 바르게 짹지은 것은?

- ① 如, ~하니 ② 若, ~면 ③ 或, ~하고 ④ 雖, ~라도 ⑤ 使, ~라

3

㉢, ㉣의 () 안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 () ㉣ ()



聲, 明, 色

4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어.

② 바람과 달도 각각 주인이 있지.

⑤ 내 것이 아니라면 비록 떨 오라기 하나라도 가져선 안 돼.

④ 맑은 바람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지.

③ 바람과 달은 조물주의 끝없는 창고지.



1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
의 활용

(1) 일상 용어의 활용

- 看過, 過失, 過猶不及, 舌音, 不協和音, 名聲, 肉聲, 深思, 思考方式, 恩惠, 恩重泰山, 氣溫, 溫暖, 暖流, 流水, 紿與, 授與, 興起, 興亡, 賞金, 貯金, 錢穀, 金錢, 書案, 書店, 冊房, 製冊, 開卷有益, 清涼, 清淨, 申請, 招請, 精米所, 晴耕雨讀, 禁煙, 嚴禁, 防止, 停止

(2) 학습 용어의 활용

- 居住, 自然, 人文, 選定, 植生, 交通, 去來, 買賣, 節次, 關稅, 新再生, 化石, 太陽, 風力, 水力, 地熱, 海洋

2 한자의 쓰임

(1) 沉~乎: 하물며 ~이랴?

- 沉未必死者乎: 하물며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님에랴?

(2) 耳: ~일 뿐이다.

- 吾當相隨耳: 나도 마땅히 따라갈 뿐입니다.

(3) 雖: 비록 ~라 하더라도

-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진실로 내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털 오라기 하나 라도 가질 수 없다.

3 문장의 유형

○ 의문문

- 讀書何爲: 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4 문장 풀이하기

(1) 聞夫子責人, 聲氣過厲, 此非中道也.: 당신이 사람을 꾸짖을 때에 소리의 기세가 너무 엄하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2) 死生命也, 君子, 不可失正.: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군자는 정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3) 一日, 妻甚饑, 泣曰 “子平生不赴舉, 讀書何爲?”: 하루는 아내가 몹시 굶주려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려 가지 않으니 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4) 畫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밤낮으로 책을 읽어 단지 ‘어찌하겠소’ 만 배웠나 보군요. 공업도 안 되고, 상업도 안 되면 왜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5)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또한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으니

(6) 取之無禁, 用之不竭: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고, 그것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7)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適.: 이것은 조물주의 다함 없는 창고요,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것이다.

부록

1. 실력 다지기 정답
2. 본문 풀이
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4. 인용 자료 출처



1. 실력 다지기 정답

I

한자·한글과의 만남

01. 한자의 탄생

▶13쪽

1. (1) 火, 물고기 (2) 본, 田 2. (1) 日 (2) 月 (3) 上

(4) 下 3. (1) 日, 月, 火, 山 (2) 一, 二, 上, 下

4. 月, 水, 金, 三, 五, 七, 九

02. 한자와 한자의 만남

▶19쪽

1. 洋 – 양, 큰 바다 林 – 림, 수풀 問 – 문, 묻다

休 – 휴, 쉬다 2. (1) 安 (2) 村 (3) 信 (4) 炎 (5) 頭

(6) 注 3. (1) – 𩫔 (2) – 𩫔 (3) – 𩫔 (4) – 𩫔

03. 단어의 짜임(1)

▶25쪽

1. (1) 季節風 (2) 溫度 (3) 比熱

2. (1) 바로 섶 – 直 – 立 (2) 푸른 하늘 – 青 – 天 (3)

크고 작음 – 大 – 小 (4) 빨리 달림 – 快 – 走

3. (1) 男女, 高低 (2) 宇宙, 陸地 (3) 壯士 (4) 早起

04. 단어의 짜임(2)

▶31쪽

1. (1) 日, 일, 해/날 (2) 感, 감, 느끼다 (3) 門, 문, 듣

다 (4) 情, 정, 뜻 2. (1) 읽다, 책을 (2) 내려가다, 산

에서 3. (1) 日出 (2) 多情多感 (3) 聞一知十 (4)

山高水長 (5) 音讀 (6) 速讀

II

삶의 지혜가 담긴 말

05. 네 글자에 담긴 뜻

▶39쪽

1. (1) 烏合之卒 (2) 傷弓之鳥

2. (1) 右往左往 (2) 九牛一毛 3. ③

06. 이야기가 있는 성어

▶45쪽

1. (1) 竹馬故友 (2) 易地思之 2. (1) 登/龍門 (2)

漁父之/利 (3) 五十步/百步 3. ③

07. 풍자와 교훈이 담긴 말

▶51쪽

1. 考, 藥, 書 2. 吾鼻三尺 3. ④

08. 짧은 글, 깊은 뜻

▶57쪽

1. 順位, 退出 2. ⑤ 3. ③

III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09. 옛 교과서에서 배우다

▶65쪽

1. 堂 2. ② 3. 奉而承之 孝而養之: (자식은) 부모를 받들고 모시며 효도하고 봉양한다.

10. 사서에서 얻은 깨달음

▶71쪽

1. 施(시) 베풀다, 族(족) 겨레 2. ① 3. 소설가, 의사, 선생님 등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77쪽

1. 參政權 2. ③ 3. ②

12. 우리 선현이 남긴 교훈

▶83쪽

1. 大悟 → 大豆 → 小暑 → 朱紅

2. ⑤ 3. 可以: ~할 만하다

IV

221월의 노래

13. 그대, 어디 있나요?

▶91쪽

1. 問 2. (1) 화개▽화락시: 꽃 필 때나 꽃 질 때나 어느 때든지 (2) 도화의구▽소춘풍: 복사꽃은 예전처럼 봄 바람에 웃는데 3. (1) 물어보고파 (2) 어디 있나

14. 봄바람 부는 날

▶97쪽

1. (1) 떨어지다 (2) 생각

2. 예, 라. 이나, 라 (동풍▽삼월시에 처치▽낙화비라. 녹기▽상사곡이나 강남▽인미귀라.) 3. (1) 相思 (2) 생략 4. 그림에서 선비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틀린 부분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 “강남으로 떠나신 임 돌아오잖네.” 이므로, 임이 돌아온 그림은 잘못된 것이다.

15. 그리움을 강물에 띄워

▶103쪽

1. (1) 詩的 話者 (2) 音數律 (3) 主題 (4) 素材

2. • 첫 번째 그림: 千里春心送碧波 | 천 리 밖 그리운 맘 푸른 물결에 보낸다네. • 두 번째 그림: 江上雪消江水多 | 강가에 눈 녹아 강물은 불어나고. • 세 번째 그림: 夜來聞唱竹枝歌 | 밤새도록 죽지가 노랫소리 들렸다네. • 네 번째 그림: 與君一別思何盡 | 그대와 헤어진 들향마저 그치리오?

V

우리 땅, 우리 문화

16. 우리가 사는 이 땅

▶111쪽

1. 失 2. 新羅(신라) 3. 조선이 고려에서 그것을 얻었다. 4.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큰 바다인 배가 통하지 않음이 없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때문에 배를 이용하면 사람과 물류가 유통하기 유리한 특징이 있다.

17. 동방의 아름다운 풍속

▶117쪽

1. 賀, 才, 재물 재, 貧, 가난할 빈 2. (1) – ④ 德談 (2) – ⑦ 婚禮 3. 과거에 합격이나 승진, 아들 낳으라, 돈 많이 벌어라 등의 말을 덕담으로 삼다.

4. 우리나라: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한식(寒食, 양력 4월 5, 6일쯤), 단오(端午, 수릿날, 음력 5월 5일) 등. 중국: 칭명절(4월 4~6일 중 하루), 노동절(5월 1일, 여행), 단오(음력 5월 5일, 종쯔를 먹음), 중추절(음력 8월 15일, 월병을 먹음) 등. 일본: 세쓰분(節分, 2월 3일, 콩 뿌리기), 타나바타(七夕, 7월 7일, 소원 종이 매달기), 오본(お盆, 양력 8월 15일, 제사) 등

18. 동방의 위대한 문화유산

▶123쪽

1. ④ 2. ② 3.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19. 소중한 사람들, 가족

▶129쪽

1. (1) 初 (2) 未 (3) 始 2. ⑤ 3. ② 4. ①

VI

뜻을 세우고 학문의 세계로

20.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137쪽

1. (1) 成仁 (2) 聖人 (3) 成人 2. ④

3. 부유함을 믿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21. 우리 고전 속의 자연 과학

▶143쪽

1. 苦杯 → 萬若, 明苦觀火 → 明若觀火 2. 사람 수를 x 라 하고, 은의 총 수량을 y 라 하면, $y=7x+4 \dots ①$, $y=9x-12 \dots ②$ 라고 방정식을 제시한 뒤, ②식에서 ①식을 빼면, $0=2x-16$, 따라서 $x=8 \dots ③$, ③을 ①에 대입하면, $y=(7 \times 8)+4=60$. 그러므로 사람 수는 8명, 은의 총

수량은 60개이다. 3.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므로 환자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세가 위중한 사람에게 반드시 가서 침으로 고칠 수 있으면 침으로, 약으로 고칠 수 있으면 약으로 살려 내야 한다.

22. 예술에 흔을 바친 사람들

▶149쪽

1. 勿(忘)草, 公私多(忙), 希(望) 2. ④
3. 생략

VII

시와 인생

23. 달이 뜨면

▶157쪽

1. 생략 2. 乾坤, 世界, 宇宙, 天下 등 3. ③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163쪽

1. (1) (우) 비, (량) 둘 (2) (결) 결정하다, (쾌) 쾌하다
2. 오언 절구, 吟, 音, 心, 秋風 V 唯苦吟이나 舉世 V 少知音이라. 窓外 V 三更雨요 燈前 V 萬里心이라.
3. ③

25. 왜 사냐건, 웃지요

▶169쪽

1. (1) 植物: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 대체로 이동력이 없고, 체제가 비교적 간단하여 신경과 감각이 없고, 세룰로스를 포함한 세포벽과 세포막이 있다. (2) 材料: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3) 光合成: 녹색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와 수분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 (4) 結果: 열매를 맺음.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2. ③ 3.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

VIII

인생과 인생

26. 아내의 충고

▶177쪽

1. (1) 허물 (2) 지나치다 (3) ⑦ 지나다

2. ⑤ 3. ④

27. 목적동 선비, 허생

▶183쪽

1. ⑦, ⑮ 2. 讀書何爲 3. ①

28. 자연의 주인은

▶189쪽

1. 清(청) 맑다, 晴(청) 개다, 請(청) 청하다, 精(정) 자세하다/찡다 등 2. ④ 3. ⑮ 聲, ⑮ 色 4. ②

2. 본문 풀이

I

한자·한글과의 만남

03. 단어의 짜임(1)

▶20쪽

- 海洋: 넓고 큰 바다.
- 陸地: 지구의 표면 중 물로 덮이지 않은 부분.
- 大小: 큼과 작음.
- 多少: 많고 적음.
- 青天: 푸른 하늘.
- 白雲: 흰 구름.
- 直立: 바로 섬.
- 快走: 빨리 달림.

04. 단어의 짜임(2)

▶26쪽

- 日出: 해가 뜸.
- 讀書: 책을 읽음.
- 下山: 산에서 내려감.
- 山高水長: 산은 높게 솟고 강은 길게 흐름.
- 聞一知十: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암.
- 多情多感: 정이 많고 느낌이 많음.

II

삶의 지혜가 담긴 말

05. 네 글자에 담긴 뜻

▶34쪽

- 一石二鳥: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음.
속뜻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
- 九牛一毛: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하나의 털.
속뜻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
- 東問西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함.
속뜻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右往左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함.
속뜻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 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임.
속뜻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 以心傳心: 마음으로 마음에 전함.

속뜻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음.

06. 이야기가 있는 성어

▶40쪽

- 助長: 자라도록 도움.
속뜻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登龍門: 용문에 오름.
속뜻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 漁父之利: 어부의 이익.
속뜻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
- 朝三暮四: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속뜻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 鷄卵有骨: 달걀이 꽂았다.
속뜻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 도 역시 일이 잘 안됨.
- 五十步百步: 오십 보 보 도망간 것이나 백 보 도망간 것이나 같음.
속뜻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같은 것.

07. 풍자와 교훈이 담긴 말

▶46쪽

- 吾鼻三尺: 내 코가 석 자다.
- 牛耳讀經: 쇠귀에 경 읽기.
- 去言美라야 來言美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세 살 적의 버릇이 여든에 이른다.
-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 옷은 새것을 좋다고 여기고 사람은 오래된 것을 좋다고 여긴다.

08. 짧은 글, 깊은 뜻

▶52쪽

- 成我者는 朋友也라.: 나를 이루어 주는 사람은 벗이다.
- 勤必三省하고 言必再思하라.: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세 번 살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

- 痘從口入하고 禽從口出이라.: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 君子喜揚人善하고 小人喜揚人不善이라.: 군자는 남의 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소인은 남의 불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III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09. 옛 교과서에서 배우다 ▶60쪽

-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도 쓸모가 없다.
-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한다.
- 부모와 자식은 타고난 친애하는 사이이니,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사랑하고 가르치며, (자식은) 부모를 받들고 모시며 효도하고 봉양한다.

10. 사서에서 얻은 깨달음 ▶66쪽

- 그 자신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남이 한 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그것을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그것을 천 번 한다.
-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11. 제자백가에서 얻은 지혜 ▶72쪽

-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는다.
- 싸우지 않고서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면, 둘 다 그릴 수 없다.
-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뜻사람들이 싫어하는 (낫은) 곳에 처한다.

12. 우리 선현이 남긴 교훈 ▶78쪽

- 성인의 도는 자기를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없음은 학자의 큰 병이다. 천하에 옳은 이치가 끝없이 많거늘 어찌 자기만 옳다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IV

그리움의 노래

13. 그대, 어디 있나요? ▶86쪽

- 그리운 임 계신 곳 물어보고파
꽃 필 때나 꽃 질 때나 어느 때든지.
- 그대 얼굴 어디 있나 알 수 없어라
복사꽃은 예전처럼 봄바람에 웃는데.

14. 봄바람 부는 날 ▶92쪽

봄바람 불어오는 삼월 시절에
곳곳마다 지는 꽃 바람에 나네.
거문고에 그리운 노래 실어 보내도
강남으로 떠나신 임 돌아오잖네.

15. 그리움을 강물에 띄워 ▶98쪽

강가에 눈 녹아 강물은 불어나고
밤새도록 죽지가 노랫소리 들렸다네.
그대와 헤어진들 생각마저 그치리오?
천 리 밖 그리운 맘 푸른 물결에 보낸다네.

V

우리 땅, 우리 문화

16. 우리가 사는 이 땅

▶106쪽

- 이 섬은 고려가 신라에서 그것을 얻었고, 조선이 고려에서 그것을 얻었으니,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수레가 다니기에 편하지 않다. 〈중략〉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큰 바다이니 배가 통하지 않음이 없다.

17. 동방의 아름다운 풍속

▶112쪽

- 우리나라의 혼례는 길한 날 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신부를 맞아들인다.
- 남자가 스무 살이 되어서 관례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될 단서가 있어서이고, 여자가 열다섯 살이 되어야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남에게 시집갈 이치가 생기게 되어서이다.
- (설날에) 친구나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 과거 합격이나 승진, 아들 낳으라, 돈 많이 벌라는 등의 말을 덕담으로 삼아 서로 축하했다.

18. 동방의 위대한 문화유산

▶118쪽

- 왕인이 천자문을 가지고 이르니, 도치가 또 그를 스스로 삼아 유교가 비로소 행하여졌다.
- 선광 7년인 정사년 7월 모일에 청주목 외곽의 홍덕사에서 글자를 주조하여 발행했다.
-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략〉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19. 소중한 사람들, 가족

▶124쪽

-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요하다.
- 미수는 말하기를,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거늘 나만 홀로 집을 가질 수 없다.”

-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에는 매를 때릴 때 네가 일찍이 올지 않더니, 지금 우는 것은 왜냐?” 대답하기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매가 항상 아프더니 지금 어머니의 힘이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옵니다.”라고 하였다.

VI

뜻을 세우고 학문의 세계로

20.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132쪽

- 내가 30년 전에 채소밭을 가꾸다가 이것(은)을 얻었으나 도로 그것을 묻어 버렸다. 다만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아직 어린데, 집이 부유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두려웠다.
- 광이 사냥 나갔다가 풀 속에 있는 돌을 보고 호랑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쏘니, 돌에 맞아 화살촉이 박혔는데 그것을 보니 돌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쏘았으나 끝내 다시 돌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21. 우리 고전 속의 자연 과학

▶138쪽

-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은을 나누는데, 1명당 7냥씩 나누어 가지면 4냥이 남고, 1명당 9냥씩 나누어 가지면 12냥이 부족하다. 문노니, 사람의 수와 은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세가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침의는 침을 놓고 약의는 약을 처방하여 이로써 그를 살린다. 이것은 예전의 늘 그래왔던 도리이다.

22. 예술에 흔을 바친 사람들

▶144쪽

- 장령 이명은은 글씨 쓰기를 지나치게 좋아했다. 비록 길 가는 중이더라도 항상 나뭇가지를 쥐고 다니며 말하기를 “잠시라도 붓을 잡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니, 끝내 글씨로 세상에 이름났다.
-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고 있

었는데, 집에서는 그가 있는 곳을 모르다가 사흘이 되어서야 찾았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때리자 울면서 눈물을 끌어다가 새를 그리니, 이는 그림에서 영육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VII 시와 인생

23. 달이 뜨면

▶152쪽

해가 지고 달이 다시 뜨니
온 세상이 밤낮으로 밝아요.
오늘 밤 달을 길이 불잡아 두면
온 세상이 언제인들 어둡겠어요?

24.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158쪽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읊어도
온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창밖엔 한밤중 비만 내리고
등불 앞에 마음만 아득하여라.

25. 왜 사냐건, 웃지요

▶164쪽

무슨 생각에 푸른 산에 사느냐 내게 묻기에
웃기만 하고 대답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떠가니
따로 있는 세상이지 인간 세상은 아니어라.

VIII 인생과 인생

26. 아내의 충고

▶172쪽

- 당신이 사람을 꾸짖을 때에 소리의 기세가 너무 엄하게 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설령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바르지 않은데 그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군자는 정도(正道)를 잊어

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님에랴? 궁벽한 산골짜기나 황량한 바닷가라도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마땅히 따라갈 뿐입니다.

27. 목적동 선비, 허생

▶178쪽

하루는 아내가 몹시 짚주려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려 가지 않으니 독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 독서는 숙련되지 못했소.” 아내가 말했다. “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말했다. “공업은 본래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소?” 아내가 말했다. “상업이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말했다. “상업은 밀천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그 아내가 성내고 또한 욕하며 말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단지 ‘어찌하겠소’ 만 배웠나 보군요. 공업도 안 되고, 상업도 안 되면 왜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28. 자연의 주인은

▶184쪽

또한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으니 진실로 내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텔 오라기 하나라도 가질 수 없다. 오직 강 위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맑은 달은 귀로 그것을 얻어 소리가 되고 눈으로 그것을 만나 빛을 이루니,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고, 그것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조물주의 다함 없는 창고요,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것이다.

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한자	음	뜻	부수·회수	나온 곳	활용
----	---	---	-------	------	----

一 一

佳	가	아름답다	人, 6	17과	佳景(가경)
假	가	거짓	人, 9	14과	假名(가명)
價	가	값	人, 13	26과	眞價(진가)
加	가	더하다	力, 3	5과	追加(추가)
可	가	옳다, 할 수 있다	口, 2	12과	可能(가능)
家	가	집	宀, 7	6과	家族(가족)
歌	가	노래	欠, 10	15과	校歌(교가)
街	가	거리	行, 6	21과	街路(가로)
各	각	각기	口, 3	21과	各各(각각)
脚	각	다리	肉, 7	24과	馬腳(마각)
角	각	뿔	角, 0	21과	頭角(두각)
干	간	방패, 천간	干, 0	21과	千城(간성)
看	간	보다	目, 4	26과	看病(간병)
間	간	사이	門, 4	25과	晝間(주간)
渴	갈	목마르다	水, 9	15과	渴望(갈망)
感	감	느끼다	心, 9	4과	感謝(감사)
敢	감	용감하다	支, 8	26과	勇敢(용감)
減	감	덜다	水, 9	25과	加減(가감)
甘	감	달다	甘, 0	24과	苦盡甘來(고진기래)
甲	갑	첫째 천간	田, 0	2과	回甲(회갑)
強	강	강하다	弓, 8	12과	強弱(강약)
江	강	강	水, 3	14과	江山(강산)
講	강	강론하다	言, 10	24과	講堂(강당)
降	강/항	내리다/항복하다	阜, 6	14과	降等(강등)
個	개	낱	人, 8	10과	個人(개인)
改	개	고치다	支, 3	12과	改革(개혁)
皆	개	모두	白, 4	16과	皆勤(개근)

開	개	열다	門, 4	13과	開花(개화)
客	객	손, 나그네	宀, 6	10과	乘客(승객)
更	갱/경	다시/고치다	曰, 3	20과	更生(갱생)
去	거	가다	厓, 3	7과	去來(거래)
居	거	살다	戸, 5	6과	居住(거주)
巨	거	크다	工, 2	3과	巨星(거성)
舉	거	들다	手, 14	24과	舉論(거론)
車	거·차	수레	車, 0	16과	車窓(차창)
乾	건	마르다, 하늘	乙, 10	23과	乾草(건초)
建	건	세우다	乚, 6	17과	建物(건물)
堅	견	굳다	土, 8	18과	堅固(견고)
犬	견	개	犬, 0	5과	愛犬(애견)
見	견	보다	見, 0	20과	見學(견학)
決	결	결정하다	水, 4	19과	決定(결정)
潔	결	깨끗하다	水, 12	28과	純潔(순결)
結	결	맺다	糸, 6	9과	結末(결말)
京	경	서울	宀, 6	5과	北京(북경)
庚	경	일곱째 천간	广, 5	23과	庚日(경일)
慶	경	경사	心, 11	17과	慶事(경사)
敬	경	공경하다	支, 9	10과	敬禮(경례)
景	경	별, 경치	日, 8	22과	雪景(설경)
競	경	겨루다	立, 15	25과	競技(경기)
經	경	지나다, 글	糸, 7	5과	經書(경서)
耕	경	밭 갈다	耒, 4	28과	耕作(경작)
輕	경	가볍다	車, 7	16과	輕快(경쾌)
驚	경	놀라다	馬, 13	16과	驚異(경이)
季	계	철	子, 5	3과	秋季(추계)
溪	계	시내	水, 10	19과	溪谷(계곡)
界	계	지경	田, 4	17과	學界(학계)

癸	계	열째 천간	兌, 4	23과	癸丑(계축)
計	계	셈하다	言, 2	21과	計算(계산)
鷄	계	닭	鳥, 10	6과	鷄卵有骨(제란유골)
古	고	예	口, 2	21과	古時調(고시조)
告	고	알리다	口, 4	24과	告白(고백)
固	고	굳다	口, 5	14과	堅固(견고)
故	고	예, 연고	支, 5	6과	故鄉(고향)
考	고	생각, 시험	老, 2	7과	考試(고시)
苦	고	쓰다, 괴롭다	艸, 5	21과	苦樂(고락)
高	고	높다	高, 0	3과	最高(최고)
曲	곡	굽다, 악곡	曰, 2	14과	樂曲(악곡)
穀	곡	곡식	禾, 10	27과	秋穀(추곡)
谷	곡	골짜기	谷, 0	19과	谷風(곡풍)
困	곤	곤하다	口, 4	17과	勞困(노곤)
坤	곤	땅	土, 5	23과	乾坤(건곤)
骨	골	뼈	骨, 0	2과	皮骨(피골)
公	공	공평하다	八, 2	17과	公休日(공휴일)
共	공	함께	八, 4	19과	共同(공동)
功	공	공	力, 3	4과	成功(성공)
工	공	장인	工, 0	10과	工夫(공부)
空	공	비다	穴, 3	14과	空間(공간)
果	과	열매	木, 4	25과	結果(결과)
科	과	과목	禾, 4	17과	武科(무과)
課	과	과정	言, 8	23과	課題(과제)
過	과	지나다	辵, 9	26과	看過(간과)
官	관	벼슬	宀, 5	17과	官路(관로)
觀	관	보다	見, 18	8과	觀光(관광)
關	관	관계하다, 빗장	門, 11	19과	稅關(세관)
光	광	빛	儿, 4	18과	光線(광선)
廣	광	넓다	广, 12	20과	廣場(광장)
交	교	사귀다	乚, 4	12과	交友(교우)

教	교	가르치다	爻, 7	9과	教室(교실)
校	교	학교	木, 6	13과	登校(등교)
橋	교	다리	木, 12	22과	陸橋(육교)
久	구	오래다	ノ, 2	15과	長久(장구)
九	구	아홉	乙, 1	1과	九牛一毛(구우일모)
口	구	입, 어귀	口, 0	2과	入口(입구)
句	구	글귀	口, 2	6과	句節(구절)
救	구	구원하다	支, 7	21과	救助(구조)
求	구	구하다	水, 2	10과	要求(요구)
究	구	연구하다	穴, 2	11과	研究(연구)
舊	구	예	臼, 12	7과	親舊(친구)
國	국	나라	口, 8	12과	國家(국가)
君	군	임금	口, 4	8과	君主(군주)
軍	군	군사	車, 2	10과	軍人(군인)
郡	군	고을, 군	邑, 7	20과	郡守(군수)
弓	궁	활	弓, 0	5과	洋弓(양궁)
勸	권	권하다	力, 18	24과	勸學(권학)
卷	권	책	丂, 6	27과	卷數(권수)
權	권	권세	木, 18	11과	特權(특권)
歸	귀	돌아가다	止, 14	14과	歸家(귀가)
貴	귀	귀하다	貝, 5	21과	貴族(귀족)
均	균	고르다	土, 4	19과	平均(평균)
極	극	끝	木, 9	6과	極甚(극심)
勤	근	부지런하다	力, 11	4과	勤務(근무)
根	근	뿌리	木, 6	7과	根本(근본)
近	근	가깝다	辵, 4	12과	近視眼(근시안)
今	금	이제	人, 2	19과	今年(금년)
禁	금	금하다	示, 8	28과	禁止(금지)
金	금/김	쇠/성	金, 0	1과	金石(금석)
及	급	미치다	又, 2	21과	及第(급제)
急	급	급하다	心, 5	25과	急錢(급전)

給	급	주다	糸, 6	27과	自給(자급)
其	기	그	八, 6	10과	其他(기타)
基	기	터	土, 8	11과	基本(기본)
己	기	몸	己, 0	10과	自己(자기)
幾	기	몇	厓, 9	13과	幾何(기하)
技	기	재주	手, 4	6과	技藝(기예)
既	기	이미	无, 7	28과	既存(기존)
期	기	때, 바라다	月, 8	14과	期限(기한)
氣	기	기운	气, 6	26과	氣力(기력)
記	기	기록하다	言, 3	14과	傳記(전기)
起	기	일어나다	走, 3	3과	起立(기립)
吉	길	길하다	口, 3	17과	吉鳥(길조)

一 L

暖	난	따뜻하다	日, 9	26과	溫暖化(온난화)
難	난	어렵다	隹, 11	27과	困難(곤란)
南	남	남녘	十, 7	14과	江南(강남)
男	남	사내	田, 2	2과	男性(남성)
乃	내	곧, 이에	ノ, 1	22과	乃至(내지)
內	내	안	入, 2	13과	室內(실내)
女	녀	여자, 딸	女, 0	3과	孝女(효녀)
年	년	해	干, 3	13과	來年(내년)
念	념	생각	心, 4	14과	念頭(염두)
怒	노	성내다	心, 5	22과	怒氣(노기)
農	농	농사	辰, 6	26과	農村(농촌)
能	능	능하다	肉, 6	10과	萬能(만능)

一 C

多	다	많다	夕, 3	3과	多讀(다독)
丹	단	붉다	丶, 3	15과	一片丹心(일편단심)
但	단	다만	人, 5	2과	但只(단지)

單	단	홀	口, 9	24과	單位(단위)
短	단	짧다	矢, 7	23과	長短(장단)
端	단	끝, 바르다	立, 9	17과	異端(이단)
達	달	통달하다	辵, 9	19과	達觀(달관)
談	담	말씀, 말하다	言, 8	7과	談笑(담소)
答	답	답하다	竹, 6	5과	賢答(현답)
堂	당	집, 당당하다	土, 8	7과	食堂(식당)
當	당	마땅하다	田, 8	9과	當番(당번)
代	대	대신하다	人, 3	12과	代表(대표)
大	대	크다	大, 0	3과	大學(대학)
對	대	대하다	寸, 11	19과	反對(반대)
待	대	기다리다	彳, 6	25과	歡待(환대)
德	덕	덕	彳, 12	17과	道德(도덕)
刀	도	칼	刀, 0	26과	短刀(단도)
到	도	이르다	刀, 6	15과	到着(도착)
圖	도	그림	口, 11	16과	地圖(지도)
島	도	섬	山, 7	16과	獨島(독도)
度	도	정도, 법도	广, 6	3과	深度(심도)
徒	도	무리	彳, 7	12과	花郎徒(화랑도)
道	도	길	辵, 9	12과	道路(도로)
都	도	도읍	邑, 9	16과	都市(도시)
獨	독	홀로	犬, 13	16과	獨立(독립)
讀	독	읽다	言, 15	4과	讀書(독서)
冬	동	겨울	乚, 3	14과	冬眠(동면)
動	동	움직이다	力, 9	8과	動作(동작)
同	동	같다	口, 3	18과	協同(협동)
東	동	동녘	木, 4	5과	東海(동해)
洞	동	마을	水, 6	4과	洞長((동장)
童	동	아이	立, 7	13과	童話(동화)
斗	두	말, 별 이름	斗, 0	9과	北斗七星(부두칠성)
豆	두	콩	豆, 0	12과	綠豆(녹두)

頭	두	머리	頁, 7	2과	頭領(두령)
得	득	얻다	彳, 8	16과	利得(이득)
燈	등	등불	火, 12	24과	走馬燈(주마등)
登	등	오르다	宀, 7	6과	登山(등산)
等	등	같다, 무리	竹, 6	13과	對等(대등)

• 仁

樂	락/아요	즐겁다/음악/좋아하다	木, 11	28과	音樂(음악)
落	락	떨어지다	艸, 9	13과	暴落(폭락)
卵	란	알	卯, 5	6과	產卵(산란)
浪	랑	물결	水, 7	18과	波浪(파랑)
郎	랑	사내	邑, 7	16과	新郎(신랑)
來	래	오다	人, 6	7과	往來(왕래)
冷	랭	차다	冂, 5	11과	冷待(냉대)
兩	량	둘	入, 6	11과	兩極(양극)
涼	량	서늘하다	水, 8	28과	清涼(청량)
良	량	어질다, 좋다	艮, 1	10과	良貨(양화)
量	량	해아리다	里, 5	14과	極少量(극소량)
旅	려	나그네	方, 6	10과	旅行(여행)
力	력	힘	力, 0	19과	體力(체력)
歷	력	지내다	止, 12	24과	歷史(역사)
練	련	익히다	糸, 9	14과	練習(연습)
連	련	잇다	辵, 7	23과	連勝(연승)
列	렬	줄	刀, 4	26과	貨物列車(화물열차)
烈	렬	맵다	火, 6	10과	熱烈(열렬)
令	령	명령하다	人, 3	17과	訓令(훈령)
領	령	거느리다	頁, 5	11과	領土(영토)
例	례	예	人, 6	15과	事例(사례)
禮	례	예절	示, 13	17과	禮節(예절)
勞	로	힘쓰다	力, 10	5과	勞動(노동)
老	로	늙다	老, 0	11과	老人(노인)

路	로	길	足, 6	21과	鐘路(종로)
露	로	이슬, 드러내다	雨, 13	24과	暴露(폭로)
綠	록	푸르다	糸, 8	14과	新綠(신록)
論	론	논의하다	言, 8	10과	論爭(논쟁)
料	료	해아리다	斗, 6	25과	材料(재료)
柳	류	버들	木, 5	22과	柳色(유색)
流	류	흐르다	水, 7	25과	急流(급류)
留	류	머물다	田, 5	23과	留宿(유숙)
六	륙	여섯	八, 2	1과	六書(육서)
陸	륙	뭍	阜, 8	3과	陸上(육상)
倫	륜	인륜	人, 8	19과	天倫(천륜)
律	률	법	彳, 6	10과	法律(법률)
利	리	이롭다	刀, 5	6과	利益(이익)
李	리	오얏	木, 3	22과	李朝(이조)
理	리	이치	玉, 7	12과	理論(이론)
里	리	마을	里, 0	15과	里長(이장)
林	림	수풀	木, 4	2과	林業(임업)
立	립	서다	立, 0	3과	設立(설립)

• 口

馬	마	말	馬, 0	5과	馬車(마차)
莫	막	없다, 말다	艸, 7	28과	莫強(막강)
晚	만	늦다	日, 7	27과	晚成(만성)
滿	만	차다	水, 11	25과	滿足(만족)
萬	만	일만	艸, 9	11과	萬物(만물)
末	말	끝	木, 1	1과	年末(연말)
亡	망	잃다, 망하다	一, 1	22과	亡身(망신)
忙	망	바쁘다	心, 3	22과	多忙(다망)
忘	망	잊다	心, 3	22과	忘恩(망은)
望	망	바라다	月, 7	14과	望鄉(망향)
妹	매	손아래 누이	女, 5	18과	男妹(남매)



每	매	낱, 매양	母, 3	21과	毎日(매일)
買	매	사다	貝, 5	27과	收買(수매)
賣	매	팔다	貝, 8	27과	賣國(매국)
麥	맥	보리	麥, 0	7과	麥飯石(백반석)
免	면	면하다	儿, 5	28과	免除(면제)
勉	면	힘쓰다	力, 7	4과	勤勉(근면)
眠	면	잠자다	目, 5	15과	不眠(불면)
面	면	낯	面, 0	13과	面會(면회)
名	명	이름	口, 3	22과	名聲(명성)
命	명	목숨, 명령하다	口, 5	8과	命令(명령)
明	명	밝다	日, 4	15과	明暗(명암)
鳴	명	울다	鳥, 3	8과	悲鳴(비명)
暮	모	저물다, 저녁	日, 11	6과	朝三暮四(조삼暮사)
母	모	어머니	母, 1	9과	母女(모녀)
毛	모	털	毛, 0	5과	毛皮(모피)
木	목	나무	木, 0	1과	草木(초목)
目	목	눈, 조목	目, 0	1과	題目(제목)
卯	묘	넷째 지지	卯, 3	23과	卯時(묘시)
妙	묘	묘하다	女, 4	24과	妙藥(묘약)
務	무	힘쓰다	力, 9	15과	義務(의무)
戌	무	다섯째 천간	戈, 1	23과	戊辰(무진)
武	무	무반	止, 4	18과	武士(무사)
無	무	없다	火, 8	9과	無罪(무죄)
舞	무	춤추다	舛, 8	14과	歌舞(가무)
茂	무	무성하다	艸, 5	22과	茂盛(무성)
墨	묵	먹	土, 12	22과	紙筆墨(지필묵)
問	문	묻다	口, 8	2과	質問(질문)
文	문	글월	文, 0	2과	文學(문학)
聞	문	듣다	耳, 8	4과	見聞(견문)
門	문	문	門, 0	2과	窓門(창문)
勿	물	말다	勺, 2	10과	勿論(물론)

物	물	물건, 사물	牛, 4	11과	物質(물질)
味	미	맛, 뜻	口, 5	2과	妙味(묘미)
尾	미	꼬리	尸, 4	9과	大尾(대미)
未	미	아니다	木, 1	12과	未知(미지)
米	미	쌀	米, 0	28과	米飲(미음)
美	미	아름답다	羊, 3	6과	美德(미덕)
民	민	백성	氏, 1	28과	農民(농민)
密	밀	빽빽하다	宀, 8	25과	密集(밀집)

一·曰

朴	박	순박하다, 성	木, 2	4과	素朴(소박)
半	반	절반	十, 3	16과	後半(후반)
反	반	돌이키다	又, 2	4과	反省(반성)
飯	반	밥	食, 4	7과	飯店(반점)
發	발	피다	宀, 7	6과	發達(발달)
房	방	방	戶, 4	27과	暖房(난방)
放	방	놓다	攴, 4	15과	放學(방학)
方	방	모, 방법	方, 0	4과	處方(처방)
訪	방	찾다	言, 4	25과	訪問(방문)
防	방	막다	阜, 4	28과	防止(방지)
拜	배	절	手, 5	23과	歲拜(세배)
杯	배	잔	木, 4	21과	祝杯(축배)
白	백	희다	白, 0	3과	純白(순백)
百	백	일백	白, 1	6과	百姓(백성)
番	번	차례	田, 7	25과	番號(번호)
伐	벌	치다, 베다	人, 4	15과	伐草(벌초)
凡	범	범상하다	几, 1	27과	平凡(평범)
法	법	법	水, 5	2과	法典(법전)
變	변	변하다	言, 16	21과	變更(변경)
別	별	다르다	刀, 5	15과	特別(특별)
丙	병	셋째 천간	一, 4	23과	丙寅(병인)

兵	병	군사	八, 5	11과	養兵(양병)
病	병	병	疒, 5	7과	病患(병환)
保	보	보호하다	人, 7	11과	保留(보류)
報	보	갚다, 알리다	土, 9	16과	報答(보답)
步	보	걷다, 걸음	止, 3	6과	散步(산보)
伏	복	엎드리다, 복날	人, 4	19과	初伏(초복)
復	복/부	회복하다/다시	彳, 9	4과	回復(회복)
服	복	옷, 따르다	月, 4	8과	韓服(한복)
福	복	복	示, 9	19과	幸福(행복)
本	본	근본	木, 1	1과	本質(본질)
奉	봉	받들다	大, 5	9과	奉養(봉양)
逢	봉	만나다	辵, 7	17과	相逢(상봉)
否	부	아니다	口, 4	24과	與否(여부)
夫	부	남편, 사내	大, 1	17과	漁夫(어부)
婦	부	아내, 며느리	女, 8	17과	夫婦(부부)
富	부	넉넉하다	宀, 9	20과	富者(부자)
扶	부	돕다	手, 4	18과	扶養(부양)
浮	부	뜨다	水, 7	15과	浮揚(부양)
父	부	아버지	父, 0	6과	父親(부친)
部	부	부분	邑, 8	4과	大部分(대부분)
北	북/배	북녘/달아나다	匕, 3	8과	北部(북부)
分	분	나누다	刀, 2	19과	分數(분수)
不	불·부	아니다	一, 3	6과	不安(불안)
佛	불	부처	人, 5	18과	佛教(불교)
朋	봉	벗	月, 4	8과	朋友(봉우)
備	비	갖추다	人, 10	20과	有備無患(예방함)
悲	비	슬프다	心, 8	8과	悲報(비보)
比	비	견주다	比, 0	3과	比等(비등)
非	비	아니다, 그르다	非, 0	12과	非情(비정)
飛	비	날다	飛, 0	14과	飛行(비행)
鼻	비	코	鼻, 0	7과	鼻炎(비염)

貧	빈	가난하다	貝, 4	17과	貧困(빈곤)
氷	빙	얼음	水, 1	13과	氷河(빙하)

一 人

事	사	일, 섬기다	丨, 7	18과	行事(행사)
仕	사	섬기다	人, 3	9과	奉仕(봉사)
使	사	부리다, 사신	人, 6	2과	使臣(사신)
史	사	역사	口, 2	10과	國史(국사)
四	사	넷	口, 2	1과	四方(사방)
士	사	선비	士, 0	3과	壯士(장사)
寺	사	절	寸, 3	18과	山寺(산사)
射	사	쏘다	寸, 7	20과	發射(발사)
己	사	여섯째 지지	己, 0	18과	己巳(기사)
師	사	스승	巾, 7	18과	醫師(의사)
思	사	생각	心, 5	6과	思想(사상)
死	사	죽다	歹, 2	26과	生死(생사)
私	사	사사롭다	禾, 2	22과	私心(사심)
絲	사	실	糸, 6	22과	鐵絲(철사)
舍	사	집	舌, 2	12과	舍宅(사택)
謝	사	사례하다	言, 10	28과	謝禮(사례)
山	산	메	山, 0	1과	白頭山(백두산)
散	산	흩어지다	支, 8	27과	集散(집산)
產	산	낳다, 재산	生, 6	11과	破產(파산)
算	산	셈하다	竹, 8	21과	加算(가산)
殺	살/쇄	죽이다/덜다	殳, 7	20과	殺生(살생)
三	삼	셋	一, 2	1과	三伏(삼복)
上	상	위	一, 2	1과	上流(상류)
傷	상	상하다	人, 11	5과	傷處(상처)
商	상	장사	口, 8	27과	商街(상가)
喪	상	잃다, 죽다	口, 9	14과	問喪(문상)
尚	상	숭상하다	小, 5	20과	崇尚(승상)

常	상	항상	巾, 8	19과	常存(상존)
想	상	생각	心, 9	14과	理想(이상)
相	상	서로	目, 4	10과	相談(상담)
賞	상	상, 상주다	貝, 8	27과	受賞(수상)
霜	상	서리	雨, 9	5과	秋霜(추상)
色	색	빛	色, 0	13과	色素(색소)
生	생	나다, 살다	生, 0	9과	生物(생물)
序	서	차례	广, 4	27과	順序(순서)
暑	서	덥다	日, 9	12과	暴暑(폭서)
書	서	글, 책	曰, 6	4과	書堂(서당)
西	서	서녘	酉, 0	5과	西洋(서양)
夕	석	저녁	夕, 0	17과	夕陽(석양)
席	석	자리	巾, 7	20과	客席(객석)
惜	석	애석하다	心, 8	15과	哀惜(애석)
昔	석	예, 어제	日, 4	23과	今昔(금석)
石	석	돌	石, 0	5과	石戰(석전)
仙	선	신선	人, 3	25과	神仙(신선)
先	선	먼저	儿, 4	10과	先頭(선두)
善	선	착하다, 잘하다	口, 9	8과	善行(선행)
線	선	줄	糸, 9	13과	電線(전선)
船	선	배	舟, 5	16과	造船(조선)
選	선	뽑다, 가리다	走, 12	26과	選舉法(선거법)
鮮	선	곱다, 맑다	魚, 6	12과	朝鮮(조선)
舌	설	혀	舌, 0	26과	口舌數(구설수)
設	설	세우다, 배풀다	言, 4	26과	施設(시설)
說	설	말씀	言, 7	6과	異說(이설)
雪	설	눈	雨, 3	5과	暴雪(폭설)
城	성	성	土, 7	21과	城門(성문)
姓	성	성씨	女, 5	27과	同姓(동성)
性	성	성품	心, 5	9과	性品(성품)
成	성	이루다	戈, 3	4과	成就(성취)

星	성	별	日, 5	23과	星辰(성신)
盛	성	성하다	皿, 7	22과	盛大(성대)
省	성/생	살피다/덜다	目, 4	8과	省察(성찰)
聖	성	성스럽다	耳, 7	12과	神聖(신성)
聲	성	소리	耳, 11	26과	聲樂(성악)
誠	성	정성	言, 7	26과	至誠(지성)
世	세	인간, 세상	一, 4	8과	世界(세계)
勢	세	기세	力, 11	26과	權勢(권세)
歲	세	해, 나이	止, 9	7과	年歲(연세)
洗	세	씻다	水, 6	13과	洗顏(세안)
稅	세	세금	禾, 7	27과	稅務(세무)
細	세	가늘다	糸, 5	4과	細則(세칙)
小	소	작다	小, 0	3과	小兒(소아)
少	소	적다, 짧다	小, 1	3과	少年(소년)
所	소	곳, 바	戶, 4	10과	場所(장소)
消	소	지우다	水, 7	15과	解消(해소)
笑	소	웃다	竹, 4	13과	談笑(담소)
素	소	바탕, 희다	糸, 4	15과	素材(소재)
俗	속	풍속	人, 7	7과	風俗(풍속)
續	속	잇다	糸, 15	19과	連續(연속)
速	속	빠르다	走, 7	4과	速度(속도)
孫	손	손자, 자손	子, 7	9과	外孫(외손)
松	송	소나무	木, 4	23과	青松(청송)
送	송	보내다	走, 6	15과	送達(송달)
修	수	닦다	人, 8	10과	修練(수련)
受	수	받다	又, 6	13과	授受(수수)
壽	수	목숨	士, 11	6과	壽命(수명)
守	수	지키다	宀, 3	20과	守備(수비)
愁	수	근심	心, 9	14과	愁心(수심)
手	수	손	手, 0	7과	失手(실수)
授	수	주다	手, 8	27과	授與(수여)

收	수	거두다	支, 2	20과	回收(회수)
數	수/삭	셈/자주	支, 11	15과	因數分解(인수분해)
樹	수	나무	木, 12	12과	植樹(식수)
水	수	물	水, 0	1과	藥水(약수)
秀	수	빼어나다	禾, 2	22과	秀才(수재)
誰	수	누구	言, 8	13과	誰何(수하)
雖	수	비록	隹, 9	22과	雖然(수연)
須	수	모름지기	頁, 3	9과	必須(필수)
首	수	머리	首, 0	20과	首席(수석)
叔	숙	아저씨	又, 6	9과	叔父(숙부)
宿	숙/수	자다/별	宀, 8	6과	宿所(숙소)
淑	숙	맑다	水, 8	4과	貞淑(정숙)
純	순	순수하다	糸, 4	4과	純情(순정)
順	순	순하다, 따르다	頁, 3	8과	溫順(온순)
戌	술	열한째 지지	戈, 2	23과	戌時(술시)
崇	승	높다	山, 8	23과	崇高(승고)
拾	습/십	줍다/열	手, 6	16과	收拾(수습)
習	습	익히다	羽, 5	7과	自習(자습)
乘	승	타다, 곱하다	ノ, 9	24과	乘馬(승마)
勝	승	이기다	力, 10	24과	勝利(승리)
承	승	잇다	手, 4	9과	傳承(전승)
始	시	처음	女, 5	18과	始作(시작)
市	시	저자, 도시	巾, 2	16과	市場(시장)
施	시	베풀다	方, 5	10과	施賞(시상)
是	시	옳다, 이것	日, 5	12과	是非(시비)
時	시	때	日, 6	13과	恒時(항시)
示	시	보이다	示, 0	25과	暗示(암시)
視	시	보다	見, 5	16과	視野(시야)
詩	시	시	言, 6	13과	詩想(시상)
試	시	시험하다	言, 6	24과	試圖(시도)
式	식	법	弋, 3	14과	式順(식순)

植	식	심다	木, 8	22과	植木(식목)
識	식	알다	言, 12	16과	知識(지식)
食	식	먹다	食, 0	6과	飲食(음식)
信	신	믿다	人, 7	2과	信用(신용)
新	신	새롭다	斤, 9	7과	新聞(신문)
申	신	펴다	田, 0	21과	申告(신고)
神	신	귀신, 정신	示, 5	23과	精神(정신)
臣	신	신하	臣, 0	12과	忠臣(충신)
身	신	몸	身, 0	9과	自身(자신)
辛	신	맵다	辛, 0	23과	辛苦(신고)
失	실	잃다	大, 2	14과	失敗(실패)
室	실	집, 방	宀, 6	20과	客室(객실)
實	실	열매, 실제	宀, 11	10과	實學者(실학자)
心	심	마음	心, 0	4과	心身(심신)
深	심	깊다	水, 8	26과	深海(심해)
甚	심	심하다	甘, 4	27과	甚至於(심지어)
十	십	열	十, 0	1과	十月(시월)
氏	씨	성씨	氏, 0	27과	氏族(씨족)

一〇

兒	아	아이	儿, 6	23과	兒童(아동)
我	아	나	戈, 3	8과	自我(자아)
惡	악/오	악하다/미워하다	心, 8	7과	凶惡(흉악)
安	안	편안하다	宀, 3	2과	安易(안이)
案	안	책상	木, 6	27과	妙案(묘안)
眼	안	눈	目, 6	22과	眼目(안목)
顏	안	얼굴	頁, 9	13과	顏色(안색)
巖	암	바위	山, 20	14과	巖石(암석)
暗	암	어둡다	日, 9	23과	暗室(암실)
仰	양	우러르다	人, 4	23과	仰天大笑(양천대소)
哀	애	슬프다	口, 6	24과	哀樂(애락)

愛	애	사랑하다	心	9	9과	友愛(우애)
也	야	어조사	乙	2	8과	及其也(<small>급기야</small>)
夜	야	밤	夕	5	15과	夜間(야간)
野	야	들	里	4	16과	平野(평야)
弱	약	약하다	弓	7	17과	虛弱(허약)
約	약	약속하다, 아끼다	糸	3	24과	言約(언약)
若	약	같다, 만약	艸	5	11과	若干(약간)
藥	약	약	艸	15	7과	藥草(약초)
揚	양	드날리다	手	9	8과	止揚(지양)
洋	양	바다	水	6	2과	海洋(해양)
羊	양	양	羊	0	2과	羊毛(양모)
讓	양	사양하다	言	17	10과	讓步(양보)
陽	양	볕	阜	9	7과	陽地(양지)
養	양	기르다	食	6	9과	養育(양육)
於	어	어조사	方	4	10과	於此彼(<small>여차피</small>)
漁	어	고기잡다	水	11	6과	漁村(어촌)
語	어	말씀	言	7	6과	言語(언어)
魚	어	물고기	魚	0	1과	魚種(어종)
億	억	억	人	13	25과	億萬(억만)
憶	억	기억하다	心	13	14과	記憶(기억)
言	언	말씀	言	0	7과	言爭(언쟁)
嚴	엄	엄하다	口	17	28과	嚴命(엄명)
業	업	일	木	9	16과	業務(업무)
余	여	나	人	5	25과	余月(여월)
如	여	같다	女	3	9과	如前(여전)
汝	여	너	水	3	20과	汝等(여등)
與	여	더불다, 주다	白	7	11과	參與(참여)
餘	여	남다	食	7	21과	餘念(여념)
亦	역	또	一	4	28과	亦是(역시)
易	역/이	바꾸다/쉽다	日	4	6과	交易(교역)
逆	역	거스르다	彳	6	2과	反逆(반역)

然	연	그러하다	火	8	21과	自然(자연)
煙	연	연기	火	9	28과	煙氣(연기)
研	연	닦다, 갈다	石	6	11과	研修(연수)
悅	열	기쁘다	心	7	4과	喜悅(희열)
熱	열	덥다, 뜨겁다	火	11	3과	熱情(열정)
炎	염	불꽃, 더위	火	4	2과	炎天(염천)
葉	엽	잎	艸	9	25과	落葉(낙엽)
榮	영	영화	木	10	22과	榮光(영광)
永	영	길다	水	1	2과	永眠(영면)
英	영	꽃부리, 빼어나다	艸	5	4과	英字(영자)
迎	영	맞다, 맞이하다	彳	4	15과	迎入(영입)
藝	예	재주	艸	15	14과	藝能(예능)
五	오	다섯	二	2	1과	五倫(오륜)
午	오	낮	十	2	23과	午後(오후)
吾	오	나	口	4	7과	吾等(오등)
悟	오	깨닫다	心	7	12과	改悟(개오)
鳥	오	까마귀	火	6	5과	鳥合之卒(<small>오합卒</small>)
誤	오	그르다, 잘못	言	7	6과	誤解(오해)
屋	옥	집	戶	6	19과	韓屋(한옥)
玉	옥	구슬	玉	0	15과	白玉(백옥)
溫	온	따뜻하다	水	10	3과	溫度(온도)
瓦	와	기와	瓦	0	23과	瓦屋(와옥)
臥	와	눕다	臣	2	21과	臥病(와병)
完	완	완전하다	宀	4	24과	完成(완성)
曰	왈	말하다	曰	0	19과	曰可曰否(<small>알기愠부</small>)
往	왕	가다	彳	5	5과	往復(왕복)
王	왕	임금	玉	0	8과	王國(왕국)
外	외	바깥	夕	2	18과	外三寸(<small>외삼촌</small>)
要	요	중요하다	西	3	16과	重要(중요)
欲	욕	하고자 하다	欠	7	10과	意欲(의욕)
浴	욕	목욕하다	水	7	20과	浴室(욕실)

勇	용	굳세다	力, 7	19과	勇氣(용기)
容	용	용납하다, 얼굴	宀, 7	13과	許容(허용)
用	용	쓰다	用, 0	2과	使用(사용)
于	우	여조사	二, 1	7과	最于先(최우선)
又	우	또	又, 0	18과	又日新(우일신)
友	우	벗	又, 2	6과	友情(우정)
右	우	오른쪽	口, 2	5과	左右(좌우)
宇	우	집	宀, 3	3과	屋宇(옥우)
尤	우	더욱	尢, 1	2과	尤甚(우심)
憂	우	근심하다	心, 11	14과	憂患(우환)
牛	우	소	牛, 0	5과	韓牛(한우)
遇	우	만나다	辵, 9	28과	待遇(대우)
雨	우	비	雨, 0	24과	雨期(우기)
云	운	이르다	二, 2	18과	云云(운운)
運	운	운전하다, 운수	辵, 9	11과	運動(운동)
雲	운	구름	雨, 4	3과	星雲(성운)
雄	웅	웅장하다	隹, 4	4과	英雄之材(영웅자재)
元	원	으뜸, 처음	儿, 2	16과	元初(원초)
原	원	근원	厂, 8	19과	原因(원인)
圓	원	둥글다	口, 10	11과	圓形(원형)
園	원	동산	口, 10	10과	庭園(정원)
怨	원	원망하다	心, 5	14과	怨恨(원한)
遠	원	멀다	辵, 10	13과	遠大(원대)
願	원	원하다	頁, 10	26과	請願(청원)
月	월	달	月, 0	1과	滿月(만월)
位	위	자리	人, 5	8과	下位(하위)
偉	위	크다	人, 9	10과	偉容(위용)
危	위	위험하다	匚, 4	6과	危急(위급)
威	위	위엄	女, 6	13과	威風堂堂(위풍당당)
爲	위	하다, 되다	爪, 8	7과	行爲(행위)
唯	유	오직	口, 8	24과	唯獨(유독)

幼	유	어리다	幺, 2	20과	幼兒(유아)
有	유	있다	月, 2	6과	有識(유식)
柔	유	부드럽다	木, 5	21과	柔順(유순)
油	유	기름	水, 5	22과	石油(석유)
猶	유	오히려, 같다	犬, 9	26과	過猶不及(과유불급)
由	유	말미암다	田, 0	7과	理由(이유)
遊	유	놀다	辵, 9	14과	遊興(유흥)
遺	유	남기다	辵, 12	7과	遺產(유산)
酉	유	열째 지지	酉, 0	23과	酉時(유시)
肉	육	고기	肉, 0	26과	肉食(육식)
育	육	기르다	肉, 4	9과	教育(교육)
恩	은	은혜	心, 6	22과	恩師(은사)
銀	은	은	金, 6	21과	銀行(은행)
乙	을	새, 둘째 천간	乙, 0	23과	乙丑(을축)
吟	음	읊다	口, 4	24과	吟遊詩人(음유시인)
陰	음	그늘	阜, 8	7과	陰德(음덕)
音	음	소리	音, 0	4과	發音(발음)
飲	음	마시다	食, 4	28과	飲料(음료)
泣	읍	울다	水, 5	19과	感泣(감읍)
邑	읍	고을	邑, 0	20과	邑內(읍내)
應	응	응하다	心, 13	24과	應答(응답)
依	의	의지하다	人, 6	13과	依存(의존)
意	의	뜻	心, 9	25과	誠意(성의)
矣	의	어조사	矢, 2	20과	誰矣(수의)
義	의	옳다, 뜻	羊, 7	12과	義理(의리)
衣	의	옷	衣, 0	7과	衣服(의복)
議	의	의논하다	言, 13	19과	議題(의제)
醫	의	의원, 고치다	酉, 11	21과	醫學(의학)
二	이	둘	二, 0	1과	二重(이중)
以	이	어조사	人, 3	5과	以前(이전)
已	이	이미	己, 0	15과	已往(이왕)

異	이	다르다	田	6	18과	相異(상이)
移	이	옮기다	禾	6	27과	移動(이동)
而	이	어조사	而	0	9과	而立(이립)
耳	이	귀	耳	0	5과	耳目(이목)
益	익	더하다, 이익	皿	5	10과	有益(유익)
人	인	사람	人	0	2과	人情(인정)
仁	인	어질다	人	2	18과	仁慈(인자)
印	인	도장, 새기다	彑	4	18과	印朱(인주)
因	인	인하다	口	3	20과	因果(인과)
寅	인	셋째 지지	宀	8	23과	寅時(인시)
引	인	끌다	弓	1	22과	引揚(인양)
忍	인	참다	心	3	21과	忍苦(인고)
認	인	인정하다	言	7	17과	容認(용인)
一	일	하나	一	0	1과	唯一(유일)
日	일	해, 날	日	0	1과	休日(휴일)
壬	임	아홉째 천간	士	1	23과	壬辰(임진)
入	입	들어가다	入	0	8과	入學(입학)

一·乙

姊	자	손위 누이	女	5	18과	姊妹(자매)
子	자	아들	子	0	8과	子孫(자손)
字	자	글자	子	3	1과	文字(문자)
慈	자	사랑	心	10	9과	慈悲(자비)
者	자	사람	老	5	8과	打者(타자)
自	자	스스로, ~로부터	自	0	21과	自古(자고)
作	작	짓다	人	5	13과	作曲(작곡)
昨	작	어제	日	5	23과	昨年(작년)
場	장	마당	土	9	14과	式場(식장)
壯	장	장하다	士	4	3과	壯觀(장관)
將	장	장차, 장수	寸	8	10과	將軍(장군)
章	장	글	立	6	10과	名文章(명문장)

長	장	길다, 어른	長	0	4과	校長(교장)
再	재	다시, 두	冂	4	8과	再起(재기)
哉	재	어조사	口	6	24과	快哉(쾌재)
在	재	있다	土	3	13과	在學(재학)
才	재	재주	手	0	14과	才能(재능)
材	재	재목	木	3	15과	教材(교재)
栽	재	심다	木	6	22과	植栽(식재)
財	재	재화, 재물	貝	3	11과	財產(재산)
爭	쟁	다투다	爪	4	11과	競爭(경쟁)
低	저	낮다	人	5	3과	最低(최저)
著	저	책 짓다, 나타나다	艸	9	28과	著名(저명)
貯	저	쌓다	貝	5	27과	貯金(저금)
敵	적	대적하다	支	11	11과	敵軍(적군)
的	적	어조사, 과녁	白	3	10과	的中(적중)
赤	적	붉다	赤	0	21과	赤道(적도)
適	적	알맞다	辵	11	17과	適時(적시)
傳	전	전하다	人	11	5과	傳統(전통)
全	전	온전하다	入	4	18과	全國(전국)
典	전	모범, 법	八	6	17과	古典(고전)
前	전	앞	刀	7	20과	前代未聞(전대미문)
展	전	펴다	尸	7	25과	詩畫展(시화전)
戰	전	싸우다	戈	12	11과	戰爭(전쟁)
田	전	밭	田	0	1과	田園(전원)
錢	전	돈	金	8	27과	銀錢(은전)
電	전	번개, 전기	雨	5	28과	感電(감전)
節	절	마디, 아끼다	竹	9	3과	節電(절전)
絕	절	끊다	糸	6	17과	絕好(절호)
店	점	가게	广	5	27과	書店(서점)
接	접	잇다	手	8	9과	接近(접근)
丁	정	장정, 넷째 천간	一	1	18과	兵丁(병정)
井	정	우물	二	2	19과	天井不知(천정부지)

停	정	머무르다	人, 9	28과	停留場(정류장)	卒	졸	마치다, 군사	十, 6	5과	卒業(졸업)
定	정	정하다	宀, 5	19과	固定不變(고정불변)	宗	종	마루, 으뜸	宀, 5	16과	宗孫(종손)
庭	정	뜰	广, 7	25과	校庭(교정)	從	종	따르다	彳, 8	8과	服從(복종)
情	정	뜻	心, 8	4과	父情(부정)	種	종	심다, 종류	禾, 9	10과	種豆得豆(종두득두)
政	정	정치, 정사	支, 5	11과	財政(재정)	終	종	마치다, 끝	糸, 5	20과	終結(종결)
正	정	바르다	止, 1	9과	正直(정직)	鐘	종	쇠북	金, 12	21과	晚鐘(만종)
淨	정	깨끗하다	水, 8	28과	清淨(청정)	坐	좌	앉다	土, 4	16과	連坐(연좌)
精	정	정신	米, 8	4과	精誠(정성)	左	좌	왼쪽	工, 2	5과	左便(좌편)
貞	정	곧다	貝, 2	17과	貞節(정절)	罪	죄	죄, 잘못	罔, 8	12과	餘罪(여죄)
靜	정	고요하다	青, 8	25과	靜中動(정중동)	主	주	주인	丶, 4	9과	地主(지주)
頂	정	정수리	頁, 2	5과	頂門一針(정문일침)	住	주	머무르다	人, 5	26과	現住所(현주소)
帝	제	황제, 임금	巾, 6	26과	帝國(제국)	宙	주	집	宀, 5	3과	宇宙(우주)
弟	제	아우, 제자	弓, 4	18과	弟子(제자)	晝	주	낮	日, 7	23과	白晝(백주)
祭	제	제사, 잔치	示, 6	19과	祭典(제전)	朱	주	붉다	木, 2	12과	朱木(주목)
第	제	차례	竹, 5	20과	第一(제일)	注	주	물 대다	水, 5	2과	注油(주유)
製	제	짓다, 만들다	衣, 8	27과	製造(제조)	走	주	달리다	走, 0	3과	走馬看山(제마간산)
諸	제	모두, 여러	言, 9	11과	諸君(제군)	酒	주	술	酉, 3	7과	麥酒(맥주)
除	제	없애다	阜, 7	15과	除雪(제설)	竹	죽	대나무	竹, 0	6과	竹馬(죽마)
題	제	제목, 문제	頁, 9	10과	命題(명제)	中	중	가운데	丨, 3	9과	中心(중심)
兆	조	조짐, 조	几, 4	25과	吉兆(길조)	衆	중	무리	血, 6	11과	觀衆(관중)
助	조	돕다	力, 5	6과	共助(공조)	重	중	무겁다	里, 2	14과	過重(과중)
早	조	이르다	日, 2	3과	早期(조기)	卽	즉	곧	卌, 7	26과	卽時(즉시)
朝	조	아침	月, 8	6과	朝會(조회)	增	증	늘다, 더하다	土, 12	25과	增強(증강)
祖	조	할아버지	示, 5	19과	祖國(조국)	曾	증	일찍이	曰, 8	12과	曾祖父(증조부)
調	조	고르다	言, 8	14과	好調(호조)	證	증	증명하다	言, 12	23과	物證(물증)
造	조	짓다	辵, 7	28과	造形(조형)	之	지	여조사, 가다	ノ, 3	5과	左之右之(좌지우지)
鳥	조	새	鳥, 0	5과	白鳥(백조)	只	지	다만	口, 2	2과	只今(지금)
族	족	계례	方, 7	10과	民族(민족)	地	지	땅	土, 3	3과	番地(번지)
足	족	발, 족하다	足, 0	5과	手足(수족)	志	지	뜻	心, 3	16과	意志(의지)
存	존	있다	子, 3	24과	存在(존재)	持	지	가지다	手, 6	18과	持續(지속)
尊	존	높이다, 높다	寸, 9	19과	尊敬(존경)	指	지	가리키다	手, 6	25과	指針(지침)



支	지	지탱하다	支, 0	23과	依支(의지)
枝	지	가지	木, 4	15과	枝葉(지엽)
止	지	그치다	止, 0	28과	中止(중지)
知	지	알다	矢, 3	4과	知音(지음)
紙	지	종이	糸, 4	24과	便紙(편지)
至	지	이르다	至, 0	7과	冬至(동지)
直	직	곧다	目, 3	3과	直說的(직설적)
盡	진	다하다	皿, 9	15과	賣盡(매진)
眞	진	참	目, 5	21과	真相(진상)
辰	진·신	별, 다섯째 지지	辰, 0	23과	生辰(생신)
進	진	나아가다	走, 8	17과	增進(증진)
質	질	바탕	貝, 8	20과	性質(성질)
執	집	잡다	土, 8	22과	執念(집념)
集	집	모으다	隹, 4	15과	集中(집중)

一 又

且	차	또	一, 4	27과	重且大(중차대)
借	차	빌리다	人, 8	8과	借名(차명)
次	차	점차, 버금	欠, 2	27과	順次(순차)
此	차	이, 이것	止, 2	16과	此後(차후)
着	착	붙다, 자리잡다	目, 7	24과	着色(착색)
察	찰	살피다	宀, 11	8과	觀察(관찰)
參	참	참여하다	厃, 9	11과	參加(참가)
唱	창	부르다	口, 8	15과	合唱(합창)
昌	창	창성하다	日, 4	22과	昌盛(창성)
窓	창	창	穴, 6	24과	同窓(동창)
採	채	캐다	手, 8	18과	採集(채집)
菜	채	나물	艸, 8	4과	山菜(산채)
冊	책	책	冂, 3	27과	冊房(책방)
責	책	꾸짖다, 책임	貝, 4	12과	責望(책망)
妻	처	아내	女, 5	27과	妻男(처남)

處	처	곳, 처하다	虍, 5	11과	到處(도처)
尺	척	자	尸, 1	7과	尺度(척도)
千	천	일천	十, 1	9과	千金(천금)
天	천	하늘	大, 1	3과	天體(천체)
川	천	내	𠩺, 0	2과	河川(하천)
泉	천	샘	水, 5	15과	溫泉(온천)
淺	천	얕다	水, 8	20과	日淺(일천)
鐵	철	쇠	金, 13	13과	鐵則(철칙)
晴	청	개다	日, 8	28과	晴天(청천)
清	청	맑다	水, 8	13과	清潔(청결)
聽	청	듣다	耳, 16	25과	聽取(청취)
請	청	청하다	言, 8	11과	請婚(청혼)
青	청	푸르다	青, 0	3과	青果(청과)
體	체	몸	骨, 13	9과	體育(체육)
初	초	처음	刀, 5	13과	始初(시초)
招	초	부르다	手, 5	28과	招請(초청)
草	초	풀	艸, 6	20과	草原(초원)
寸	촌	치, 마디	寸, 0	7과	三寸(삼촌)
村	촌	마을	木, 3	2과	江村(강촌)
最	최	가장	曰, 8	19과	最終(최종)
推	추	밀다	手, 8	24과	推定(추정)
秋	추	가을	禾, 4	14과	秋夕(추석)
追	추	쫓다	走, 6	10과	追放(추방)
丑	축	둘째 지지	一, 3	23과	丑時(축시)
祝	축	축하하다	示, 5	9과	祝祭(축제)
春	춘	봄	日, 5	13과	陽春佳節(양춘가절)
出	출	나다	匚, 3	4과	外出(외출)
充	충	차다	几, 4	9과	充分(충분)
忠	충	충성	心, 4	17과	忠孝(충효)
蟲	충	벌레	虫, 12	11과	蟲齒(충치)
取	취	취하다	又, 6	28과	採取(채취)

吹	吹	불다	口, 4	24과	吹打(취타)
就	취	나아가다	尤, 9	27과	進就(진취)
治	치	다스리다	水, 5	16과	治安(치안)
致	치	이르다	至, 4	21과	致誠(치성)
齒	치	이	齒, 0	23과	齒科(치과)
則	칙/즉	법/곧	刀, 7	11과	原則(원칙)
親	친	친하다, 어버이	見, 9	9과	親近(친근)
七	칠	일곱	一, 1	1과	七夕(칠석)
針	침	바늘	金, 2	23과	方針(방침)

· 三

快	쾌	상쾌하다	心, 4	3과	快樂(쾌락)
---	---	------	------	----	--------

· 三

他	타	다르다	人, 3	19과	他鄉(타향)
打	타	치다	手, 2	20과	打鐘(타종)
脫	탈	벗다	肉, 7	14과	脫出(탈출)
探	탐	찾다	手, 8	25과	探究(탐구)
太	태	크다	大, 1	16과	太陽(태양)
泰	태	크다	水, 5	7과	泰山(태산)
宅	택·택	집	宀, 3	26과	住宅(주택)
土	토	흙	土, 0	1과	國土(국토)
統	통	거느리다	糸, 6	16과	統一(통일)
通	통	통하다	辵, 7	4과	通過(통과)
退	퇴	물러나다	辵, 6	8과	進退(진퇴)
投	투	던지다	手, 4	20과	投手(투수)
特	특	특별하다	牛, 6	18과	特性(특성)

· 二

波	파	물결	水, 5	15과	電波(전파)
破	파	깨뜨리다	石, 5	18과	破竹之勢(파죽세)

判	판	판단하다	刀, 5	18과	判決(판결)
八	팔	여덟	八, 0	1과	八字(팔자)
敗	패	패하다	支, 7	8과	敗北(패배)
貝	패	조개	貝, 0	1과	魚貝(어패)
便	편/변	편하다/뚱오줌	人, 7	16과	便利(편리)
片	편	조각	片, 0	15과	片雲(편운)
篇	편	책	竹, 9	14과	詩篇(시편)
平	평	평평하다	干, 2	19과	平地(평지)
閑	폐	닫다	門, 3	25과	閑校(폐교)
布	포	베, 퍼다	巾, 2	24과	分布(분포)
抱	포	안다	手, 5	4과	抱卵(포란)
暴	폭	사납다	日, 11	15과	暴風(폭풍)
表	표	겉	衣, 3	9과	表記(표기)
品	품	물건	口, 6	13과	品質(품질)
豐	풍	풍성하다	豆, 11	28과	豐富(풍부)
風	풍	바람	風, 0	3과	風雲兒(풍운아)
彼	피	저	彳, 5	16과	彼此(피차)
皮	피	가죽	皮, 0	13과	皮革(피혁)
匹	필	짝, 마리	匚, 2	19과	匹敵(필적)
必	필	반드시	心, 1	8과	必要(필요)
筆	필	붓	竹, 6	22과	筆記(필기)

· 二

下	하	아래	一, 2	1과	天下(천하)
何	하	어찌	人, 5	13과	何必(하필)
夏	하	여름	夊, 7	14과	夏服(하복)
河	하	강	水, 5	13과	黃河(황하)
賀	하	하례하다	貝, 5	17과	祝賀(축하)
學	학	배우다	子, 13	12과	學習(학습)
寒	한	차다	宀, 9	12과	寒波(한파)
恨	한	한	心, 6	15과	餘恨(여한)

漢	한	한나라	水, 11	1과	漢詩(한시)
閑	한	한가하다	門, 4	25과	閑散(한산)
限	한	한계	阜, 6	24과	限界(한계)
韓	한	나라 이름	韋, 8	16과	韓國(한국)
合	합	합하다	口, 3	5과	合計(합계)
恒	항	항상	心, 6	10과	恒常(항상)
亥	해	열두째 지지	一, 4	23과	亥時(해시)
害	해	해롭다	宀, 7	11과	害蟲(해충)
海	해	바다	水, 7	3과	海流(해류)
解	해	풀다	角, 6	24과	解決(해결)
幸	행	행복, 다행	干, 5	25과	多幸(다행)
行	행	행하다	彳, 0	16과	實行(실행)
向	향	향하다	口, 3	15과	性向(성향)
鄉	향	시골, 고향	邑, 10	25과	鄉愁(향수)
香	향	향기	香, 0	23과	香水(향수)
虛	허	비다	虍, 6	21과	虛空(허공)
許	허	허락하다	言, 4	17과	特許(특허)
革	혁	가죽, 고치다	革, 0	12과	革新(혁신)
現	현	나타나다	玉, 7	13과	表現(표현)
賢	현	어질다	貝, 8	4과	賢明(현명)
血	혈	피	血, 0	5과	血肉(혈육)
協	협	돕다	十, 6	26과	協助(협조)
兄	형	형	儿, 3	18과	兄弟(형제)
刑	형	벌	刀, 4	12과	刑事(형사)
形	형	모양	丂, 4	4과	形式(형식)
惠	혜	은혜	心, 8	26과	恩惠(은혜)
乎	호	어조사	ノ, 4	18과	於乎(오호)
呼	호	부르다	口, 5	25과	呼出(호출)
好	호	좋다	女, 3	7과	愛好(애호)
戶	호	지계문, 집	戶, 0	12과	家戶戶(가호)
湖	호	호수	水, 9	13과	湖水(호수)
虎	호	호랑이	虍, 2	20과	白虎(백호)

號	호	이름	虍, 7	16과	國號(국호)
或	혹	혹시	戈, 4	26과	或是(혹시)
婚	혼	혼인	女, 8	17과	結婚(결혼)
混	혼	섞다	水, 8	18과	混同(혼동)
紅	홍	붉다	糸, 3	12과	紅顏(홍안)
化	화	되다	匕, 2	12과	變化(변화)
和	화	화목하다	口, 5	16과	溫和(온화)
火	화	불	火, 0	1과	火傷(화상)
畫	화/획	그림/긋다	田, 7	11과	畫家(화가)
花	화	꽃	艸, 4	13과	花草(화초)
華	화	빛나다	艸, 8	21과	榮華(영화)
話	화	말하다	言, 6	15과	對話(대화)
貨	화	재물	貝, 4	27과	財貨(재화)
患	환	근심	心, 7	8과	患者(환자)
歡	환	기쁘다	欠, 18	15과	歡迎(환영)
活	활	살다	水, 6	26과	生活(생활)
皇	황	황제, 임금	白, 4	26과	皇帝(황제)
黃	황	노랗다	黃, 0	10과	朱黃(주황)
回	회	돌다, 번	口, 3	24과	回答(회답)
會	회	모이다	曰, 9	14과	會議(회의)
孝	효	효도	子, 4	9과	孝誠(효성)
效	효	본받다	攴, 6	11과	效果(효과)
厚	후	두텁다	厂, 7	25과	仁厚(인후)
後	후	뒤	彳, 6	10과	前後(전후)
訓	훈	가르치다	言, 3	6과	訓練(훈련)
休	휴	쉬다	人, 4	2과	休眠(휴면)
凶	흉	흉하다	匚, 2	27과	凶計(흉계)
胸	흉	가슴	肉, 6	9과	胸中(흉중)
黑	흑	검다	黑, 0	11과	暗黑(암흑)
興	흥	일어나다	白, 9	18과	興味(흥미)
喜	희	기쁘다	口, 9	8과	喜色(희색)
希	희	바라다	巾, 4	22과	希望(희망)

4. 인용 자료 출처



사진

전체	연화인연문수막새	유금와당박물관
전체	장생무극수막새	승실대학교 박물관
전체	등	Pixabay https://pixabay.com
전체	장독대	Pixabay
5, 6쪽	차례 이미지(8컷)	각 대단원 열기와 같음.
7쪽	순천만 일출	(주)토픽이미지스 http://www.topicimages.com
11쪽	해서	서법흔상 http://www.yac8.com/news/11767_3.html
12쪽	리우 패럴림픽 픽토그램 launches-paralympic-pictograms	https://www.paralympic.org/news/rio-2016-launches-paralympic-pictograms
12쪽	동파문자	http://blog.daum.net/sws430/6025875
17쪽	갑골문	http://tieba.baidu.com/p/1771423680
17쪽	메소포타미아 문자	http://blog.daum.net/hks301/14652261
17쪽	고대 이집트 문자	egloos http://oval,egloos.com/1930133
17쪽	갑골문	http://tieba.baidu.com/p/1771423680
17쪽	금문	360百科 http://baike.so.com
17쪽	전서	360百科
17쪽	예서	경전서화 http://ibyavip.blog.163.com
17쪽	행서	유니전시관 http://www.unigallery.co.kr
17쪽	초서	성호기념관 http://seongho.lansan.net
18쪽	캘리그라피	http://blog.naver.com/april810/220217690558
20, 21쪽	본문 배경	Pixabay
22쪽	주합루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3쪽	방구부채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emuseum.go.kr
23쪽	접부채	국립중앙박물관
23쪽	선풍기	Pixabay
26쪽	일출	Pixabay
27쪽	송하독서도	삼성리움미술관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
29쪽	도서관	Pixabay
29쪽	방각분 사서오경	조선뉴스프레스 https://topclass.chosun.com
29쪽	장승	Pixabay
29쪽	중국 거리	Pixabay
29쪽	일본 거리	Pixabay
33쪽	백안동 돌담길	윤기권
35쪽	설상가상	Pixabay
35쪽	황희	국립중앙박물관
36쪽	삼족오	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
37쪽	흉인지문	방방곡곡 http://www.bbkk.kr
37쪽	돈의문	국립민속박물관 http://nfm.museum.go.kr
37쪽	승례문	문화재청
37쪽	숙정문	문화재청
38쪽	광화문	화봉문고 http://www.bbkk.kr/tour/view/620
42쪽	백수도	Baidu 圖片 http://image.baidu.com
42쪽	오발탄	http://bookseum.hwabong.com/jsp/show51/showList_n.jsp?page=5&ms_id=32&mc_no=251
43쪽	한중일 캐릭터	하늘호수 http://m.blog.daum.net/naramile/12762578
44쪽	로마의 휴일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46쪽	본문 사진	(주)토픽이미지스
47쪽	자	국립중앙박물관
47쪽	순오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47쪽	여유당전서	성호기념관
48쪽	맥반석	http://prologue.blog.naver.com
49쪽	한·중·일 탈, 인형	Pixabay
53쪽	증자	Baidu 百科 http://baike.baidu.com/view/7380.htm
55쪽	동의보감	국립중앙박물관
56쪽	고진감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ela&articleno=2243&categoryId=63&regdt=20150806170915
59쪽	선암사 승선교	(주)토픽이미지스
60쪽	명심보감 판본(인홍서원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61쪽	오륜행실도	우리글로의 풀이 언해 http://hangeullo.tistory.com
63쪽	서당	국립중앙박물관
64쪽	효 문자도	국립민속박물관
64쪽	총 문자도	국립중앙박물관
67쪽	김장 봉사	헬로포토 http://www.hellophoto.kr
68쪽	안중근	타임트리 http://timetree.zum.com/99424/100392
69쪽	공자상	Baidu 百科 http://baike.baidu.com
72쪽	계곡	Pixabay
73쪽	손자	360百科
74쪽	한반도 위성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go.kr
75쪽	자유(세)	Pixabay
75쪽	창덕궁 부용지	문화재청
75쪽	업전	국립중앙박물관
78쪽	취석정기 현판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ochang.grandculture.net
78쪽	퇴계선생언행록	국립중앙박물관
79쪽	흉재전서	문화재청
79쪽	정조 임금 시	국립중앙박물관
80쪽	콩·팥·보리·밀	Pixabay
81쪽	척화비	문화재청
85쪽	대청호	Pixabay
87쪽	운영전	한국학중앙연구원
87쪽	도화의구소춘풍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gCt&articleno=8727627&categoryId=151334&regdt=20060605072039
89쪽	매화	Pixabay
93쪽	매창집(복본)	부안문화원 http://buan.kcc.or.kr
94쪽	낙화암	문화재청
94쪽	백화정	문화재청
94쪽	풍향계	Pixabay
95쪽	백일장 답안지	국립민속박물관
101쪽	정몽주	국립중앙박물관
102쪽	요리 대결	TV 캐스트 http://tvcast.naver.com/v/1209834
105쪽	복원된 직지 활자판	헬로포토
106쪽	해좌전도	“초등학교 독도”, 경상북도교육청, 2013
107쪽	“조선어사전” 초판	우리문화가꾸기회
107쪽	독도	문화재청
108쪽	국회 의사당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108쪽	팔도총도	디지털칠곡문화대전 http://chilgok.grandculture.net
109쪽	여지승람	규장각 e-kyujanggak.snu.ac.kr
109쪽	여지승람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109쪽	한반도 위성 사진	기상청 http://www.kma.go.kr
110쪽	독도	문화재청
113쪽	화죽	국립민속박물관
113쪽	신행	(주)토픽이미지스
114쪽	사주단자	국립중앙박물관
115쪽	세배	국립민속박물관
115쪽	용늘이	JCONLINE http://www.jconline.cn
115쪽	오세치료리	macaroni http://macaro-ni.jp/7998
119쪽	천자문	대전일보
119쪽	직지심체요절	한국문화정보원 http://www.culture.go.kr
120쪽	인정전과 품계석	문화재청
121쪽	다문화	(주)토픽이미지스
121쪽	금속 활자 제작	한국문화재재단 http://www.chf.or.kr/c2/sub1.jsp?thisPage=5&searchField=title&searchText=%ed%bd%8c&brdType=R&bblIdx=100266
122쪽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122쪽	동의보감	국립중앙박물관
122쪽	수원 화성	문화재청
122쪽	판소리	문화재청
123쪽	說(집자)	“보왕삼매염불직지”(직지성보박물관) http://jikjimuseum.org/cyber/sajuk_view.asp?pCode=02&pRglID=11&pRemID=654
123쪽	語, 云, 言(집자)	“韓中日書道大典”, 서예사, 1978
125쪽	청자 원양 모양 항로 두경	국립중앙박물관
125쪽	원양	문화재청



내용

7쪽 세계의 고대 문자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918&cid=40942&categoryId=32972>

23쪽 부채와 선풍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126쪽 삼계탕	(주)토피이미지스
127쪽 가족사진	Pixabay
127쪽 율곡 이이 선생가 분재기 건국대학교 박물관	
128쪽 가화만사성	http://jwaumyeong.tistory.com/404
131쪽 지리산	Pixabay
133쪽 이광의 묘	Baidu 旅游 https://lyou.baidu.com/liguangmu
135쪽 석호정	헬로포토
139쪽 산학정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net/dataSearch/dataSearchList.aspx?cateQ=dic&Type=&query=&sort=&curPage=713&pageSize=10
139쪽 김득신 독서상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jdwdj9096&logNo=220489808889&categoryNo=114&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141쪽 수 배경	Pixabay
141쪽 주판	문화재청
145쪽 이명은의 글씨	국립중앙박물관
145쪽 이정의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146쪽 물망초	Pixabay
147쪽 담장	Pixabay
147쪽 몽유도원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BD%EC%9C%A0%EB%8F%84%EC%9B%90%EB%8F%84
147쪽 월하정인	간송미술문화재단 http://kansong.org/museum/collection/
147쪽 세한도	문화재청
148쪽 하늘	Pixabay
151쪽 소쇄원 제월당	(주)토피이미지스
153쪽 이현석의 시와 간찰	국립중앙박물관
154쪽 김시습 초상	문화재청
155쪽 십이지신상 중 말	국립중앙박물관
159쪽 거문고	국립중앙박물관
161쪽 바둑판	nipic http://www.nipic.com/zhuanti/1234012.html
161쪽 이세돌 대국	헬로포토
165쪽 판소리	문화재청
166쪽 오경백편	국립중앙박물관
166쪽 이백	Baidu 百科
166쪽 두보	Baidu 百科
167쪽 나무	Pixabay
171쪽 호수	Pixabay
172쪽 정일당유고	http://blog.daum.net/lee7997/1584
173쪽 덕혜옹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D%95%ED%98%9C%EC%98%B9%EC%A3%BC
174쪽 어가행렬	헬로포토
174쪽 종리준과 제선왕	광명망 http://www.gmw.cn
175쪽 환경	Pixabay
179쪽 연암집	실학박물관 http://silhak.ggcfl.kr
180쪽 서안	국립중앙박물관
181쪽 국제 거래	Pixabay
181쪽 화성행행도	문화재청
183쪽 책가도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185쪽 동파적벽	CN 블로그 http://www.cnblogs.com/yahoo/p/3884216.html
185쪽 소식	四川省 정부 http://www.sc.gov.cn
187쪽 에너지	Pixabay
187쪽 동파육	Baidu 百科 http://baike.baidu.com

43쪽 ‘화가 이중섭’	엄광용, 중1~2 교과서 1단원-(1) 7차 교육과정
43쪽 ‘옛이야기–우정의 길’	중1~2 국어교과서 2단원-(4), 2009
43쪽 ‘들판에서’	이강백, 중2~2 국어교과서 3단원-(2), 비상, 2016
56쪽 신국빈 좌우명	“太乙菴文集” 卷之五 雜著 老人讀書解嘲
56쪽 이이 좌우명	“栗谷先生全書” 卷之二十七 擊蒙要訣 序
56쪽 이재신 좌우명	“清江先生集” 卷之二 對 清江居士對
56쪽 황종해 좌우명	“朽淺先生集” 卷之一 朋友第八
63쪽 책거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4121&cid=46615&categoryId=46615
87쪽 상사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운영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88쪽 상사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쑥대머리’ http://folkency.nfm.go.kr/main/Search.jsp
89쪽 有約郎何晚…	“惶所覆飯藁”, 제26권 鶴山樵談, 94쪽
89쪽 今春看又過…	“今唐詩”, 제31권, 133쪽, 絶句二首
89쪽 月夜思君長不忘…	http://blog.naver.com/cablenews1/220833885361
90쪽 시구(그대가…)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도서출판 푸른솔, 1998, 14쪽.
100쪽 送人’ 시	徐居正, 東文選, 卷十九, 送人’
101쪽 丹心歌	沈光世, 海東樂府
107쪽 ‘獨島’의 명칭 유래	“증학교 득도 바로 알기”, 동북아역사재단, 6쪽
109쪽 半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반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440&cid=46617&categoryId=46617
113쪽 ‘화족을 밝히다’ 란?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화족을 밝히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3594&cid=47320&categoryId=47320
115쪽 한·중·일 새해맞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설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06937&cid=51944&categoryId=54948
	쉽게 이해하는 중국 문화, 명절과 기념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5166&cid=42998&categoryId=42998
	새로운 일본의 이해, 설날의 주요 행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4038&cid=42996&categoryId=42996
119쪽 천자문이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천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684&cid=46674&categoryId=46674
120쪽 세종, 노비에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http://www.happycampus.com/doc/10933157
121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상정고금예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769&cid=46649&categoryId=46649
126쪽 청파극당에 실린…	“青坡劇談”,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 貴350’. “청파집” ‘부록’
127쪽 율곡 집안 分財記	조선 시대의 재산 상속 기록, 율곡 이이 선생 가 분재기 http://blog.naver.com/kumuse/220339032036
133쪽 주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명왕신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4263&cid=46643&categoryId=46643
135쪽 남산의 석호정	“두산백과” 석호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003&cid=40942&categoryId=33084
140쪽 은행의 기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은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588&cid=58438&categoryId=58438
141쪽 혜민서와 강혜원	“의학개론 1”(의학의 개념과 역사) ‘관립병원과 의학교육’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2121&cid=51082&categoryId=51085
146쪽 물망초 전설	“산야초 식물도감” 229쪽, 문순열, 2008년, 글 로북스
146쪽 김성기의 집념	조수삼, “秋齋集”, 권7, 紀異 ‘金琴師’條
155쪽 犬走梅花落…	李肯翊, “燃藜室記述”, ‘成宗朝名臣’
187쪽 동파육	“두산백과” 동파육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10704001217686

•위에 언급하지 않은 사진, 삽화, 내용 등의 저작권은 저작자 또는 출판사에 있음.





| 집필진 |

이상진* (V, VII단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졸업(문학 박사)

저서: 제6차 · 제7차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제6차 · 제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외 다수

(전) 성균관대학교 · 국민대학교 강사,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최상근 (IV, VII단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저서: 제6차 · 제7차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제6차 · 제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외 다수

(현) 방배중학교 교사

이자곤 (I, II단원)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 수료

저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2007 개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외 다수

(현) 전통문화연구회 교육위원

원주용 (III, VIII단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졸업(문학 박사)

저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한문 공부 길잡이”, “손자병법을 읽다”, “담암일집(역서)” 외 다수

(전)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사

(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인서 (I ~VIII단원)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

저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인정) 외 다수

(전) (주)동화사 편집국장, 한문 교과 전문위원

(현) 도서출판 민들레피앤씨 대표

* 표시는 집필진 책임자임.

|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위원 |

기초 조사 위원

서정화(고려대학교)

김현옥(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서진원(용암중학교)

천은아(증평중학교)

본심사 위원

김미선*(청주대학교)

조환문(현도정보고등학교)

도민재(청주대학교)

오국진(청주여자고등학교)

지선호(충청북도교육청)

김정훈(제천교육지원청)

이명희(진천중학교)

변연주(원봉중학교)

조혁기(남성중학교)

김효정(원평중학교)

서진원(용암중학교)

김현옥(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서정화(고려대학교)

박영호(경북대학교)

* 표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위원장임.

총괄 / 류상균

편집 / 정주환 조천현 김종오

디자인 / 김춘오 민들레피앤씨

삽화 / 김춘오 한정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7년 인정 승인을 하였음.

중학교

한문

2018. 3. 1. 초판 발행

정가 0000원

지은이 | 이상진 외 4인

발행인 | (주)동화사(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850-34)

인쇄인 | (주)동화사(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850-34)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웹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주)동화사 교과서개발국 전화: 070-4755-3282 전송: (053) 424-3113

공급 업무 대행: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

개별 구입 문의: 홈페이지 주소 www.kitbook.com 031-956-85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ISBN: 978-89-515-3695-3

漢文

중학교



53710
9 788951 536953
ISBN 978-89-515-3695-3